



12

주체 102 (2013)

문학예술출판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2(2013)년 제12호

(루계 제794호)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세기적변혁과 강성
변영하는 선군조선에 펼쳐진 자랑스런 현실은 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주의가 안아온 고
귀한 결실입니다.》

김 정 은

차 례

| | |
|--|-----------|
| 승리와 영광의 해 2013년이여(시) | 오 동 규(4) |
| 이해의 마지막달력을 번지며(시) | 리 명 호(5) |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6) |
| 적사에 빛나는 집(시) | 허 수 산(6) |
| 단편소설 해빛삼천리 | 허 문 길(7) |
| 주체문학의 대강 | (19) |
| 눈꽃들의 속삭임 | 문 동 식(19) |
| 위대한 한생 | 김 형 준(20) |
| 시 아버이장군님의 동상을 우리리 | 정 두 국(21) |
| 승용차앞에서 | 곽 명 철(21) |
| 우리의 거리로 우리와 함께 | 리 연 희(22) |
| 장군님의 한생 — 인민 (혁명일화) | (35) |
| 단편소설 12월의 그이 | 황 용 남(23) |
| 최고사령관 그이께 저수경체를! | 황 명 성(36) |
| 병사의 금지 | 리 찬 호(36) |
| 시 나는 보았다 | 류 민 호(37) |
| 섬초소의 걱정 | 리 영 일(40) |
| 가을이 오니 | 한 옥 란(40) |
| 충정의 미소 | 리 계 심(41) |
| 태양의 축복받은 조선의 미래에 대한 정서적형상(단평) | 강 정 심(38) |

《모두다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김 정 은

단편
소설

나의 아버지 홍 남 수(42)

인 연 김 철 순(53)

그리움에 사는 사람들 (실화문학) 엄 성 영(64)

수

별하늘을 바라보며 리 명 현(52)

필

마식령의 병사들 박 혜 란(76)

◇ 시 ◇

나는 은하과학자거리에서 산다! 한 동 선(62)

우리 헌법 제일일세 (가사) 리 계 주(35)

인생의 자욱 (가사) 김 용 엽(51)

신입병사의 첫 경례 박 상 민(63)

가을날의 분노 황 성 하(63)

동 발 리 명 학(70)

승리자의 눈물 김 성 희(75)

나의 경고 엄 정 호(80)

혁신적안목과 작품의 형상세계 (평론) 리 창 유(71)

편집부의 말

2013년을 보내며 (78)

표지2면: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장군》 (노래)

3면: 《강성국가건설을 우리 식으로!》 (선전화)

승리와 영광의 해 2013년이여

오 동 규

축복의 흰눈은 내리는데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가는가
2013년 못 잊을 해여
너의 날과 달들을 더듬어보는
우리의 가슴 뜨거움에 젖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높뛰는 가슴마다에 받아안고
선군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펼쳐온
우리의 힘찬 발자국들이
이해의 날과 달들에
자랑스럽게 찍혀져있구나

자랑스럽구나 긍지롭구나
경애하는 원수님 높이 모시고
전승 60돐과 공화국창건 65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한
뜻깊은 그 나날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기를 높이 모시고
천만군민이 목청껏 터치던
만세의 환호소리
일심단결의 대오가 굽이쳐흐르던
승리의 **김일성**광장

경애하는 원수님
온 한해를 하루같이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시려
서해의 섬초소들과
오성산의 칼벼랑길 굽이굽이
온 한해 전선길을 끊임없이 걸으셨지

경애하는 원수님

우리 인민에게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안겨주시려
마식령스키장건설장과 옥류아동병원건설장
온 한해 헌신의 자욱 끝없이 새기시였지

보여오누나
들려오누나
서해의 섬초소에 펼쳐진 천도개벽의 전변
철령아래 사파바다여
은하과학자거리살림집들에서 울려퍼지던
로동당만세의 눈물젖은 목소리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 받들어
《마식령속도》창조열풍이
온 나라에 세차게 휘몰아쳐
아득히 펼쳐진 사회주의대지엔
오곡백과 무르익어 설레이고
선군시대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보란듯이 일떠섰나니

축복의 눈송이는 내리는데
어느덧 이해도 저물어가는가
2013년 못 잊을 해여
원수님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쳐
승리만을 펼쳐온 너의 날과 달들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으려니

아, 우리 당과 조국 인민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승리와 영광만을 새겨온
못 잊을 2013년이여
우리 이 자랑스런 승리의 역사를
찬란한 미래 향해 이어가고 또 이어가리라



이해의 마지막달력을 번지며

리 명 호

이해의
마지막달력을 번지려니
추억도 많은 2013년이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뜻깊은 날과 달들이 내 손을 잡누나

정녕 헤어지기 아쉬운
뜻깊은 날과 달로 흘러간
365일이여
그 어느날을 그려보아도
우리의 한생애 길이 남을 추억의 해여

새해의 신년사를 하시는 높은 연단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감격에 넘쳐 뵈옵던 그날부터
이해의 마지막날까지
신문과 텔레비죤화면에서 뵈옵던 감격이여

조국의 무궁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찾고찾으신
초소와 공장 건설장들에 울려퍼지던 만세소리여
아직도 눈앞에 삼삼히 어려오는
서해의 검푸른 파도를 헤치던 작은 목선이여

흘러간 너의 하루하루는
흘러온 세월의 한해맛잡이로
기적과 혁신을 수놓아온 나날
흘러온 너의 한해는
마주올 세월 수십년을 당겨온 한해

《마식령속도》의 열풍속에
하늘을 메우며 솟구친 창조물들
희한한 은하과학자거리와 교육자살림집
행복의 바다 문수물놀이장
기쁨의 말발굽소리 높은 미림승마구락부…

창박에 내리는 함박눈도
축복의 꽃보라되어 내리는구나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신

전승 60돐 승리자의 열병식이여
공화국창건 65돐 일심단결의 꽃바다여

김일성광장에 새겨진
열병대오의 발자욱 환희의 꽃물결이
세월의 눈비에 씻기지 말라고
광장의 포석우에 가로수들에
포근히 감싸듯 내리는 함박눈이여

세월은 가도
더욱 생생히 안겨올 못 잊을 추억
승리와 영광만을 남겨준
2013년의 날과 달이여
이제 정녕 우리 너와 작별해야 한단 말인가

2013년이여 너는
뜻깊은 추억으로만 영원할 해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처럼
우리의 세월속에 영원할
승리와 영광의 해

너는 영원한 환희로 우리와 함께 있으리
문명의 상징 마식령스키주로우에
세포등판의 방목공처녀들의 노래속에
유원지와 극장무대의 노래속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속에 영원하리니

이제 제야의 종소리 울리리
그러면 이제 너와 작별하게 되리
허나 우리 너를 손저어 보내는것 아니다
우리 너를 더 굳게 손을 잡고 함께 가리
원수님 모시고 이 세상 끝까지

아, 눈시울 덜혀주는 《조국찬가》의 선물이여
2013년 너로 하여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부신 내 조국은
너를 잊지 않으리
우리도 너를 잊지 않으리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의 력사가들이 우리가 걸어온 항일혁명의 길을 전인미답의 길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항일혁명투사들은 혁명뿐아니라 사랑에서도 전인미답의 경지를 개척하였습니다. 생활은 상상할수 없을 정도로 간고했지만 백두산부석우에도 사랑은 있었습니다.

부모자식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련인간의 사랑, 사제간의 사랑, 동지간의 사랑을 비롯하여 인간생활에 존재하는 사랑에서 중요한것은 헌신성이라고 봅니다.

자기는 굶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굶지 않게 하며 자기는 춥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춥지 않게 하며 자기는 아프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불속에도 들어가고 형틀앞에도 나서고 얼음구멍에도 뛰어드는 그런 자기희생적인 헌신성만이 가장 아름답고 숭고하고 진실한 사랑을 창조할수 있습니다.》

력사에 빛나는 집

허 수 산

6월의 무성한 숲속에
한채의 소박한 농민의 집
이 집 지을 때 이 집주인
5복이 깃들라고 글도 지었다 하였건만
오늘은 수령님 계셨던 이 집에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아주셨으니
천만복이 깃든 력사에 빛나는 집

금모래 은모래 반짝이는
작은 집 정갈한 마당가에 들어서니
60여년전 10월 26일 이른새벽
이슬내린 마당가에 들어서시던
수령님의 발자욱소리 들려오는 집

세월을 향해 열려있는 방문안
쓰다듬듯 방안을 살펴보니
농촌의 그 어느 집에서나 볼수 있었던 노전
노전우엔 자그마한 책상
책상우엔 전화기...

아, 이것이 정녕
조국앞에 시련이 닥쳐왔던 어려운 시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우리 수령님께서 계셨던 집
조선혁명의 최고사령부였던 말인가

바라보면 뜨거워지는 눈시울
잠든 농민들의 새벽잠을 깨울세라
찬서리 내리는 마당가에서 우리 수령님
우등불 피워 새벽을 맞으시던

그날의 우등불 상기도 타오르는듯
그 우등불에 가슴뜨거워지는
유평땅의 농민의 집이여

산골도 깊은 산골 추녀났은 집이건만
그 처마아래서 수령님의 명령은
전선과 후방 그 모든 전역들에 잇닿은 집이였고
농민들의 생활과 전식량생산문제를 두고
우리 수령님 마음쓰신 집
온 나라를 처마아래 품어주신 집

세월은 흐르고 산천은 변해도
수령님의 불멸의 위업으로 세상에 빛나는 집
우리 경애하는 원수님 찾아주시여
수령님의 불멸의 위업 만대로 빛날
오, 유평혁명사적지 농민의 집이여

준엄한 50년 10월
수령님 찾으시여 하루 목고가신 집
그 하루가 있어 내 조국엔
전승과 전후복구건설의 천날만날이 있었고
산골의 작은 집 낮은 처마는
온 나라 사람들을 부르며 하늘높이 펼쳤나니

오, 원수님 찾아주신 6월
그날의 신흥속에 솟아 빛나는
유평혁명사적지 농민의 집은
인민의 마음속에 력사의 언덕우에
우뚝 솟아 빛나는 집으로 되었구나



허 문 길

(전호에서 이음)

4

방에 들어서신 수령님께서는 인차 송수화기부터 드시였다. 교환수더러 정용진부장을 찾으라고 하시였다.

정용진은 최금호가 체류하고있는 숙소에서 전화를 받았다.

《어째 아직도 쉬지 않소? 내가 혹 잠에 취해든 걸 깨운게 아니요?... 나 말이요?... 난 팬찮소. 이제는 습관이 되었거던. 나이들면 이 생각, 저 생각 많아져서 쉬이 잠들지 못한다요. 허허... 그런데 말이요. 최금호... 저 기업가선생이 어떻게 하고있소?》

《수령님, 최금호선생에게 수령님의 은정깊은 말씀을 다 전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읍니다. 지금 침실에 증손들을 눕혀놓고 그냥 잠들지 못하고 울고있습니다.》

《울고있다고?... 그래?... 내 지금껏 동무네가 가져온 최금호자료를 다 보았소. 한마디로 가슴이 아프오. 우리 조국이 가져온 수난사가 그 인간의 인생사에 비껴있더구만. 그런데 말이요. 아들이 나라형편을 생각한다면 뭔가 부탁을 한게 아니요?》

수령님께서는 아버지를 궁지에 몰아간 아들의 처사가 아직도 가슴을 알알하게 해서 엄한 어조로 물으시였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자신이 평양시와 남

포시안의 공장들을 돌아보고나서 미국의 〈제재〉를 받으며 간고분투하는 조국을 이제부터 힘자라는 것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음, 그렇다면 좋소. 자식의 재산을 값아내여 살펴보자는 부모는 없소. 부모자식간에는 리운이 아니라 오직 사랑만이 있을뿐이요. 그런데 이것 보오, 정부장. 그 사람을 그대로 돌려보내서는 안되겠소. 고민이 크다지?》

《예, 저희들도 그것때문에 많이 애를 쓰느라고 했습니다. 어제날을 돌아보지 말고 앞을 내다보며 살자고 여러 말로 위로하였지만 그게 잘 먹어들지 않습니다. 죄많은 인생이라고 자기를 타매하면서 자꾸 울기만 하니 안내일군들도 속상해합니다.》

《조국에 왔다가 울면서 돌아가게 해서야 안되지. 내 자료를 보니 여기저기 참관하면서 속죄를 남기곤 하는데 그 해묵은 마음의 빚을 조국의 맑은 산수와 고향의 후한 인정으로 다 씻어주어서 보내주어야 하오. 뭐 묘책이 없을가?... 음... 동무들이 이제 손털고 나았으니 이제는 내가 말아줘야 할가보오.》

《그럼 수령님께서...》

《그렇소. 그러니 래일 나한테로 그 사람을 데리고 오오. 나도 그 사람의 속을 풀어줄 그 무슨 비방이 생겨서 만나자는건 아니요. 그저 만나고싶구만. 그 사람이 한을 물어가지고 되돌아간다니 나도 속이 좋지 않소. 정부장... 전쟁후에 말이요, 유럽에서 나를 만나던 일이 생각나오?》

《예... 수령님, 생각납니다.》

정용진의 목소리에 대뜸 물기가 어렸다.
정용진이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목메인 어조로 말을 이었다.

《수령님! 어찌 저희들이 그때 일을 잊을수 있겠습니까!》

《음... 잊을수 없겠지... 나도 종종 생각하곤 하오. 그때 동무네는 조국을 떠나 고작해야 5, 6년이 되었지. 그런데... 최금호는 해방직후부터 지금까지 50년이란 말이요. 반세기... 인생의 절반도 넘는 세월이지. 그 기나긴 세월에 망향의 설움을 깨물다가 찾아온 조국이란 말이요. 거처는 못 보네. 그래서 안돼... 그러니 말이요, 최금호에게 전해주오. 내가 꼭 만나고싶어한다고, 내가 매일 점심 시간에 기다리겠다고... 비행기에약도 취소시키도록 해보오.》

《알았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마음을 돌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출생년도가 임자년이다구만. 나도 임자년생이니 우린 동갑내기인셈이요. 정으로 사는 게 사람이야. 인간세상은 인정의 세계란 말이지. 동갑끼리 마주앉아 회포를 푸느라면 뭐 그 사람의 짝 잡긴 마음의 대문도 열리지 않을까?... 좋소, 그렇게 해주오. 시간은 이미 매일 오전일정이 빠듯이 맞물려있으니 내 시간은 점심시간밖에 없소. 그러니 그 시간을 맞추어 오도록 하시오. 그 사람이 뭘 좋아한다고 했더라?》

《가만히 여겨보니 고향이 복변의 동해가마율이 되어 그런지 명태순대를 제일 맛나게 들었습니다. 50년만에 맛보는 고향특식이라고 여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평양내기인 머느리가 함경도특산물식당에 가서 배워가지고 명태대가리순대까지 여러번 해갔는데 매번 맛갈스럽게 들더라구 합니다.》

《허허, 명태순대라, 그거 야단이군. 우리 요리사는 평안도리리에 능통한 사람이라 명태순대에 복변동해가의 맛을 내겠는지 걱정이군. 하여튼 좋소. 명태순대도 사람이 만들어내는것인즉 우리 요리박사에게 주문하면 해낼거요.》

《그렇지만 최선생은 다른 음식도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는 타고난 대식가가 돼서 식성이 좋다고 자랑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허허, 식성이 좋다 자랑한다구... 그건 자랑할 만 한 좋은 성미요. 왜냐면 식성이 좋은 사람은 말이요, 대체로 성격도 좋은 법이거든. 자, 이제 잠자리에 들어보지요. 이런, 벌써 새들이 깨어나 우짖기 시작하는군... 고맙소, 잘 자오.》

수령님께서는 전화가 끝난 다음에도 최금호의 백발의 모습을 그려보며 깊은 상념에 잠겨계시었다.

5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나 어린 재간둥이들이 그린 그림들과 서예작품을 보아주신 수령님께서는 점심무렵이 되어서야 오전일정을 마치시고 집무실로 돌아오시었다.

그이께서는 시험포전앞을 지나시다가 차에서 내리시었다.

어제 한밤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소낙비에 콩포기들이 상하지 않았는지 녀름되시었던것이다.

새 품종의 콩대와 가지들이 그 정도의 비바람에 얼마만큼 견디어낼수 있는가 하는것도 확인하고싶으시었다.

벌써 시험포전은 알뜰히 손질이 되어있었다.

홍근풍이 앞질러 손기빠르게 해놓은것이다.

별에 까맣게 탄 홍근풍이 소낙비가 무너뜨린 배수로의 감탕을 파울리느라고 땀에 미역을 감고있었다.

《쉬엄쉬엄 하오. 어쨌소, 콩포기들이?...》

《수령님, 꺼떡없습니다. 콩꼬투리 하나 떨어진게 없습니다.》

《그래?!... 이제 늦장마만 견디어내면 문제없겠는데.》

수령님께서는 만족하신 어조로 홍근풍의 대답을 들으시며 콩포기를 세세히 살펴보시었다.

그이께서는 홍근풍이 점심시간이 다 되었다며 만류하였으나 그예 호미를 드시고 비에 흘러내린 이랑들에 고랑의 흙을 긁어올려 복을 돌구시고 늘어진 일새들에 제발린 감탕을 털어주시었다.

정용진부장이 나타난것은 이무렵이였다.

《수령님, 최금호선생이 왔습니다.》

《최금호선생이?... 그러면 대기실에 모실거지. ...》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미안쩍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부관이 드리는 수건으로 손을 닦으시며 청사정문앞에 들어서시는 승용차쪽으로 고개를 돌리시었다.

그런데 승용차문이 열리더니 예닐곱살이 됴족한 어린 소년, 소녀가 《대원수님!》 하고 꺾꼬리처럼 댕댕한 소리로 부르며 수령님께로 달음박질하여왔다.

《하, 저 애들이… 승용차안에서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정용진부장이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설 명하였다.

《최금호선생의 증손자, 증손녀들입니다. 체류기간 저 애들이 늘 선생곁에 붙어다녔습니다. 수령님 뵈오려 간다니 하두 졸라서 제가 데리고 왔 습니다.》

《그거 잘했소. 어, 애들아, 넘어질라… 천천히, 천천히. 넘어지면 무릎을 상하니라.…》

수령님께서는 달려오는 아이들을 향해 두팔을 벌 리시었다.

그 애들은 달려오던 기세 그대로 수령님품에 담 쑥 안긴다. 애들은 너무 좋아 눈망울을 반짝거리며 인사를 드리었다.

《대원수님, 안녕하십니까?》

《그래, 그래…》

수령님께서는 두 아이를 한품에 꼭 끌어안으시고 아이들의 통실통실한 볼을 다독겨주시었다.

《애들아, 먼 나라에서 오신 로할아버지를 만나 니 좋니?》

수령님의 물음속에 아이들은 유리알같이 맑고 청 청한 소리로 대답을 하였다.

《예!》

《좋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애들에게 넋지시 물으시었다.

《어째서 좋으냐?》

《저-》

사내애가 인차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듯 입을 열 다말고 귀볼을 살살 긁는데 소녀애가 당돌하게 대 답하였다.

《우리 할아버지니깐 좋습니다.》

《허허, 우리 할아버지니깐 좋다구?… 그래그래, 네 대답이 만냥짜리다. 할아버지니깐 좋지, 아무 럼, 피줄이란 그런거다.… 만가지 이유를 다 제 쳐놓고 그 하나면 좋다는 이유가 되고말구. 허 허…》

수령님께서는 즐거운 어조로 소녀의 대답을 긍정 해주시면서 승용차에서 내려 긴장한 모습으로 굳어 져있는 최금호에게로 눈길을 옮기시었다.

그이의 정찬 시선을 받은 최금호가 긴장을 풀고 허둥지둥 수령님께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수령님께서는 아이들을 품에서 내려놓으시고 최 금호를 맞으시었다.

둥글둥글한 얼굴에서 수북하게 자란 은빛의 장미

가 백발의 머리에 어울려 인상적이었다.

《아, 최금호선생, 기다렸습니다.》

《주석님! 일찌기 조국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 최 많은 인간이 세상천지를 돌고돌다가 근 50년만에야 비로소 주석님께 문안을 드립니다.》

최금호는 벌써 눈앞을 가리는 눈물을 날리며 오 랜 세월 마음속에 포박포박 새겨오고 아껴온 인사 를 올리었다.

《반갑습니다. 선생이 미국이 벌리고있는 〈제 재〉의 포위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국으로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국적인 장거입니다. 환영 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애국자만이 결행할 수 있는 배심있는 의거입니다.》

《주석님, 지나친 과찬입니다. 저라는 소인배에 게는 원체 애국이라는 말이 가당치 않습니다.》

최금호는 너무도 예상치 않았던 수령님의 치하에 몸둘바를 몰라하다가 수령님의 옷깃을 꼭 잡고 그 냥 수령님곁에서 땀도는 애들이 눈에 걸려 한마디 급하게 타일렀다.

《애들아, 주석님께서 힘드시겠다.》

하지만 아이들은 수령님의 품에 안긴 행복을 쉽 사리 내놓고싶지 않은듯 최금호에게 곱게 눈을 빨고는 몸을 흔들며 어리광을 부리다가 오히려 수령님의 옷섶안으로 숨어들어갔다.

《아참, 이 애들이…》

《허허, 놔두시오. 난 애들과 있을 때가 제일 좋 습니다. 이 애들의 친구가 돼서 지내느라하면 젊어지 는것 같습니다. 내 방금전에도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에 가서 우리의 어린 재간둥이들이 내놓은 그림을 봐주고 오던 길입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국제어린이 미술축전에서 우리 아이들이 1등을 했지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 애들 등을 두드려주지 않고서야 호주구실이 되겠습니까.》

수령님께서는 기쁨에 넘치시여 환하게 웃으시 었다.

《자, 별이 뜨구운데 방으로 갑시다.》

수령님께서는 머리에 빨간 방울을 달랑거리는 소 녀애를 안으시고 그보다 주먹 하나는 큰 소년은 손 목을 잡으시고 청사를 향하여 천천히 걸음을 옮기 시었다.

정용진과 최금호도 수령님의 뒤에서 따라섰다.

《그런데 저건…》

최금호는 그이께서 방금전에 호미를 들고계시 던 모습이 의아스러워 정용진부장에게 나직이 물 었다.

《수령님께서 몸소 가꾸어오시는 시험포전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주체농법이 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 농업과학원에 있는 우리 아들이 주석님께서 몸소 농사일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직접 맡아보신다고 하더니… 참, 콩포기들이 소담합니다.》

《예, 유럽쪽에서 들어온 다수확품종인데 수령님께서 몇해째 풍토순화시킬겸 종자의 특성과 재배법을 확인해보고계십니다. 제가 어제 여기 왔다가 저 포전에서 수령님을 뵈었는데 이 콩을 전국에 널리 보급하여 기름문제와 된장, 간장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에게 콩우유를 공급할 구상을 하고계시었습니다. 지금은 콩생산량이 여의치 못하여 지방의 어린이들에게는 콩우유를 주지 못하고있는데 수령님께서 이 문제 때문에 여러차례 가슴아파하시었습니다. 미국이 눌러놓은 〈제재〉 품목에는 콩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금호는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 자그마한 단편적인 사실에 깃들어있는 거창한 의미를 새겨보며 크게 감심되어 고개를 끄덕이었다.

《그런데… 사실인즉 지금계절은 피서계절이라 저쪽사회에서는 산파 바다에 불티가 나지요. 대통령은 물론 회사직원들까지도 더위를 피해 피서지에 물러간답니다. 그런데 주석님께서도 여전히 집무실을 뜨시지 않고 시험포전까지 보살피고계시니 그로고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늘 걱정이지요. 수령님을 충정을 다해 모시자고 술한 말을 하면서도… 자, 빨리 갑시다.》

정용진은 자기들이 사업을 잘 보좌하지 못한 탓으로 오늘 점심의 휴식마저도 또 파하게 했다는 죄책을 금치 못하여왔는데 최금호의 피서소리까지 듣고 보니 더구나 송구스럽기 그지없어 증난 어조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6

넓고 시원스러운 방에 들어서신 수령님께서도 최금호에게 자리를 권하시고는 아이들을 옆자리에 세워주시고 말씀하시었다.

《우리 꼬마손님들에게 뭘 대접해야 좋을가. 그렇지, 부판동무. 이 애들에게 집구경을 시켜주는게 어떻소? 정원구경도 시키고… 거기 왕다래가 첫물을 딸수 있는데 그걸 꼬마들에게 대접하오. 그런데

한시간후면 점심시간인데 너무 많이 먹이지 않도록 하오. 왕다래는 산기가 많은 열매여서 공복에 많이 먹으면 탈도 만날수 있소. 가만… 우린 아직 통성을 못했구나. 누구부터 시작할가.》

수령님께서도 함뿍 미소를 지으시고 물으시었다. 그러자 사내애가 선수를 놓칠세라 나선다.

《옛, 제 이름은 최룡이, 여덟살입니다.》

《최룡이, 똑똑해. 뒤통리가 멋있게 나온게 박사감이군.》

수령님께서도 이렇게 칭찬하시는데 소녀애가 오빠에 뒤질세라 또랑또랑하게 자기 소개를 하였다.

《저는 최룡화입니다. 여섯살입니다. 룽교유치원 높은반입니다.》

코망울이 앵두알같고 눈이 새물거리는게 여간 이쁘지 않다.

《음, 룽화는 참 귀엽게 생겼구나.》

《저는 룽교유치원에서 피아노를 칩니다. 전국 유치원축전에 나가서 2등을 했습니다.》

《2등을. 하하, 룽화가 대단하구나. 훌륭한 음악가가 되겠구나. 다음번에는 꼭 1등을 해라.… 자, 그러면 너희들은 저 아저씨와 같이 구경을 하거라. 그래야 이제 너희 동무들을 만나 얘기해줄 자랑거리가 생길게거든. 그동안 난 너희네 로할아버지와 이야기를 좀 나누겠다.》

《야, 좋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두손을 번쩍 쳐들고 부판에게로 짱충짱충 뛰어갔다.

그런데 부판의 손목을 잡고 문가로 다가가던 소년이 다시 수령님께로 달려왔다.

그리고는 수령님의 귀전에 바투 나팔주둥이처럼 오그린 작은 손에 입을 대고 귀속말로 속삭이였다.

《대원수님, 우리 로할아버지를 욕하지 마십시오. 로할아버진 울보야요. 자꾸 울어요.》

《영?… 로할아버지가 울보라구.… 그런데 내가 왜 로할아버지를 욕한단 말이냐.》

《우리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소년은 자기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수령님께 고해바치다가 무엇이 어린 소견에도 넘려스러웠던지 최금호를 힐끔 돌아본다.

《하하… 원, 그럴리 있나. 걱정을 말거라. 사실 너의 로할아버지는 보통사람이 아니다. 이번에 술한 나쁜 놈들이 길을 막는걸 다 쳐버리고 조선사람의 배짱을 보여주었던. 하여간 내 룽이 부탁을 명심하마, 하하…》

수령님께서는 룡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크게 웃으시었다. 그제야 소년은 마음이 놓이는듯 방긋 웃으며 문가로 뛰어갔다.

정용진도 최금호도 어쩔수없이 몸을 흔들며 웃었다.

최금호는 웃으면서도 벌써 눈언저리가 벌겋해지고 좁쌀알같은 물방울들이 눈귀에 매달려 파들거렸다.

《애들이 참 양기있고 똑똑합니다. 이 큰집에 와서 주석을 만나고도 주접이 들지 않고 저들이 할 소리는 다합니다. 난 저렇게 여무지고 영특한 애들을 볼 때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저런 애들이 자라나 이 나라의 주인이 될 때를 생각해보시오. 조국은 또 얼마나 훌륭해지겠습니까. 미래를 사랑하자— 난 언제나 우리 일꾼들에게 타이릅니다. 땀을 들인만큼 농사가 되고 품을 들인만큼 우리 애들의 몸과 마음이 커집니다.》

《주석님, 그 말씀이 참으로 금언입니다. 저의 어린시절에야 아무리 뒤집어봐도 저 애들같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절이 없었지요. 풍요한 땅에서 알찬 열매가 주렁지듯 좋은 사회, 훌륭한 제도가 없어야 저렇게 아이들이 자랄수 있겠습니까. 제 며칠 동안 저 애들을 데리고다니면서 실은 깨닫는바가 큼니다. 우리 자손들이 저렇게 훌륭하게 자라나도록 조국땅을 가꾸어주신 주석님로고에 고마운 인사를 어떻게 드렸으면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금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깊이 꺾어 인사를 드리었다.

수령님께서는 최금호의 진정에 넘치는 인사에 손을 내저으시었다.

《그게 어찌 주석 한사람의 수고로 이루어진것이겠습니까.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허리띠를 죄여가면서 간고분투한 결과이지요. 내가 한 일이란 그저 길잡이를 했다는 정도입니다.》

수령님의 한없이 겸허하신 말씀에 최금호는 더욱 감동되어 또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저 하는데 그이께서 화제를 돌리시었다.

《기업가에게 있어서 시간은 곧 돈이라 했는데 선생의 걸음을 지체시켜서 미안합니다.》

《주석님, 황송합니다. 나라에 보탬이 없이 한생애에 수많은 얼룩점이 가득한 초라한 인간을 위하여 주석님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시었는데 그저 송구스럽고 고마울뿐입니다.》

《최선생, 그렇다면 좋습니다. 한데 내 우리 정부장동무한테서도 듣고 이자 방금 애들도 나더러

부탁까지 했는데 선생이 평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자꾸 자신을 학대합니까. 나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에 제 고향땅이 걱정스러워 나쁜 놈들의 갖은 도발을 다 이겨내고 조국을 찾은 그 하나만 가지고도 선생의 애국적량심과 조선사람다운 호호탕탕한 기상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지 마시오. 선생의 걸음이 비록 때늦기는 했어도 온 나라가 생사존망을 건 조국수호, 민족수호전에 펼쳐나선 시기에 찾아온것으로 하여 선생에 대한 좋은 감정도 가지게 하였습니다.》

《주석님말씀에 정말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죄를 지은게 많습니다.》

《하, 최선생이 자꾸만 죄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기에 웬일인가 했더니 그 말이 실말이였군요. 정 그렇다면 어디 들어봅시다. 아마 그래야 최선생이 내앞에서 속풀이를 시원스럽게 할것 같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자기의 옥땀한 설문을 털어놓고싶어하는 최금호의 절절한 심중이 짙이워 통조로 패히 승낙을 하시었다.

너그러운 미소를 만면에 담으시고 자기를 고무해주시는 수령님을 우러러 최금호는 드디어 수십년 세월 서리고 맺히고 활활 타버리고 재가 되고 다시 순간순간마다 잉결불이 되어 온몸을 지지리도 괴롭혀온 만단사연을 터쳐놓자니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리우고 목이 짹 잠겨들었다.

최금호는 목구멍을 툇워놓으려고 건기침을 두세번 하였다.

《제 인생의 첫번째 죄목은...》

최금호는 드디어 두툼한 입술을 무겁게 열었다. 아득한 세월의 저끝에서 시작된 인간의 고난에 찬 행보가 엮여져갔다.

그것은 눈물의 시내였다. 고행의 난바다였다.

굴욕과 설움을 씹으며 헤매여온 집안은 나그네의 한숨과 치욕과 구슬픔이 서리서리 엉켜있는 불우한 운명의 서사시였다.

최금호는 아직은 그 누구에게도 비쳐보인적 없었던 평생의 리면사까지 다 털어내어 어버이앞에서처럼 낱낱이 아뢰었다.

약자의 하소에 그 누구도 악어의 눈물만 한 동정도 보이지 않는 그 사회에서 허세와 처세가 없이는 자신을 지켜낼수 없어 속깊이 고여놓고 밝아오는 피창을 괴롭게 노려보던 그 술한 밤과 밤들에 잠자리에 쏟아놓던 소리없는 곡성이 그의 입에서 쏟아붓는 물처럼 거침없이 흘러나왔다.

눈물겨운 인간수난사에 당자도 흐느끼고 정용진

도 울었다.

수령님께서도 자주 눈언저리에 손수건을 올리시었다.

《네번째로 제가 지은 죄는 이 땅우에 전쟁이라는 큰 란리가 벌어지고 재더미만 남은 땅우에 복구 건설의 힘겨운 진군이 벌어졌을 때도 이놈은 조국을 등진채 돈벌이에만 눈이 벌개 돌아간것입니다. 량심은커녕 조선사람의 혼까지도 돈주머니에 저당 잡히고 모국파는 담을 쌓고 살아왔으니 저야말로 인간패륜아였습니다.》

최금호는 숨을 돌리려는데 잠시 말을 그치고 손수건으로 목덜미에 즐벅하게 내뺀 땀을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수령님께서도 해점도록 끝없이 이어져갈 한 인간의 피눈물에 젖은 수난사를 주의깊이 들어주시다가 조용히 그를 위로하시었다.

《왜 자주 죄라구 이름을 달아 내놓습니까? 지금까지 최선생이 털어놓은 죄라면 거 뭐 구태여 죄라고 할만 한게 못됩니다. 그건 죄가 아니라 나라분렬의 파도에 휘감겨든 수난이 틀림없습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더구나 그 죄라는것도 지나간 옛말입니다. 나도 결방살이의 설움을 너무도 가슴에 사무치게 절감하였던 체험이 있습니다. 내 옛말 하나 해볼가요. 50년대에 소련과 동유럽나라들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동유럽의 어느 나라에 갔다가 그곳에 보냈던 우리의 전제고아들이 걱정되어 찾아갔지요. 그런데 글썽 그 애들이 내 목을 꼭 끌어안고 어디 놔줍니까.》

〈원수님, 우리들을 데리고 가주십시오.〉

하, 이거 야단이 아닙니까. 당장 날 따라서겠다는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애들더러 〈애들아, 조금만 참아라. 내 몇해후에는 꼭 데려가겠다. 지금 조국은 복구건설을 하느라고 힘들게 지낸다. 거기 가면 고작해아 쫌쌀밥이나 피죽인데 그것마저 배뼉게 먹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배가 불러 지내지 않느냐.〉 하고 달래었습니다.

그러자 그 애들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배를 뽕아도 좋습니다. 피죽을 먹어도 좋습니다.〉 이러며 그냥 따라오겠다고 품을 파고드는겁니다. 난 그때 그 애들을 와락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단단히 다짐을 했습니다.

〈내 다시는 우리 인민들을, 우리 후손들을 결집살이를 시키지 않을테다. 이제 나라를 합쳐놓고 산지사방 흩어져간 우리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고향을 곁어도 함께 겪고 행복을 누려도 함께 누려

가자.〉

그때 아이들이 지금 나라의 간부가 돼서 이따금 만나기도 하는데 그 시절 이야기를 자주 외우며 지금도 아이적 마음이 되어 내 팔을 부여잡고 엉엉 울곤 합니다.》

수령님께서도 손수건을 꺼내시어 축축히 젖어오는 눈가늑으로 올리시었다.

그런데 최금호의 옆에 앉아있던 정용진이 간간이 흐느껴울기 시작하더니 미구하여 소리까지 내며 어깨를 떨었다.

정용진은 울먹거리며 수령님을 우러러 고개를 들었다.

《수령님! 정말 못 견디게 조국의 모든것이 그리웠습니다.》

정용진이 이렇게 말하며 다시 눈물을 펄펄 쏟는데 수령님께서도 최금호에게 말씀하시었다.

《최선생, 저 부장동무로 말하면 그때 내 품에 안겨 몸을 떨던 그 아이들중 한 소년이었습니다.》

《예?!》

최금호도 더는 숫구쳐오르는 눈물을 누를수가 없어 연신 코를 훌쩍거리다가 정용진에 대한 말씀까지 듣자 그만에야 두볼을 눈물로 적시었다.

7

《이역땅에 가서 10년도 살지 않았던 저 부장네가 그러하였거늘 반세기나 살길을 찾아 이역만리를 헤맨 최금호선생이야 여복하겠습니까. 난 이역땅에서 찾아온 동포들을 자주 만나곤 하는데 그들이 내 가슴에 안겨 울 때마다 한쪽의 그림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 그림을 네네를란드사람이 그렸다고 했는데 제목이 아마 〈불효자식 돌아오다〉로 되었던것 같습니다. 집을 뛰쳐나갔던 자식이 세상을 돌아가다가 거지꼴이 되어 집에 돌아왔지요. 한테 그를 맞아주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그동안에 쌓였던 노여움이나 질책기는 없고 그저 기다려온 자식을 드디어 품에 안은 애정과 행복감만이 어려있었습니다. 무엇때문이였겠습니까. 아까 통화가 로 할아버지가 온것이 왜 좋으냐고 물으니 우리 할아버지니깐 좋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철없는 대답같지만 어린 동심에 비긴 심정이 솔직하고도 명백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심오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니깐 좋다는것은 바로 그 무슨 다른 설명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혈친의 사랑을 명료하게 표현한 대답입니다. 아마 그 명화를

그린 화가는 자기의 그림을 통하여 이것을 주장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석님!》

드디어 최금호는 속에서 끓고있는 뜨거운 걱정을 더는 주체할수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흰 장미를 푸드득 떨며 목이 갈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퍄퍄히 닦아내고는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주석님, 고맙습니다. ... 주석님께서서는 지금 저의 평생의 아픔을 너무도 속속들이 헤아리시고 쓰다듬어주십니다.

제 스무해가까이 허기진 구복을 채워보려고 동냥살이하다가 서른해전부터는 돈주머니가 늘어나기 시작하니 양놈들의 거들거리는 코대를 돈으로 째 눌러버릴 승벽내기로 미친 놈처럼 뛰어다녔습니다.

황혼을 맞고보니 그저 자나깨나 조국이 못 건디게 그림기만 하였습니다. 까마귀도 제 고장 까마귀라면 반갑다는 말이 가슴을 저리게 하였지요. 하지만 무슨 체면에 선뜻 걸음을 옮기겠습니까. 저의 집에 가면 바로 주석님께서 방금 회고하신 그 그림이 벽에 걸려있습니다. 깨어나면 그 그림이 맨먼저 저를 지켜봅니다. 제 이번에 조국으로 올 때도 그 그림앞에서 여러 시간 앉아있었습니다. 오랜 방랑끝에 다행으로 거지꼴은 면했다 해도 마음은 숭숭 뚫리고 너털거리는 정신의 람루를 걸친 이 늙은 방랑객을 저렇듯 자애로운 품에 받아줄 거룩한 아버지가 있을가. ... 저는 지금껏 종교는 믿지 않지만 그림속의 로인은 이승에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세상만물을 사랑으로 안아준다는 하느님일거라고 생각하여왔습니다. 그런 하느님이 정말 내게도 나타날수 있을가. ...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팽이를 벗삼아 수천수만리길을 헤쳐오면서도 저의 가슴은 그냥 편안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진짜하느님을 만났습니다.

주석님께서서는 제가 꿈결에도 바랄수 없었던 도량으로 죄많은 인생에 사랑의 향연을 베풀어주십니다.》

《하 최금호선생, 또 죄많은 인생이라 합니다. 차라리 죄라고 이름을 붙이지 말고 실책이라고 해둡시다. 내게는 뭐 오늘에 이르도록 후회라는게 없었는줄 압니까. 그래 다시는 후회를 남기지 말자고 자신을 가다듬는것입니다.》

《주석님, 제가 알고있는 주석님의 평생은 해방전에도 해방후에도 백승을 수놓아오신 백전로장의

영광스러운 무훈사입니다.》

최금호는 가슴 한복판에서 우러져나오는 진정을 고여 큰소리로 말씀을 드리었다.

그의 이야기에 수령님께서는 손을 쳐드시어 내 두르시었다.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도 이따금 평생일을 돌아보느라 아픔도 많고 눈물도 많고 후회도 많습니다.》

그이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시었다가 만면에 추연한 빛을 담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는것이였다.

그러시고는 방안을 거니시다가 창밖의 하늘 멀리에로 시선을 보내시기도 하시었다.

이윽도록 방안에는 그이의 발자국소리만이 그 무슨 숭엄한 추억을 불러내며 조용히 들리었다.

잊지 못할 혁명의 년대들, 뼈저린 고뇌와 슬픔이 빼곡이 이어져온 준엄한 세기가 그이의 심중을 저저이 괴롭히며 흘러가고있었다.

평생을 다하시어 조국사에 아로새긴 불멸의 무훈 이런만 그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은 얼마나 엄혹하였으며 그 간고무쌍한 길에 휘뿌려온 눈물과 슬픔은 그 얼마랴.

문득 그이의 추억속에 눈보라이는 백두의 설령이 멀어져가고 스무해만에 찾으신 만경대의 초가삼간 사립문이 다가서는것이였다.

버선발로 허둥지둥 달려오던 할머니.

어이하여 너 혼자 오느냐, 부모들과 같이 오면 못쓴다더냐 하시며 너무 애통하여 오열을 터치던 할머니의 가냘픈 어깨에 얼굴을 묻을 때 정녕 무엇을 생각하였던가.

내 정말 효도와 정을 더 각근히 기울였다면 이역땅에서 너무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과 삼촌과 동생이며 사랑하는 전우들을 다 앞세우고 이 사립문에 들어설수 있지 않았을가. ...

그이께서는 지금도 그날의 쓰라린 회한을 되짚어 보시며 비감을 금할수 없으시었다.

어찌 그뿐이라. ...

파도치듯 이어지는 쓰라린 사연들에 휘말려드시던 수령님께서는 이윽고 최금호에게로 다가오시었다.

그이께서는 잠시 최금호를 의미심장한 눈길로 굽어보시다가 말씀을 이으시었다.

《최금호선생, 이제 우리는 황혼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지나간 일을 두고 한숨이나 쉬고 눈물이나 흘리기에는 시간이 아깝지요. 인생에서 과거란 추억이나 감상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디딤

돌입니다.

옛 문인들이 이르기를 청춘기에는 종달새와 같은 아침노래를 가져야 하고 로년기에는 피플새와 같은 저녁노래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낭만적이지요. 하지만 그래도 인생을 가꾸어가는데는 쓸모가 있는 명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용기를 내시오. 인생의 노을을 아름답게 물들어갑시다. 조국을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시름겹던 것이 다 풀릴것입니다.》

수령님의 진정에 겨운 곡진한 타이름에 최금호의 가슴은 마냥 뜨겁게 부풀어올랐다.

마음속을 어지럽히며 뒤채이던 동요와 허겁지레 한 티점불들이 창줄간에 사라지고 마음속이 한없이 깨끗이 정화되어가는듯싶었다.

그러나 받아안은 충격이 크고 젖어드는 따스한 정에 가슴이 후두위질수록 인생의 허물을 한점 남김없이 말끔히 털어내놓고싶은 절박한 심정은 곱으로 커졌다.

끝내 최금호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서고야말았다.

《주석님! 주석님께서 하해같은 은정을 베풀어 주시니 꼭 이 자리에서 주석님께 이실직고해야 할 큰 죄가 있어 이렇게 또 감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 또 죄입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최선생의 날이니 다 들어봅시다. 저 부장동무더러 판사가 돼서 어디 형량을 매겨보라 합시다, 허허...》

수령님께서서는 커다란 감동에 별절게 타오른 최금호의 얼굴을 굽어보시었다. 그의 애바른 심경을 너누룩이 해주고싶으시여 그냥 이어지는 《이실직고》를 쾌히 받아주시며 껄껄 웃으시었다.

8

나들문이 빠르게 열리더니 부판이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섰다.

《아이들은 어데 있소?》

《대기실에서 그림구경을 하고있습니다. 점심상이 준비되었습니다.》

《허, 벌써... 어쩐다?... 가만, 아이들은 배고프겠으니 우리를 기다릴게 없이 먼저 먹이도록 하오. 우린 좀 천천히 가겠소. 미안하오. 아직은 최선생과 회포를 다 풀지 못했거던. 상봉주 한잔 들자고 찾았는데 술맛이 달자면 숙부터 후련해야 한

단 말이요.》

《수령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판이 우스개소리로 하시는 수령님의 말씀에 물러나려고 하는데 최금호가 바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석님, 미거한 저때문에 점심시간까지 다 미루시다니, 안될 말씀입니다.》

《아, 원, 미안할게 없습니다. 강동무, 그렇게 하자구.》

《알았습니다.》

부판이 물러가자 수령님께서서는 최금호에게로 돌아서시었다.

《최금호선생, 사무실이 답답하지요? 속도 답답하구요? 정원에 나가서 숲의 싱그러운 공기를 마시며 마저 기분전환을 마무리짓는게 어떻습니까. 나도 이따금 그 무슨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때는 숲속을 걸어봅니다. 그러면 숲의 청청한 기운에 오리무중이 되던 머리가 거뻐해지고 좋은 묘안이 떠오르곤 합니다. 나와 함께 숲속에 나가 속마음의 마지막앙금까지 다 씻어봅시다.》

하시며 수령님께서서는 먼저 집무실을 나서시여 나무가 울창한 후원의 숲길에 들어서시었다.

삼송과 잣나무, 이깔과 수삼나무가 짝 들어찬 수림이었다.

별이라곤 한점도 들지 않는 그속에 들어서니 피약별이 내려찍이는 말복더위같은것은 아랑곳할바 없다.

서늘한 뎡기까지 느껴졌다.

숲속에서 목청껏 울어예던 매미들이 대자연의 주인을 알아봤는지 갑자기 울음을 툇 그친다.

그러자 귀가 멍멍하도록 소란스럽던 숲속에 갑자기 적막이 깃들고 나무잎새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듯싶다.

불쑥 나무우에서 무엇인가 툇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떨어진것은 주먹보다 큰 잣송이다. 쳐다보니 한마리의 앙증스러운 재빛청서가 잣송이를 떨구어놓고는 무엄한짓에 용서를 빌듯 새까만 눈알을 툇록 툇록 굴리며 불안스럽게 아래를 내려다본다.

《허, 우리 숲의 장난꾸러기이군. 저놈은 장난도 세차지만 욕심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아마도 지금 제가 떨구어놓은 잣송이를 우리가 슬쩍할가봐 걱정스러운 모양입니다. 자, 빨리 자리를 피해줍시다.》

수령님께서서는 청서를 향해 정겨운 미소를 남기시

고 걸음을 빨리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무성한 숲길을 걸으시다가 자그마한 정각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시었다.

《여기가 어떻습니까?》

수령님께서 최금호를 돌아보시었다.

최금호는 그저 고마움이 서린 눈길에 《주석님께서 좋으시다면 저는 아무런 의견도 없습니다.》라는 의미를 담은 행복의 미소를 담을뿐이었다.

수령님께서 정각에 들어서시여 참대로 엮은 걸상에 다가가앉으시며 최금호에게도 맞은편 자리를 권하시었다.

최금호가 자리에 무심히 앉았다가 어쩐지 흔들이 걸상생김새를 따라 자기의 몸자세가 뒤로 제껴지는 것이 송구스러워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령님께서 어느새 그의 불편한 심기를 헤아리시고 《편히 앉으시오, 앉아서 이야기하라는데.》 하시며 손짓을 하시었다.

그러나 최금호는 그냥 선자리에서 아까 방안에서 꺼내놓았던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하였다.

《주석님, 다름이 아니라 지난 50년간 돈날가리를 쌓아놓고는 제가 태를 묻고 제 혈붙이들이 눈이 시퍼래 사는 고향땅에는 한푼 전하지 않으면서 남조선에는 큰 기업을 꾸려놓은것입니다. 그런즉 제가 어찌 고양이상판이라고 주석님 뵈올 면목이 있겠습니까. 저라는 소인은 이런 부실한 놈입니다. 실은 그래서 더구나 제가 평생토록 흠모하여마지 않던 주석님을 만나뵈올 영광까지 미루고 조국을 떠나고저 했습니다. 돌아가서 우선 남에다가 투명한 돈을 거두어들이고 다소나마 도리를 지킨 후에 주석님을 뵈고저 했던것입니다.》

《음... 그랬구만요... 그것때문에...》

수령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정용진에게로 눈길을 보내시었다.

정용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차 솔직하게 말씀드리었다.

《수령님, 저희들이 최금호선생의 그런 속깊은 마음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용진이 이렇게 자신을 심심히 뉘우치자 최금호가 급해맞아 그의 말을 받았다.

《주석님,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일을 치르기 전에 말부터 앞서는 실속없는 허풍쟁이가 될가봐 말을 굳이 꺼내지 않은겁니다. 헌데 주석님께서 너무도 저의 속깊이까지 헤아려주시여 이렇게 입바른 말을 저도 어쩔새없이 입에 담아보는겁니다.》

《음— 그러니 남조선에 세운 기업을 거두어들인

다는거겠습니까?》

최금호는 수령님의 사려깊은 물으심에 저도 모르게 주먹을 흔들며 더는 드릴수 없는 반석같은 무게를 담아 대답을 드리었다.

《주석님, 이젠 제가 어제 오늘에 생각해낸게 아닙니다. 이번 방문길에 그 결심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생각이 더 굳어졌습니다. 내 조국에 오니 민족의 일이 쟁쟁합니다. 저의 돈은 이 민족의 일을 지켜내는데 마땅히 바쳐져야 합니다. 하지만 저 남쪽의 통치자들은 서방사람들과 짝자궁이를 하면서 공화국 <제재>에 앞장서서 날뛵니다. 민족의 일을 팔아먹는 그 혐오스러운 놈들에게는 돈이 아니라 징벌의 철추를 던져주어야 합니다. 늦더라도 이 큰 죄는 반드시 씻어야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최금호는 저도 다잡을 길없이 말꼬리가 높아져갔다. 어쩔새없이 두주먹이 불끈 틀어잡혔다.

《음, 최선생의 결심이 여간 아니구만.》

수령님께서 이렇게 나직하게 응수하시며 걸상에서 일어나 정각을 거닐기 시작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숙연한 눈길로 최금호를 잠시 지켜보시다가 길게 숨을 내그으시었다.

그리고는 명백한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최금호선생, 난 방금 최선생이 내놓은 문제들에 대하여 지지할수 없습니다.》

《예?...》

최금호의 낮빛이 줄지에 킁킁해졌다.

그는 성급하게 자기의 흥분을 드러내놓았다.

《그러면?... 주석님께서 저의 속죄를...》

최금호의 목소리는 나직하였으나 절망에 잠겨 떨고있었다.

깊은 회오와 자책끝에 그리고 공화국체류과정에 받아안은 벅찬 감동으로부터 시작된 자기로서는 일생일대의 대용단이 주석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다니.

그것은 최금호의 일생에서 가장 비상하고 파격적인 선택이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뜻깊은 용단이였다.

최금호는 그것으로 조상들앞에서 속죄의 아픔을 다소나마 덜수 있을것이라고 저으기 흐뭇하게까지 속구구하여왔다.

그런데 주석님으로부터 불만을 사게 되다니.

내 조국과 내 고향에 고이고저 하는 성의를 그이께서 마다하신다면, 내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건 운명적인 결단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내 한생 찾아헤맨 삶의 빛을 어데서 찾아낼것이나.

최금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오르는 가슴미여지는 호곡을 짓씹으며 조심스럽게 눈길을 들다가 수령님의 근엄한 눈길과 마주치자 모든것을 체념해버린듯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자 저 멀리 추억의 먼 기슭으로부터 어지러운 매연이 그물그물 뿜돌면서 그의 눈앞을 가리웠다.

9

...

전쟁관같은 리윤짜내기투전판에 뛰어들어 마침내 성공의 탑을 쌓아올릴무렵부터 기업가 최금호에게는 새로운 고뇌와 위협이 끈질기게 뒤따르며 괴롭혔다.

그에게로 서울이 추파를 던지며 접근하여왔던 것이다.

초청장이 날아들고 주재국에 와있는 서울대사관 사람들이 뻔질나게 아침기어린 웃음을 빼물고 찾아왔다.

남조선에 있는 처가전의 사람들까지 찾아와서는 울며불며 그의 소매자락을 물고 늘어졌다.

수십년 고국에 등을 지고있던 최금호의 억척보두갈던 심장이 그들의 눈물과 애절에 마침내 엇가락처럼 휘어들고야말았다.

이렇게 되어 남조선에 최금호의 공장이 세워졌다.

그후로 최금호는 더는 서울에 가지 않았다.

다만 자기의 돈이 정치가들의 뒤주머니에 흘러들어 그놈들의 치부에 도용되지 않도록 자기의 대표를 상주시켜 감독하게만 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최금호에게 새로운 정신적부담거리를 만들어내고 고향으로 가는 길을 멀어지게 할 줄은 그때로서는 상상할수 없었다.

일후에 서울쪽에서 감사장을 보내온다, 명절례물을 보내온다 야단법석들이었던것이다.

게다가 서울의 언론들이 그의 기업을 대서특필로 소개하군 하였다.

《이 최금호 돈으로 냇을 팔아먹었구나. 이 일을 어찌하노...》

이번에 최금호가 신미리에국렬사릉에서 옛지기의 모습을 보며 크게 오열을 터친것도 바로 그 훌륭한 인간을 비명횡사시킨 서울 권력자들과 술잔을 쥘으며 종당에는 돈까지 섬겨바친 자신의 불민한 과거에 대한 환멸이었고 의분이였다.

(마땅한 별이지... 난 그것만 가지고도 백번천번

별을 받아야 할 죄인이다.)

최금호는 이제 주석님께서 내리시는 초달이라면 그 어떤것이라도 달게 받아들이리라 마음다지며 숨을 크게 내쉬고 하회를 기다렸다.

정용진도 최금호가 꺼내놓은 이야기와 수령님의 무거운 안색을 조심히 살피면서 그 어떤 야릇한 불안에 갈마들었다.

기실 최금호의 조국방문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의 책상우에는 최금호의 《공적》을 야단스럽게 소개한 남조선출판물들이 한아름 쌓여있었다.

일부 일군들은 그 일을 거들면서 고개를 기우뚱거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용진은 조국에 속죄의 대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과거를 묻지 말고 대단결하는것이 수령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이다, 대문을 열어주자고 일부 일군들의 편협한 소심성을 일축하였던것이다.

하지만 막상 수령님앞에서 최금호가 그 사실을 두고 자신을 뺄엄하게 타매하고 그의 이야기를 접한 수령님의 안색이 무거워짐을 육감으로 느끼자 어쩐지 자기도 덩달아 속이 팽배해지고 긴장해졌다.

수령님의 불만은 무엇일가. 이제 어떤 대답을 주실가. 무한히 넓고 무한히 깊은 웅심의 세계를 안으시고 만사를 사랑과 아량으로 받아들이시는 세상에 다시 없을 인정의 화신이지만 혁명의 원칙앞에서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는분이다.

정용진은 자신이 그 무슨 커다란 실책을 범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불안과 우려가 가슴을 죄이기 시작하였다.

수령님께서 최금호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최금호의 앞에서 한동안 자책에 잠겨든 그의 모습을 찬찬히 보시다가 담담한 어조로 물으시였다.

《최선생, 하나 물읍시다. 우리를 위하여 남쪽에서 기업을 철수시키면 그쪽은 어찌 됩니까?...

남조선이 지금 세계적인 대금융위기에 말려들어 신고를 겪는 판에 선생까지 자기의 기업을 철수시키면 가뜩이나 거품경제라고 비난받는 그쪽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쪽사정이 말입니까?... 저... 저는 그에 대하여 책임질 아무런 법적의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투자가의 권리문제이며 기업윤리에도 저촉되지 않습니다. 저는 남쪽일에 더는 상관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세상에 바깥도적

늑과 짝이 되어 제 식솔의 가마까지 뿔아내자고 덤비는 인간추물들이 어데 있겠습니까!》

최금호는 수령님께서 불만을 느끼는 이유가 나름으로 짚이우자 다행스러운듯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러나 결패있게 주장을 폈다.

수령님의 입가에 빙그레 미소가 감돌아오르시었다.

상대방의 진가를 면바로 포착하신틀었었던것이다.

고령임에도 쇠로 부어낸듯 다부지고 단단한 몸매, 석고를 깎아만든듯싶은 턱, 그런가 하면 고집스럽게 솟아오른 코마루. 지금의 최금호의 모습에는 동정을 자아내던 방랑객의 처량한 눈물이라고는 티끌만도 찾아낼수 없다. 옳다고 인정된다면, 정의라고 믿는다면 머리가 스무조각 나도 망설임이 없이 결연히 자리를 차고 돌진하는 억셈이 퍼덕거린다.

《상관하지 않겠지구요?... 음...》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거두시고 또다시 정각을 천천히 거니시다가 무겁게 고개를 저으시었다.

《상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남조선경제를 지켜주어야지 해되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최선생이 기업을 철수시키면 또 그만큼 실업자가 늘어나 거리를 헤맬겁니다. 그런즉 최금호선생! 상관해야 합니다!》

수령님께서는 간곡한 어조로 재삼 마디마디에 력점을 찍으시며 타이르시었다.

《난 진심으로 최선생이 결심을 달리하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내가 불만스러운것은 선생이 죄라고 한 그 투자와 관련한 립장과 평가입니다.》

《예? 저의 립장 말입니까?》

최금호는 갑자기 어리둥절해져서 큰소리로 반문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선생이 세운 기업이 남조선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그것은 좋은 일이지 절대로 죄로 타매될수 없다는것입니다. 선생의 덕을 남조선사람들이 보고있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따라서 그걸 죄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벌써 민족적인 립장, 조국애라는 우리가 의거해야 할 근본정신에서 뒤걸음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주석님께서는?...》

최금호는 아직도 수령님의 말씀과 그이의 만면에 넘치는 미소의 참의미가 선뜻 짚이우지 않아 그저 놀랍고 황홀한 기색으로 그이를 우러를뿐이였다.

무엇인가 이 수림처럼 거창하고 청청하고 바다와 같이 심원한 진리와 교결한 뜻이 우뢰와 같은 거

대한 진폭으로 심금을 흔들고있었으나 그것은 언뜻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번개처럼 명료하게 그려내기 어려웠다.

수령님께서는 문득 《나와 함께 전망대에 올라가볼가요.》하시며 먼저 라선형으로 돌아간 계단을 천천히 오르시었다.

정용진이 수령님을 부축하여드리었다.

최금호도 수령님을 따라 계단을 올랐다.

전망대에 오르니 갑자기 시계가 확 트이여 속도 시원하게 열리는것 같았다.

사위를 둘러보니 무성한 수림이 발밑으로 펼쳐졌다.

멀리로 평양을 병풍처럼 둘러싼 산발들이 뿌옇게 안겨들었다.

수령님께서는 란간을 잡으시고 동서남북을 둘러보시다가 북쪽으로 가까이 마주서있는 주작봉에 눈길을 박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잠시후 최금호를 부르시었다.

《여기 내곁으로 오시오.》

최금호가 얼른 수령님곁에 가서 정중하게 자세를 바로잡았다.

무엇인가 그이의 가슴속에서 사품치는 뜨거운것이 최금호에게도 흘러들어 인간송고함의 상상봉에로 말없이 떠밀어주는듯싶었다.

《최선생, 저기에 나의 전우들이 모여있소.》

수령님께서는 손을 내뻗쳐 주작봉을 가리키시며 다소 비감에 젖어 말씀하시었다.

최금호는 수령님의 뜻밖의 말씀에 벌써 명치가 쪼그려 저러들었다.

《예! 저도 옛것저게 갓뻤습니다!》

《김책동무, 강건동무, 김정숙동무... 하나같이 견결하고 마음씨고운 사람들이지요. 난 자주 이곳에 나와 우리 동무들과 마음속으로 이야기를 나누군 합니다. 저 주작봉에는 남쪽에 고향을 둔 동무들도 적지 않게 묻혀있습니다. 그들이 이따금 내게 묻습니다. <사령관동지, 저 남쪽은 어떻게 하렵니까?> 그러면 나는 쉬이 대답을 못하지요. 반세기나 갈라져있는 그네들의 고향을 두고, 아직도 앞에 있는 우리의 통일위업을 두고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주석님!》

《수령님!》

최금호도 정용진도 가슴에 사무쳐드는 수령님의 고뇌에 눈굽이 축축히 젖어들어 목메여 불렀다.

《남녘도 내 땅, 내 나라, 한조상의 땅입니다.

남녘의 동포들도 나의 혈육, 나의 겨레입니다. 우리는 백두산시절부터 절대로 나라의 반쪽을 위하여 풍찬로숙하며 혈투를 벌려온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난 더구나 그 땅에 물이 나도 가물이 들어도 쉬이 잠들수 없지요. 일부 못난 사람들이 행실 어지러운것을 해도 분노에 앞서 가슴이 아프군 합니다. 최선생, 우리 속을 크게 가집시다. 겨레와 조국을 통채로 안고 살아갑시다. 투쟁하면서도 단결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화해를 해서 온 겨레가 한 조상의 땅에서 함께 살아갑시다! 어떻습니까, 최선생. 아직도 선생에 대한 나의 불만이 리해되지 않습니까?》

《주석님!》

최금호는 수령님의 위대한 도량과 민족애에 심취되어 수령님앞에 앞으로 구부러들었던 허리를 쭉 펴고 큰소리로 불렀다.

그이께서 펼쳐가시는 너무도 경이적인 사상과 리념에 새롭고도 거창한것이 속깊이에서 출렁거렸으나 뭐라고 형언할수 없어 입만 크게 벌리고 굳어졌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계시는 거인의 위대한 녀에 심취되어 자신을 잃어버린듯싶었다.

그 어떤 만년얼음산이 와그르 허물어져내리는 통쾌하고 장엄한 광경을 체험하고있었다.

수령님의 말씀은 마디마디 명확한 진리이고 정의였으며 인간아름다움의 정화이기도 하였다.

어느 한구절, 한마디도 알쏭달쏭하거나 난해한것이 없었다. 머리속에 쑥쑥 들어와 새겨지는 인간세계의 철리였고 이 땅의 열과 정의 고귀함을 다 모아 피워놓은 비단우의 꽃이었다.

불시에 최금호의 눈앞으로 주석님을 처음으로 만나뵈옵던 시험포전이 새로운 의미를 안고 펼쳐졌다.

그러자 그 시험포전이 이쪽으로 옮겨온듯 발밑으로 보이는 수림이 통채로 콩쑤이요, 숲을 흔드는 바람새도 콩쑤의 설레임소리처럼 느껴졌다.

이제 숲은 여기서 시작되어 북남삼천리로 끝없이 펼쳐질것이다. 주석님의 귀중한 땀방울이 그대로 단비가 되고 주석님의 로고가 그대로 자양분이 되어 가꾸어낸 그 고귀한 애국헌신의 숲이 세세천년 푸르러 설레려니 내 조국은 억년무궁하리라!

그는 한참후야 수령님앞에서 굳어져버린 자신을 의식하고 그이앞에 정중히 서서 옷깃을 여미었다.

비물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흠칠념이 없이 수령님의 자애로운 안광을 우러러보다가 불시에 대리석바닥우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리고 흉중에서 쇠물처럼 이글거리는 감동을 터쳐놓았다.

《주석님! 제 이제야 우리 자손들이 주석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로동당을 어머니라 부르는 까닭을 알겠습니다. 주석님은 과시 우리 민족의 대성인이십니다. 북남민족이 길이 받들어모셔야 할 민족의 어버이이십니다. 제 절을 해서 감사를 드리웁니다!》

《아, 원, 이러지 마시오. 어서 일어나오, 동갑이!》

수령님께서는 허리를 굽히시여 최금호의 어깨를 잡으시였으나 최금호는 그냥 수령님발치에 무릎을 꿇고 목갈린 음성에 진정을 고였다.

《주석님!》

최금호는 수령님의 부촉임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이의 넓은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의 실박한 어깨가 수령님의 품에서 세차게 오르내리었다.

《됐소, 됐소, 동갑이! 동갑이가 이제야 내 마음을 받아주는구만.》

《주석님,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이제야 주석님품에 안긴 겨우 한살잡이입니다.》

그는 이렇게 나직이 속삭이며 수령님의 품에 맑고 더운 눈물을 찰찰 쏟았다.

수령님의 사랑으로 깨닫이 정화되고 따스해진 심장이 뿔어올린 맑은 눈물이었다.

80평생을 속박하며 그리도 두렵게 깔려있던 오욕의 구질구질한 버캐를 말끔히 씻어내리는 새벽이슬이었다.

《허, 이러지 마시오. 우리 통이가 로할아버지가 눈물흘리는것을 보면 나더러 약속을 어겼노라고 하겠소.》

《주석님, 이건 눈물이 아닙니다. 이건... 이건...》

최금호가 뒤말이 쉬이 생각나지 않아 떠듬거리다가 그만에야 얼굴가득히 함박 미소를 머금었다.

《허허허.》

수령님께서는 드디어 한점 그늘도 없이 활짝 밝아진 최금호의 모습을 모자 그의 실박한 허리를 잡으신 팔에 지그시 힘을 주시며 높게 들린 푸른 하늘을 향해 만시름을 가신듯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그 유정한 울림이 수림속에 꽃보라처럼 날려길게 여운을 남기며 정각을 조용히, 조용히 흔들었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작품에서 사건은 큰 의의를 가지지만 성격형상과 결부되지 않고서는 자기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문학에서 사건은 성격창조의 수단으로 된다. 사건은 사회적으로 의의있는것이여야 할뿐아니라 인물들의 성격창조에 이바지할수 있게 그려져야 한다. 성격은 의의있는 사건과 생활의 흐름을 타고 성장발전하는 과정으로 그려져야 한다. 거대한 역사적사건을 라렬하는것으로 한몫 보려는 경향도 사실은 성격형상을 무시하고 사건조직 일면에만 치우치는 현상과 관련되어있다. 인간은 생활의 주인인 동시에 사건의 주인이다. 사건은 인간의 호상관계와 활동에 의하여 생겨나는것만큼 사건묘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성격이 놓여있어야 한다.》

눈꽃들의 속삭임

문 동 식

12월의 하늘에서 눈이 내리네
장군님 그리워 함박눈이 내리네
백두의 2월에서 한생 끝까지
찬눈을 맞으시던 백두의 선군령장
우리 장군님 그리워 그리워 눈이 내리네

얼마나 그이가 보고싶었으면
그이께서 타신 야전차가 달리던
천만갈래 전선길 굽이굽이
그이 걸으신 포전길과 공장구내
포근히 포근히 감싸며 내리는것일까

하얀 눈 송이송이마다
장군님 목메여 부르며 찾으며
저저마다 속삭이는듯
—우리는 그이를 제일 잘 알고
그이는 우리를 제일로 사랑하신분

그렇지 그렇구말구
그이는 우리와 친숙하시였지
그이는 우리를 한품에 안으시고
눈보라 지동치는 백두산에도 오르셨지

오르시여
김일성대원수님 싸우시던 항일의 전구
한눈에 다 굽어보시며
그이는 뜨겁게 말씀하시였지
백두산의 눈보라를 맞아보아야
혁명하는 진맛을 알수 있다고...

위대한 어버이수령님께서

20성상 맞고맞으시며
이 땅에 조국해방을 안아오신
백두의 눈송이 사나운 설한풍
그것을 잊지 않고 사랑하신
빨찌산의 아들 **김정일**장군님

2월의 찬눈을 안고오시여
12월의 찬눈을 다 안고가시며
기쁨과 행복의 뜨거운 눈
푸른 희망 나래퍼는 환희로운 눈
의리와 충정의 순결한 눈만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떠나가신분

그이가 그리워
자나깨나 못견디게 그리워
해와 달이 갈수록 그리워 더욱 그리워
해해년년 그이만을 부르고 추억하며
우리는 이렇게 선군조선의 아름다운 산천에
하염없이 내려와 내려와 쌓인다고...

들을수록 가슴뜨거운
눈들의 속삭임 그 정겨운 말소리
이 세상 끝까지 끝없이 넘쳐나는
한해의 12월 이 령봉우에서

아, 조선의 수천만 공민중의 한사람
내 마음도 순결한 눈송이되여
어느새 눈바다속에 하나로 어울려
수억만송이 눈송이 눈송이들과 함께
그이를 목타게 부르고 또 부르며
그이의 영생을 축원하네 끝없이 끝없이...

위대한 한생

김 형 준

인민을 위해 탄생하시고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그이의 한생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우시는분

한자욱 내짚어도 인민들속에
건설을 하여도 인민을 위해
오직 그이의 락은 인민의 기쁨
오직 그이의 마음속엔 인민뿐

그이의 천품은 불같은 사랑
그 불같은 사랑은 인민사랑
하여 그이는 인민을 우리 인민이라 부르시고
하여 인민은 그이를 우리 장군님이라 부른다

언제나 인민들이 좋다면 나도 좋소
자신을 인민다움에 세우시고
언제나 인민을 위해 자신께서 있다시며
고난과 시련도 앞장에서 헤치시는 그이

머나먼 외국방문의 나날에도
하늘같은 인민이 그리도 그리워
달리는 차창을 닦으시며 바라보신
밤하늘의 별들은 그이 품고사신 인민의 모습

그이의 좌우명은 이민위천
그이의 사색의 시작과 끝은 인민의 행복
그이 타신 인민행렬차는 언제나 정시
그 렬차의 종착역은 인민이 사는 그 모든 곳

세월도 인민을 위해 흐르게 하신
그이의 한평생은 애국애족의 한평생
하늘도 인민을 위해 푸르게 하신
그이의 한평생은 선군혁명의 한평생

자신의 한평생을 쥐여짜면
인민! 이라는 두글자뿐이라 하시던
그대와 나 우리모두의 행복한 삶이
그이의 위대한 한생이었던 말인가?!

정녕 그이의 한생은 인민이었다
인민을 위해 고생이란 고생 다 겪으신 그이
인민을 위해 남몰래 눈물도 많이 흘리신 그이
인민은 그이 그이는 인민!

누구나 가슴에 손을 대여보라
심장의 박동은 그이의 존함으로 높뛰고
온몸에 흘러간 생명의 피줄기
오직 한분 그이의 존함을 새겼나니

주교주신 사랑 언제나 시작인듯
자신의 리상은 인민의 만족
인민이라는 대가정엔 자신은 충족!
조국이라는 거목엔 자신은 뿌리!

우리의 곁을 떠나시는 그 순간에조차
인민에게 주신 사랑 모자라신듯
자신을 깡그리 불태워 남겨주신
영원불멸할 인민사랑 태양의 미소여

오, 그이의 한평생은
인민사랑의 위대한 한평생
그이의 마음속엔 오직 인민
인민이라는 보화가 꼭 차있었기에

그이의 마음속엔 없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그 한자리
아, 위대한 인간
김정일동지!



어 버 이 장 군 님 의 동 상 을 우 리 러

정 두 국

시대와 력사가 기다리는
무수한 숙제들을 풀어주시고
금시 교문을 나서신듯
룡남산시절의 모습으로
본관교사앞에 거연히 서계시는
아, 우리 장군님

룡남산마루에 첫 자옥 새기셨던
53년전 력사의 그날처럼
3천리강산을 한품에 안아보시는가
해빛도 그이의 옷자락에 스며들고
천만산발 그이 향해 달려오고

그리움에 목메여 우러르니
아, 우리 장군님
한생 마음에 두고사신 정깊은 교정이여서
백두령장의 야전복차림 아닌
그날의 대학생복차림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는가

저 하늘의 따뜻한 해빛이런듯
환하게 웃으시는 그이의 미소
온 세계를 지평선 바라보시듯
한눈에 굽어보시는 예지론 안광
귀기울이면 고귀한 가르치심도 주실듯

들끓는 건설장과 군사훈련장에서
어깨에 멍이 지도록 땀을 쏟으며
그렇듯 열렬히 조국을 사랑하신
아, 그날의 젊으신 장군님을 모시여
더 푸르러졌더라 룡남산은
더 밝아졌더라 우리의 교정은

레사롭던 우리의 등교길도
이제는 장군님을 모시고 함께 걷는 길
그래서 강의를 하다가도 문득
그이께서 나의 강의를 들어주신다는 생각
그러면 가슴벅찬 걱정은 차올라
눈시울 뜨거워지거니

영광이여라
젊으신 그이의 모습 날마다 뵈오며
과학을 배우고 혁명을 배우는 우리는
그이앞에서 입학선서를 다지고
룡남산청춘으로 살 우리의 후대들은

장군님을 모시고산 소중한 추억을 안고
눈굽을 적시는 로교수의 가슴에도
세기를 주름잡을 힘과 나래를 주시려
사랑하는 자식들을 찾아오신 어버이장군님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한 젊음으로 룡남산에 계시며
우리 장군님 태양의 축복을 주신다
김정은시대를 찬란히 빛내이라고
우리를 떠밀어주신다

아, 그이를 높이 모신
행복넘친 이 아침
어버이장군님 우러러 꽃다발을 드리노라
그이앞에 너무도 소박한 꽃이건만
우리의 원수님을 앞장에서 받들어
최첨단과학의 정복자로 조선을 빛내일
룡남산의 아들들의 맹세 삼가 엮어 우리 드리노라

승 용 차 앞 에 서

—금수산태양궁전에는 장군님 라시던 승용차가 있다—

곽 명 철

승업한 정적속에 멈춰서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승용차를 바라보니
그날처럼 천리 먼 전선길 달려오신 우리 장군님
금시 차문을 열고 환히 웃으시며 내리실듯

얼마나 먼길을 달리던 승용차였던가
조국땅 방방곡곡
삼백예순다섯날 저 차창가에
얼마나 가슴뜨겁고 사연깊던 모습들
비끼고비끼었던가

오늘도 보여온다 저 차창가에
조국의 운명을 안고 장군님 때없이 오르시던
선군의 산악 철령의 철쭉꽃
인민의 행복위해 눈비속을 뚫고
한해에도 몇차례 찾고 또 찾으시던
강계의 눈보라 희천의 비바람

보여온다 오늘도 저 차창가에
장군님 품에 안겨 목메여 울고웃던
다박솔초소와 감나무중대병사들의 그 모습이
장군님 손목을 꼭 잡고 발을 동동 구르던
구봉령일가와 대홍단사람들의 그 모습

아, 억만장서에도 못다 담을
장군님의 선군실록은
저 차창가에도 어려있어
장군님의 이민위천의 위대한 그 한생을
눈물겹게 전하여주는 태양궁전의 승용차여

조용히 다가서 마음속으로 차창을 어루쓸면
삼복철 강행군나날 홀리시던
장군님의 땀젖은 야전옷자락 어려오고
조용히 다가가 바퀴를 마음속으로 쓸어보면
지치는 바퀴를 밀고 오르시던
그날의 비속을 달리던 승용차

정녕 장군님 모시고
낮이나 밤이나 달리고달리던 승용차는
여기 금수산태양궁전에 머무르지 않고
장군님 그리는 인민의 마음속으로 곧바로
오늘도 래일도 먼먼 미래에도
언제나 질풍처럼 달려만 가리니

오, 뛴뛰는 가슴안고
나는 지금 눈시울 뜨거이 보고있다
장군님 애국헌신의 끝없는 마음이
차창에 승엄하게 비껴오는 래일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안아오시는
부강조국의 눈부신 그 모습을

우리의 거리로 우리와 함께

리 연 희

오늘도
이른아침
여기 통일거리로 오시는가
아버이수령님 모시고
눈보라속에 걸으시는 장군님영상이여

지난밤도
머나먼 현지도의 길 다녀오신듯
뒤에는 성에불린 렬차
그결엔 목메여 경례를 드리는 렬차원
내 그의 손 잡고 묻고싶구나

우리 장군님
어느 먼 북변의 공장
어느 먼 농장을 다녀오셨는지
렬차의 집무실에서 지낸 밤
그 얼마였던지

이제는 습관이 되어
렬차에서 쉬는것이 편안하다 하시며
언제나 눈보라강행군길
불별속 무더위강행군길
인민행렬차를 타고오신
아버이장군님의 한평생이여

그렇게 오신것 아니였던가
12월의 찬바람부는
우리 사는 통일거리로
하나음악정보센터를 찾아주신 장군님

그렇게 오시지 않았던가
아, 그해도 12월
함박눈도 그이의 앞길을 막아나서고
가시면 안된다고 울며 몸부림치는 인민을 향해
우리를 달래이며 환하신 미소 지으시고
우리의 거리로 영원히
영원히 인민에게로 오시던 장군님

수령님 모시였으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언제나 말씀하시던 그날처럼
오늘은 수령님과 함께
원수님 일떠세우신 새 거리 새 공원을 찾아

어제도 오셨네
오늘도 오셨네
래일도 오시리
위대한 수령님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우리의 거리로 우리와 함께 견고계시네



황 용 남

1

대국상이 알려진 다음날이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수산기념궁전(당시)의 위대한 장군님 령전에서 호상을 서고계시었다. 천갈래만갈래 눈물이 모여 시내를 이루고 그 시내들이 합쳐져 대하를 이루는 합수목에 그이께서 서계시었다.

제일 뜨거운 눈물을 품으신, 가장 많은 눈물을 안으신 그이께서 손수건 하나를 줄에 쥐고계시었다.

신문 한면에 걸쳐 길다랗게 발표된 국가장의위원회의 명단의 맨 앞자리에 계시는 오직 그이만은 담놓고 곡성을 터뜨릴수도 없으셨다. 항일혁명투사들과 전쟁로병들, 공로있는 과학자, 기술자들과 이롭있는 예술인들, 인민군장병들과 로력혁신자들... 아버지장군님과 혈연의 정을 맺고 살아오던 유명무명의 이 나라의 식솔들이 눈물에 가리운 망막너머 한쪽의 붉은기를 덮고 누워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비껴들자 일시에 그 자리에 꼬꾸라졌다. 그들모두를 비운속에서 건져주실분은 오직 **김정은**동지뿐이시었다.

눈물의 떨기가 그이를 향해 사정없이 밀려들었다. 한차례 또 한차례...

그이께서 파도를 부시는 억척의 바위이기라도 한 듯...

두시간만에야 그이께서는 령전을 떠나시었다. 그이께서는 인민과 슬픔을 함께 할 시간마저 넉넉히

못하시었다. 잠시 쉬시려는듯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용히 눈을 감으신 그 순간부터 력사의 짐은 모두 그이의 어깨우에 옮겨왔다. 열백밤을 패워도 정열과 패기에 넘치시던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신의 두 어깨에 실려오는, 참으로 무겁게 압박하는 중하를 느끼시며 견디기 어려운 순간순간을 보내고계시었다.

김정은동지께 옮겨온 그 짐우에는 눈물의 무게가 덧엹혀있었다.

울음홀의 옆방.

문건더미를 안고 들어와 탁우에 올려놓은 일꾼들이 죄를 지은듯 그이앞에 머리를 떨구고 하염없이 눈물만 삼키고있었다.

《용서해주십시오... 이젠 모두 장군님께서 자신께 직접 보고하라고 하신 문제들과 시간을 다투는 국가중대사들입니다. 장군님의 결론을 받아야만 했던...》

그이께서는 따로 놓인 문건들부터 끄당겨보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보고드립니다...》

순간 그이께서는 피곳 눈길을 드시었다.

《이 문건들은?...》

《야전렬차의 집무탁우에 놓여있던 문건들입니다. 장군님께서 미처 보아주지 못하고 가신...》

꺅꺅 갑자기르던 그 일꾼이 종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우린 장군님께 너무나 많은 부담을 끼쳐드렸습니다. 가시는 마지막순간까지...》

김정은동지께서는 한손으로는 도저히 잡아챌수 없는 두툼한 문건더미를 두손으로 들어보시었다. 장군님께 얹혀지던 무거운 부담을 가늠이라도 해보시는듯...

일군들은 죄책감에 어쩔줄을 몰랐다. 이것 말고도 많은 문건들이 해당 부서들에서 보류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차마 올릴수 없었다. 그밖에도 조선중앙통신사에서 올려오는 정세자료들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서 종합한 애도기간 청소년들의 미거들, 수십년래의 폭설로 여러군데 교통이 끊어진 데 대한 철도성의 보고, 창전거리살림집건설장의 실태자료들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산더미를 이루고도 남을것이다.

경제문제, 군사문제, 외교문제...

《CNC어미기계의 총조립을 마친 〈명하〉기계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꽃다발을 안고 찾아가시겠다고 장군님께서 약속하셨다며 시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군님께서... 그 기계의 시운전을 어찌 저희들끼리 하겠는가고...》

《중국, 로씨야를 비롯한 린방들에서 보내온 조전들에 외교상관례에 따르는 답전들을 어떻게 하겠는지 가르치심을 주셨으면 합니다.》

《평양산원에서 세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에게 안겨주던 금반지와 은장도를 어떻게...》

김정은동지께서 나직이 물으시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금반지와 은장도를 어떻게 한다는건?...》

한 일군이 그이앞에 나섰다.

《예, 금반지와 은장도는 장군님의 선물로 수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만 합니다.》

슬픔을 안고계시는 그이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 문제만은 즉석에서 답변을 주시었다.

《애도기간에 태어난 새 생명들은 다 장군님의 축복을 받으며 태어난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마 장군님께서도 지금 세쌍둥이의 소식을 들으시고 기뻐하실겁니다.》

다시 문건들을 분류하기 시작하는데 그 문건들도 집어드시는 족족 오른쪽으로 옮겨져 다시 쌓였다.

《외국대표단을 받치 않기로 한 조건에서 해외동포들과 외국인사들이 개인명의로 입국신청을 해온 데 대한 자료들을 보고드립니다.》

《중대방송취취중에 의식을 잃고 도병원에 실려갔던 구봉령도로관리원 김성녀동무가 스물다섯시간 만에 의식을 차리고 다시 가족소대원들과 함께 초

소에 셧습니다.》

《중대방송이 나간지 30분만에 남조선피뢰군과 경찰무력에는 비상체제에 들어갈데 대한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

그이께서는 자신의 앞에서 결론을 기다리고있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조선인민군 주요지휘성원들을 잊으신듯 잠시 어깨를 뒤로 젖히시며 두눈을 감으시었다.

젊음과 정열이 온몸에 넘치시는것으로 하여, 불우물이 패이는 그 특이한 웃음으로 하여 첫순간에 우리 인민을 매혹시킨 그이께서 이 순간만은 몹시 지치신듯싶었다. 사흘낮, 사흘밤 단 한순간도 눈을 붙여보지 못하신 그이이시었다.

그이께서는 귀전에 높아지는 호곡소리에 눈을 뜨시었다.

문가에 당중앙위원회 정선일비서가 나타났다.

그 역시 문건이 든 봉투를 옆에 끼고있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초안을 가지고왔습니다.》

그가 문건을 꺼내 그이앞에 놓아드렸다.

그것을 열핏 일별하고나신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시 눈길을 정선일에게 주시었다.

《아직까지도 태도변화가 없습니까?》

그 목소리에는 안타까운 기대감이 어려있었다.

《대장동지! 점점 더 못되게 나오고있습니다.

〈금번사태〉가 도래했다고...》

정선일은 더이상 다른 대답을 올릴수 없었다.

《금번사태라?... 우리가 당한 불행이 그들에게는 어떤 기회로 된단 말이지요?》

그이의 눈가에서 섬팡이 번쩍했다.

《대장동지! 명박이는 천하에 다시 없을 패륜아입니다. 조선민족의 미풍량속은커녕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의리라도 있다면 어찌 감히... 그것들은 남조선인사들과 개별적단체들이 조의문을 발송하는 것마저 가로막았습니다. 남조선땅에서는 말할것도 없고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있는 민간기업인들에게까지 조의를 표하는 경우 기업에 불리한 결과가 차례질것이라고 공공연히...》

《그만하십시오, 비서동무!》

낮으나 저력있는 음성이 정선일의 말허리를 잘랐다. 인민무력부장이었다. 그는 가가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김정은**동지께로 돌아섰다.

그러면 그의 주먹이 우둘우둘 떨고있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동지!》

그는 **김정은**동지의 직함을 또박또박 그루박아 불렀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신이 하게 될 말이 일개인이 아닌 전체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심정을 담은것임을 강조하려 했다.

《지금 화선의 병사들은 통일의 광장에 장군님을 모시지 못한 죄책감으로 가슴을 치고있습니다. 통일을 위하여 것처럼 애쓰시다 가신 장군님이신데 그것들이 정 그렇게 나온다면…》

심장속에서 마디마디 꼬집어내는듯 하던 그의 말이 홀에서 또다시 높아지는 통곡소리로 잠시 끊어졌다.

《지금 홀에 누구들이 왔습니까?》

김정은동지께서 누구라 대중없이 물으시었다.

《감나무중대와 들꽃중대의 녀병사들입니다. 장군님께서 생전에 것처럼 사랑해주시던…》

인민무력부 일군들이 약속이나 한듯이 일시에 그이의 앞으로 한발짝 다가섰다.

《명령을 주십시오. 우리의 총대는 분노에 떨고있습니다.》

방안을 채우는 그 웨침소리들에서 후두두 눈물이 떨어지는것 같았다. 지글지글 끓는 용암이 분화구를 찾지 못해 몸부림쳤다. 우리의 부고에 접하자 소위 정부소신이라는것을 발표하면서 억지로 《위로》라는 말 한마디를 박아넣고는 그마저도 《지도부와 분리하여 주민들에게 한하여》라고 함으로써 천추에 용납 못할 대죄를 저지른 리명박패당에 대한 분노였다.

《대장동지!》

전선서부에 위치한 군부대장이었다.

《오늘 아침부터 남조선것들이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우리 부대전방지역인 분계연선에서 입에 담지 못할 악담질을 퍼부으며 빼라살포행위를 감행하고있습니다. 저는 부대를 떠나오면서 저의 권한으로 모든 포진지들에서 방수포를 벗겨놓을것을 지시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분노가 방안에 흐르고있었다.

《한수남비서동지!》

그이의 음성은 뜻밖에도 온화하시였다.

《예!》

《그게 언젠니까? 장군님의 조문특사로 남조선에 갔던 때가?》

《2년전입니다. 2년전 8월…》

《불과 2년전인데…》

2년전 8월, 북한간의 모든 교류협력이 중단되었다.

《잃어버린 10년》을 부르짖고있는 리명박정권의 대결의 광기는 금강산관광객사건을 계기로 극도에 달했다.

온 겨레가 열광하는 우리의 핵보유에 질겁하여 외세와 야합한 놈들의 책동은 더욱 악랄해졌다. 6.15의 훈훈한 열풍이 급작스레 얼어붙었다. 《실용정부》로 명명한 반역정권의 출현이래 그 반민족적, 반통일적행적을 때리는 우리 론평원의 글이 나가고 북남관계는 6.15이전시기로 아니, 그보다 더 악화되었다. 그럴 때 김대중이 사망하였다.

장군님의 특명을 받은 조문특사의 서울출현은 동족대결의 찬서리가 하얗게 내뿜은 남조선땅에 불어온 한줄기의 봄바람이었다. 당중앙위원회 비서 한수남이 인천비행장에 내렸을 때 남조선사람들은 장군님의 넓으신 아량과 동포애에 깊이 머리숙였다. 인천-서울연도에 늘어선 군중들이 꽃다발을 흔들며 환호를 올렸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넓으신 도량과 동포애로 하여 김대중은 우리 민족사에 영원히 남게 되었다.》

《국토는 허리잘렸어도 아픔을 함께 하는 동족의 피줄은 연연히 흐른다.》

동시에 정국을 공화국을 반대하는 대결장으로 만들어놓은 리명박에게 비난의 화살이 더 집중되었다. 조문특사를 안 만나겠다고 한사코 발버둥치던 리명박이도 끝내 그를 만나주지 않을수 없었다. 한수남은 장군님의 구두친서를 전달받고 당황망조하여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몰라 허둥대던 리명박의 거동이 생각키우면서 치미는 환멸을 금할수 없었다.

개꼬리 10년가도 황모가 못된다더니 그때를 생각해서라도 어쩌면 이럴수 있단 말인가.

《남쪽문제는 좀 있다 토론하기로 하고…》

그이께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의 성명초안을 왼쪽에 놓으시었다. 《조령근1부부장동무가 지금 호상을 서겠는데 그를 좀 찾아주시오.》

인차 조령근이 들어섰다.

《장군님을 마지막으로 바래드리는 길인데 전국 각지의 장군님 연고자들을 모두 평양으로 불러와야겠습니다. 지금 곧 각 도당들에 이 사업을 포치하시오.》

《알았습니다. 그런데 량강도와 함경북도가 야단입니다. 폭설로 인하여 지금 그쪽 철길이…》

조령근은 철도성의 실패자료를 상기하며 말쌈을 렸다.

《그리고 평양—원산관광도로도 전구간이 눈에
묻혔습니다. 특히 술재령은 눈이 조금만 내려도 교
통이 중단되는 곳인데 지금처럼 장설이 쌓인 상태
에서는…》

그이께서는 조령근의 말허리를 자르시었다.

《량강도와 함경북도에는 비행기를 띄웁시다. 그
리고 강원도의 룡로는 열릴것입니다. 영결식참가자
들이 눈에 막혀 가지 못한다는것을 알면 한밤중이
라도 우리 군대와 인민들이 떨쳐나설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는…》그이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씀하시었다. 《우선 인민들이 맘놓고 울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빨리 슬픔을 가시고 일
어설수 있습니다. 불행을 당했을 때 눈물조차 맘
놓고 흘리지 못하면 그 눈물이 웅어리가 집니다.
그 웅어리는 평생가도 풀리지 않는 한으로 남을수
도 있습니다.》

2

하늘도 땅도 하얗게 상복을 입었다.

김정은동지께서 타신 승용차는 4.25문화회관과
김일성광장을 지나고 다시 유류교를 건너 당창건기
념탑쪽으로 향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차를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앞
도로에 멈추도록 하시었다.

《이곳에까지 조의식장을 꾸려놓았으니 평양시에
여섯군데가 있게 됩니다. 인민들이 이 추운날에
조의를 표하러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될겁니다.》

그이께서는 대동강을 등에 지고 당창건기념탑을
바라보시었다. 환하게 웃으시는 장군님의 영상이
한눈에 안겨왔다. 불빛이 환한 당창건기념탑 교양
마당이 사람들로 꽉 들어차있었다. 하염없이 내리
는 눈발사이로 추도곡이 가슴저미며 울려왔다.

《지방의 연고자들과 로력혁신자, 과학자, 기술
자들까지 부르면 애도기간 금수산기념궁전조명의
단에 놓친 사람들이 또 없겠는지 꼼꼼히 따져보십
시오.》

《예, 지방에 있는 연고자들까지 다 불렀습니
다. 그리고 총련과 재조조선인련합, 재조조선공민
중앙협회, 고통련조문단도 인차 평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찬바람이 몰아쳤다.

한수남과 정선일은 모자도 쓰지 않으신 그이의

신상이 넘려되었다.

《그럼 다 온단 말이지요?》

그이께서는 정선일을 돌아보며 물으시었다.

《정선일비서동지 생각엔 어떻습니까? 남조선인
민들 말입니다. 그들이 없이 장군님과 영결하는게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올렸지만 리명박패당은 조의문발
표마저도 가로막고있습니다. 지금형편으로는 남측
에서 조문단이 오리라고는 생각도 할수 없습니다.
당국자들이…》

그이께서는 자신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정선일
에게 안타까운 눈길을 돌리시었다.

《당국자들은 그래도 남조선인민들은 오고싶어
할것입니다. 거기에도 장군님의 서거로 몸부림치는
우리 겨레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물을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눈물을 지켜주다!

그이께서는 지켜주셔야 할것이 너무도 많았다.
너무도 컸다. 인민의 운명과 미래가 그이께 달려
있었다. 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셔
야 했다.

그런데 그이께서는 우선 눈물부터 지켜주자고 하
신다.

정선일의 가슴에서는 울음holes의 열방에서 터져올
랐던 그 분노가 다시 끓어올랐다.

《지금 어리석게도 리명박패당은 〈북의 내부소
요시 대응안〉이니 〈대거 탈북시의 대응안〉이니
하는것들을 언론에 흘리면서 우리의 제도가 당장
허물어질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성
숙된 기회가 도래했다고까지 공공연히…》

확확 입김을 풍기며 열변을 토하는 정선일의 격
한 부르짖음에 한수남도 피가 끓어 얼굴이 뺨뺨 달
아올랐지만 그이의 표정은 너무도 태연하시었다.

정선일의 말을 받아 한수남이 입을 열었다.

《그러니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성명부터
빨리 내보내서 명든 가슴들에 칼질을 하고있는 리
명박을 벌거벗겨 만천하에 내세우고 두들겨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의 정세로 보아…》

그이께서 두사람을 번갈아보시었다.

《정치적으로 무지하고 도덕적으로 저열한 리명
박패당의 머리속에서 나온 그런 〈붕괴설〉 따위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없습니다. 나도 지금은 그에 일
일이 꾸짖을 생각이 없고… 슬픔은 어떤 분노가 생
긴다고 가셔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슴을 허비는 추도곡이 바람소리를 누르며 울려왔다. 대동강가의 키높은 나무가지들이 우우— 소리를 내며 울부짖고있었다.

여전히 한모습 웃고계시는 장군님의 태양상을 우르르며 인파는 끊임없이 밀려들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성명은 잠시 접어두고 남측에 조문길을 열어놓을것을 강력히 요구해야겠습니다. 우리 장군님의 권위와 업적 그리고 조선민족의 조상대대로 내려온 인륜을 따지며 당국자들을 다블리면 그들도 어찌지 못할것입니다. 정치인, 경제인, 여당, 야당 할것없이 모두 오라고 합시다. 우리 동포들이 오는 길은 판문점을 비롯해서 하늘길, 배길 다 열어놓아야겠습니다.》

《저어, 대장동지...》

그이의 크나큰 도량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는 정선일이었지만 우려되는바를 숨김없이 말씀 올리였다.

《지금 남조선당국의 처사로 봐서 나라의 남쪽 대문을 열어놓는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중대방송예고가 나가자 제판에 《제3차핵시협》이 아니면 《우라니움농축중단》에 대한 발표일것이라고 주절대였다고 한다.

리명박이 불에 덴것처럼 놀라 《국가안전보장회의》란것을 벌려놓고 지시했다는것도 《급변사태시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책을 바빠 완료하라》는것이였으며 그래서 《급변사태대응책》들이 무더기로 쏟아져나온것이다.

《이렇게 까마귀 쪼잡아먹을 어처구니없는 망상에 사로잡혀있는것들인데 우리가 모든 통로들을 열어놓는다면 그것들이 할것이 보나마나 뻔하지 않습니까. 애도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목적으로 불순 모략분자들을 들여보낼수 있습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만수대언덕쪽을 바라보시였다.

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져있는 만수대언덕, 애도기간 첫날에 장군님의 동상을 찾을길 없었던 사람들이 꽃을 안고 그곳으로 모여들었었다. 그리고 장군님을 잘 모시지 못한 자신들을, 이날까지 그이의 동상 하나 세워드리지 못한 불충한 자신들을 타매하며 눈물을 흘렸다. 자정이 되여오는 지금도 만수대언덕으로는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잠 못드는 이 나라 인민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있다. 저 발걸음에, 저 눈물에 과연 찬물을 끼얹을수 있단 말인가.

김정은동지께서는 나직이 말씀하시였다.

《좀스런것들이니 좀스런짓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조의행사들에 사소한 불미스런 일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선일의 립장은 견결했다. 《그들이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에서 몽유병환자의 환각증세같은것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우리의 국상을 손쉽게 〈흡수통일〉을 달성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있는 그들이 어떤 미친짓을 하겠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허황한 망상에 사로잡혀있다고 봅니까?》

《현당국의 정치인이라고 자처하는것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너무도 모르기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수령님서거때처럼 또다시 〈붕괴설〉을 떠들고있습니다. 그때는 오판했지만 이번에는 틀림없다는것입니다. 이번 〈붕괴설〉의 주요론거로 〈지도력의 부재〉를 운운하고있는데 그것은 우리 나라에 후계자의 령도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상을 당한것이 94년서거때와 다른 점이라는 분석으로부터 나온것입니다. 이런 야망을 가진자들에게 대문을 열어놓는다는것은 아무래도... 정 조문단을 받아야 한다면 우리가 엄선해서...》

《〈지도력의 부재〉란 말이지요?》

그이께서는 앞섰을 활 제끼시며 고개를 들어 눈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시였다.

그들이 말하는 지도력이란 곧 국가권력을 의미한다.

파연 그들은 우리 제도와 우리 사회가 권력에 의해서 유지되고있었다고 여긴단 말인가.

제도의 기초에 혈연의 정이 깔려있고 사회의 중심에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이라는 위대한 힘이 있어 이 나라가 것처럼 강하고 것처럼 아름다운것이다.

《이 나라의 지도력이 무엇인지, 우리 제도의 불패성이 무엇인지 그들은 이번 우리의 추모행사를 통해 알게 될것입니다. 일없습니다. 문을 열어놓읍시다. 장군님께서 이처럼 훌륭한 인민을 맡겨주고 가시었는데 두려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저 눈물을 안고 혁명을 할것이며 저 눈물로 한평생 가슴을 적시며 장군님께서 걸으신 길을 이을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이번의 눈물속에서 더욱 강해질것

입니다.》

눈이 미여지게 내리고있었다. 어느결에 승용차의 지붕우에도 흰눈이 수북이 쌓였다.

자정을 알리는 인민대학습당의 종소리가 눈내리는 대동강반을 깨우며 은은히 울려왔다. 한수남과 정선일은 크나큰 걱정애 싸여 그 종소리를 듣고있었다. 그들의 귀전에는 그 종소리가 이렇게 웨치는것 같았다.

세계의 정치가들이여! 눈물을 알라! 눈물을 안으라!

3

울씨년스러운 겨울날의 저녁이었다.

삼륜차에 앉은 리희호는 2층 창가에서 락조가 비낀 서울장안을 바라보고있었다. 우리의 중대방송이 나가자마자 리희호는 며칠 있으면 아흔고개에 들어서서 고령의 몸이었지만 결단코 조의방문을 결심했다. 필경 마지막일수도 있는 기회였다. 남편 김대중이 살아있었다라면 반드시 함께 떠났을 두번째 평양길... 그의 마음은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저도 모르게 남편이 눈을 감던 때가 생각났다.

《실용정부》의 등장으로 6.15는 찬서리를 맞았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모독증상하는 온갖 훼방과 랑설이 남조선의 3대신문이라 일컫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지면이 좁다하게 쏟아져나왔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이미 내다보고있었던듯 마지막까지 태연했고 한생을 자부했다.

《내 별호가 그래서 인동초야.》

겨울을 이겨내는 풀...

그래, 리명박치하는 참으로 엄혹하기도 했다.

《인명은 곧 천명이라 내 명이 하늘의 뜻을 가늠하는 실눈금이라도 되어준다면 기꺼이 그를 숙명으로 받으리라...》

김대중은 생의 말년에 이 말을 줄곧 뇌이었다.

《잃어버린 10년》이니 《굴욕의 10년》이니 하는 악에 받친 소리가 《국회》에서, 청와대에서 로골적으로 튀어나올 때 벌써 자신의 생명이라고 할수 있는 6.15의 장래가 걱정되었던지...

가까스로 북에 의하여 유지되던 그 6.15!

그러나 이제는 김정일위원장님도 안계시니 정녕 6.15는 언뜻 비졌다 사라지는 무지개처럼 영영 이땅을 떠나간단 말인가.

《장차 6.15는 어떻게 되는거죠?》

북의 중대방송이 나온 후 집에 찾아왔던 박수원에게 리희호가 저도 모르게 던진 말이었다. 이것은 대답을 바라는 질문이 아니라 탄식이였다. 박수원 역시 그것을 알고있는지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고 덤덤한 얼굴로 말했다.

《꼭 1년 남았었습니다. 희망이 다시 걸릴 날까지...》

《실용정부》의 퇴진을 념두에 두고 하는 말이었다.

2012년 12월까지의 꼭 1년 남았다.

그런데 이제는 6.15의 맞도장을 누르신 두분께서 다 가셨으니 그 립지를 과연 누가 지켜가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가 즐겨부르던 노래의 한구절이 생각났다.

...

깊은 밤 조각달은 흘러가는데
어찌다 옛 상처가 새로워진다
못 오는 님이면 이 마음도 보낼것을

...

고향이 목포여서인지 김대중은 생전에 《목포의 눈물》을 애창했었다. 김대중박물관이 개관된 날 저녁에도 그는 이 방에서 흘러가는 초생달을 바라보며 이 노래를 불렀었다.

통일은 정녕 못 오는 님이 되어 마음이나 실어보는 꿈으로 남는것일까.

중대방송이 발표되자 남쪽땅이 일시에 들끓어났다. 재야계는 물론 《국회》와 법조계에서까지 《정부차원의 조문단파견이 동족으로서 응당한 도리이고 또 가물든 북남관계에 물고를 트이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저마다 조문신청을 냈다. 그런데 《정부》는 너무도 완고하였다.

분향소를 설치하는것마저 《보안법》위반으로 몰아가는 판이니 《정부차원》의 조문단파견은 말할 형편이 못되였다. 하여 사람들은 싸이버분향소들을 설치하고 인터넷을 통해 애도의 감정을 표시하고있었다. 사회 각계에서 부고를 받고 리명박이 취한 처사를 두고 비난이 비발치듯 하였다.

리명박은 부고가 발표되자 깜짝 놀라 미국, 일본의 상전들에게 전화질을 하다못해 유엔사무총장까지 찾았다.

그것을 비웃을래기 인터넷망이 터져나갈듯 했다.

《북의 유고를 제일먼저 유엔에 전한 MB대통

령.》

《조상전례 상가풍속 모르나. 〈일본형님, 미국 큰형, 상가례절 한수 가르쳐주소.〉 … 나이 일흔 창피해.》

공교롭게도 부고가 발표되던 날이 리명박의 일흔 뉘살일이었다고 한다. 점심참에 고깔모자까지 쓰고 청와대의 측근들속에 둘러싸여 생일축하잔치를 벌였던 《실용정부》의 《폐하》는 그만 생일과자에 가져다대던 칼을 깜짝 놀라 떨어뜨렸던지… 어느 인터넷신문에는 《생일 축하합니다, 대통령각하!》라는 표제를 달고 《…일흔뉘이었죠? 왜 점심오찬 걸어치우셨나요? 이웃의 부고를 들어서라구요. 근데 생일축하모자를 벗어제긴것까지는 좋았는데 왜 지하방공호에 들어가 철갑모를 쓰셨나 그거죠.》라는 글이 실려 보는 사람마다 쓴웃음을 짓게 했다. 리희호가 공화국방문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민주통합당 박수원 《의원》이 찾아왔었다.

《너사님, 그 몸으로 복행길을 결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감동이 컸습니다.》

《그분에 대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너사님과 그리고 먼지가신 대통령각하앞에서 제 죄를 빌려고 왔습니다. 너사님의 용단을 놓고 많은것을 생각했습니다. 저도 역시 김위원장과 절친한 인연을 맺은 사이지만 하도 지금 〈총복세력〉척결소동이 요란타보니 많이 주저했거든요. 용서하십시오. 저도 너사님과 같이 가렵니다.》

《고마워요, 박장관님!》

리희호는 그전처럼 그를 장관이라 불렀다.

《세상이 어찌다 이렇게 되었는지…》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온 이남땅이 들썩들썩하던 그 시절이 그리웠다. 반공선전에 열을 올리던 언론사대표단이 이북에 가서 고두사죄하고 사면이라도 받은듯 활개치며 돌아오고 남북예술단들이 분계선을 넘나들며 한해에도 몇차례씩 《아리랑》을 합창하던 그 시절, 금강산으로 향한 관광객들로 속초항이 터져나갈듯 하고 부산에 온 미인옹원단이 이남 청년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던 나날들이 꿈만 같기도 했다. 박수원을 마주한 순간 리희호는 그 시절이 생각키워 눈물이 절로 났다. 그 나날은 다 어디로 가고 조선반도우엔 전쟁의 공포가 망령처럼 떠돌고있는것인가.

《조, 중, 동》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다시 입에 피를 물었고 연평도엔 불벼락이 쏟아졌다. 남북간의 팽팽한 긴장고조로 서울장안에 《전시식품

마련》이라는 괴상한 풍이 불었다. 게다가 이제는 반도의 평화를 한몸에 안고계시던 국방위원장님마저 가셨으니…

《그냥 이대로만 갈순 없잖아요? 그끝이 뻗는데…》

《글쎄 말입니다. 김위원장님마저 가셨으니 통일은 더욱 요원해지는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도 변했지요.》

박수원의 심정도 리희호와 다를바 없었다. 그도 앞날이 막막하기만 한지 침뚫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지금 나뿐아니라 림동훈 전 장관님도 그렇고 로무현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녀사랑 많은 사람들이 방북을 표명해나셨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과연 허락할는지… 저도 힘껏 나서긴 하겠지만 현정부의 소갈머리를 봐선 신청을 다 수락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리희호는 처음 그의 말을 야당정치인으로서의 현 《정부》에 대한 어쩔수 없는 거부감이 많이 작용된것이라고 보았다.

아무리 웅졸한 《정권》이기로서니 온 이남땅이 추모열기로 끓고있는데 감히 무슨 명분으로 조문길을 막는단 말인가.

중대보도가 나간지 한시간만에 《다음》, 《네이버》 등 남조선의 5대인터넷사이트들에 편이여 개설된 추모홈페이지에는 **김정일**장군님을 추모하고 그의 업적을 칭송한 글이 12만건이나 올랐다.

전라도 광주 모악산에 안치된 전주 김씨 시조묘를 찾는 경향각지 조객들로 승용차들이 줄을 지어 늘어서는 바람에 교통혼란이 일어났다고 한다. 분향소설치를 탄압당한 사람들이 거기로 가서 그의 명복을 빈다는것이다.

그러나 박수원의 우려는 맞았다.

처음엔 신변안전이 걱정된다느니, 북에서 일체 외국대표단 입국을 불허한 상태여서 신청했다가 거절이라도 당하면 망신이라느니 하면서 《방북신청을 철회하라》고 협박하던 《정부》는 북에서 야당, 여당, 정치인, 경제인 가림없이 다 받아들일것이며 직항로를 비롯한 모든 통로들을 다 열어놓는다는 통고가 오자 부엌게 되여가지고 어떻게 하나 못 가게 할 구실을 마련하느라 꿈꾸거렸다.

번거롭게 유가족이 다 가겠느냐면서 리희호자신과 아들 한명만 가고 나머지는 신변보장도 그래 저희네 사람들을 붙여주겠노라며 럽탄군들을 끼워넣고싶어 하더니 웬일인지 갑자기 그마저 집어치웠다.

그리고 이번엔 방문일정과 형식, 절차를 공론한 답시며 또 귀중한 하루를 흘려보냈다.

오늘 아침에야 《통일부》의 관계자가 리희호에게 전화를 걸어 인츰 떠날 준비를 갖추라고 하면서 북은 지금 상황이 없을텐데 가서 먹을것, 입을것 든든히 장만해가지고 떠나는게 좋을거라는 속에 없는 관심을 돌려주었다. 그러면서 조의를 간다고 그저 머리를 숙이지만 말고 전 대통령의 부인답게 존엄있게 처신하라고 은근히 그 무엇을 충동질하더니 마감엔 북에 가서 편찮은 일이 생기면 그뎨 단호하게 돌아서야 한다면서 각별주의하라는 앞뒤없는 소리를 주어섬겼다.

마지못해 보내긴 하지만 가서 뺑대를 받고 왔으면 하는 비뚤어진 심사가 뻥히 들여다보였다.

28일날 영결식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이 벌써 며칠인가. 하루이틀만 더 놓치면 그야말로 늦어진 상태가 되고만다.

리희호는 지금 《통일부》에 간 아들 김홍일을 기다리는중이었다. 점심이 좀 지나 떠났으니 이제올 때가 넘었는데 왜 이리 늦어지는것인지. 이때 그의 속생각을 알아맞춘듯 아래층에서 손자 종익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아버님이 오셨습니다.》

방안에 들어서서 홍일의 안색을 보니 기분이 그다 좋지 못했다. 떠날 때엔 어지간히 흥분했었는데...

《불을 켜지라.》

불이 켜지는 순간 홍일의 눈가에 맞은편벽을 짝 채운 한장의 대형사진이 안겨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아버지가 평양비행장에서 만나 악수하시는 장면의 사진이었다. 홍일은 오후내껏 이 방에 있는 어머니의 심중이 가슴에 마쳐왔다.

그는 잠자코 창가로 다가가 삼륜차를 탁앞으로 밀어왔다.

《박의원님의 동행은 끝내 불허되고말았습니다. 정치인은 안된다는거죠.》

맞은편안락의자에 앉으며 홍일이 내뿜은 소리였다.

《그는 개인자격으로 우리 일행을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그는 현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이라는거죠. 박의원뿐이 아니예요. 민간단체들의 신청도 어느 하나 수용된게 없어요. 통일부 류장관이 직접 나와서 정부의 소신을 발표하던데 후에 따로 남은 나에게 큰 선심이나 베풀듯이 생색을 냅니다.》

《문목사네 가족은?》

그는 가까스로 눈길을 들어 아들 김홍일을 바라

보았다.

《말도 마십쇼. 박용길녀사네는 어림도 없고 로무현재단의 신청도 거절당했는걸요. 민화협(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김덕룡대표가 나서서 권양숙녀사만은 꼭 보내야 한다며 로무현재단의 이름으로 신청한것이 집단적성격때문에 안된다면 이제라도 로대통령의 유가족에 국한시켜서라도 방북을 추진시켜야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던데 끝내 그마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통합당이고 범민련이고 참여런대고 그저 한몸동으로 거절당했습니다. 래일 또 평장할겁니다. 재야계가 옥옥하니까요. 이자도 오면서 보니까 저기 서울대학교에 또 다른 현수막이 걸렸습시다.》

아침까지만도 《북은 슬프고 남은 서글프다》는 글이 실려 슬픔조차 건널수 없는 한겨레의 비극을 실감케 하던 곳이었다.

《거기에 벌써 〈길 비켜라, 북에 조문간다〉는 글이 나붙었습니다. 류장관이 나한테 생색을 뉘날하지요.》

김홍일은 쓰거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우리 말고 누구네가 가게 됐니?》

《현대의 현정은회장이 가는것 같습니다.》

《현대가?》

김정일위원장과 의 연고로 말하면 문목사네도로 전대통령네도 현대그룹에 못지 않다.

현대가 간다면 로무현전대통령네가 못 갈리는 없는데... 또 연고로 본다면 문목사나 박용길녀사만큼 북과 절친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로태우시기 북을 방문하고 돌아온 문익환목사를 구속처분했을 때 그가 썼던 항소리유서가 생각났다.

《현대의 정회장은 북에 가도 일없는데 나를 가둔다는것은 북과 장사는 하되 통일은 말자는것이 아닌가.》...

리희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 사람들 나름으론 방북허가기준이 있는것 같더군요.》

여전히 쓰거운 홍일의 소리였다.

《그래 무슨 기준이기에?》

《권양숙녀사네를 용인할수 없는것은 로대통령의 서거때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조건만 왔을뿐 특사는 오지 않았다 이거죠. 류장관은 남쪽이라고 늘 퍼주지만 하겠냐고 합디다.》

퍼주기? 《실용정부》가 생겨서부터 정치계일각에서 입버릇처럼 쓰이는 소리다. 그러니 조의를 표하는데도 더 가고 덜 가고가 있고 크고작고와 득실

이 있던 말인가.

리희호는 기가 차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의 방북이 수락된것도 아버지의 서거때 북의 조문특사가 온 까닭이라는거냐?》

《그 소리지 뭐겠어요. 우리 집과 현회장네도 정부로서는 용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면서 아버지때 북에서 조문특사가 온것을 특별히 감안해서 취해진 조치라고 류장판이 말합디다.》

리희호는 경악을 금할수 없었다.

이것이 실용을 떠드는 리명박식의 셈법인가. 아무리 장사꾼출신이라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아닌가. 국익뿐아니라 민심을 대변해야 할 대통령이란 사람이 어찌 민족의 불행이 닥친 마당에서 위로 한마디라도 더 건너갈가봐 수관을 뒀긴단 말인가.

슬프기 그지없었다.

이남 민중을 대표한다는 대통령이 인간의 정과 민족의 미풍양속에 야박한 가격표를 붙인 장부책을 가지고있는것이다.

리희호의 눈앞에는 텔레비존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화강석대돌을 피나게 굵으며 《장군님!》을 목놓아 찾던 모습들... 이북의 동포들이 이걸 안다면 침을 뱉지 않을가.

그는 죄의식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더 큰 격분은 뒤에 있었다. 홍일이 아까부터 호흡이 빨라지는 리희호의 낯색을 살펴보며 주저주저하다가 말꼭지를 뗐다. 아무래도 뱉아놔야 할 말이었다.

《제가 늦어진건 말입니다. 기일문제때문에 옥신각신이 있었어요.》

종익이 또다시 울분을 토했다.

《기일이란건 또 뭐니까? 이제는 애도기간도 며칠 안 남았으니 래일이라도 당장 떠나야겠고 가서 영결식이야 참가해야겠지요? 뻔한 문제를 놓고 또 무슨 오그랑수를 피웁니까?》

홍일은 답답한듯 넥타이를 풀어던지었다.

《겨우 1박2일을 받았습디다. 26일부터 27일까지.》

겨우 하루밤? 그것도 28일이 영결식인데 영결식도 보지 않고 하루전에 돌아서라니?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그런다는거냐? 이왕지사 보낼바에 왜 이틀밖에 줄수 없다는거냐?》

《북의 조문특사의 체류기일이 1박2일이었던는...》

방안에는 숨소리 하나 없었다. 잠자코 머리를 숙

이고있던 리희호가 머리를 들었다. 그의 눈가에서 슬픔인지 분노인지 모를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너무하구나, 정말 너무해!)

이 제도에, 이 사회에 몸담고있는 자신까지도 역겨워졌다.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싶었다. 문득 눈앞에 두분의 영상이 안겨왔다. 사진속의 두분은 환하게 웃고계셨다.

두분은 이 강토의 미래를 축복하시건만...

방안에는 오래도록 쓸쓸한 기운이 돌았다. 한참만에 리희호는 삼륜차를 밀어 창가로 다시 다가갔다. 저 멀리 남편이 묻혀있는 룡쪽의 하늘에 무거운 구름이 낮추 드리워있었다.

비운이 서린 하늘은 또 한바탕 눈을 퍼부으려는 모양이었다.

(여보, 이해 겨울은 몹시 추울거예요.)

4

《...고 김대중 전 대통령유족과 고 정몽헌 전 회장유족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조문을 위해 26일부터 27일까지 함께 방북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리희호씨는 유족 4명, 수행원 8명과 함께, 현정은회장은 수행원 4명과 함께 방북길에 오른다.

민간조문단은 판례에 따라 북측통행검사소로부터 북측이 제공하는 운송수단들을 리용하게 된다. 민간조문단은 26일 오전 군사분계선을 통과해 평양에 도착한 뒤 같은 날 오후 조의를 하게 된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이 전하는 소식이었다.

...

10여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일가. 아들, 손자의 부축임을 받으며 마주오는 리희호의 모습에는 6.15때의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수 없고 서글픈 기색만 어린것이 낯선 느낌을 주었다. 그는 정선일을 띄여보자 은근히 놀라는것 같았다.

《먼길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너사님!》

《아닙니다, 비서님! 비서님께서 이렇게 마중하시리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불상사를 당한 북녘조국에서 경황이 없을거라던데...》

리희호는 정선일이 친절을 베풀 때마다 더욱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수 없었다.

리희호와 승용차로 향하던 정선일이 물었다.

《너사님, 삼륜차는 어쩡습니까?》

《예? 아마 애들이 전사했을겁니다.》

판문점을 넘어서기 전까지 삼륜차를 타고있었던 그였다. 그러나 분리선을 넘으면서 그는 죄스러움을 하나라도 덜어보려고 불편한 몸이지만 굳이 걸기로 했다.

《삼륜차를 실을 차까지 가지고왔으니 신도록 하십시오.》

정선일의 말에 리희호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렇게 사려가 길을줄은...)

그들이 뒤좌석에 자리를 잡았을 때였다.

운전사가 돌아서며 리희호에게 인사했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너사님?》

리희호는 얼떨름해졌다. 분명 구면이라고 반가운 인상을 지어보이는데 자기로서는 도무지 초면인 사람이였다.

《예에— 그런데...》

정선일이 끼어들었다.

《처음 평양 왔을 때 며칠간 이 동무가 너사님을 모셨는데...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긴 그새 10년도 더 넘었으니...》

그제서야 리희호는 그가 6.15때 북에 온 자기를 태우고다니던 그 운전사임을 알아보았다.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할 때 그속에 자기 딸도 있으니 잘 봐달라고 자랑하던 운전사의 옛모습이 불현듯 생각났다.

《아, 순안공항서 참 만났던 그 운전기사님!》

《제가 또 이렇게 모시러 나왔습니다.》

이윽고 차가 출발했다. 개성을 거쳐 평양으로 뻗은 도로를 달리며 리희호는 10여년전 처음 평양에 왔을 때의 감정을 다시 체험하고싶었으나 마음은 바늘방석에 앉은듯 불안하기만 했다. 이 불안이 어디서 오는걸까? 모두가 친절하게 맞아주고 대해주는데... 한참후에야 그는 불안이 바로 그 친절로부터 온다는것을 깨달았다.

《10년전처럼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죠. 북에서 뭐 지금 경황이 있겠어요? 숙소랑 다 변변치 않을테니 곧 돌아서는게 이편저편 다 좋다니까요. 북에서 통신이랑 다 보장해주게 약조가 돼있으니까 대우가 변변찮으면 제격 연락하시고요. 그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시킬수도 있으니까요.》

판문점까지 바래준답시고 따라나왔던 《통일부》판리의 말을 들으며 어느정도 각오를 했던것인데 그와 너무도 대조되는 현실을 목격하게 되니 오히려 죄송스런 마음이 더해진 것이다. 이렇듯 맞아주고 룡송하게 대해주는 진정앞에 대우타발은커녕 하

루만에 돌아서겠다는 소리를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긴 당국에서 우리 일정을 다 통지했겠으니 이미 알고있겠구나. 그런데도 이렇게 반갑게 대할수가 있겠는가.

《너사님의 숙소는 전번에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들었던 백화원 영빈관에 잡도록 했습니다.》

리희호의 속생각을 깨치며 정선일이 하는 말이였다.

백화원 영빈관이면 국가수반들만 맞이하는 곳으로 알고있다. 이처럼 초라한 일행에게 국민의 대우를 해주다니...

리희호의 두어깨는 더욱 좋아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너사님이 오면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들었던 백화원에 들도록 하며 방까지도 그때의 그 방을 리용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아까 그 삼륜차도 제가 생각이 깊어서가 아니였습니다. 이 운전사동무도 그래서 또 한번 너사님을 모시게 된거구요. **김정은**동지께서는 너사님이 남의 집에 온감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각별히 마음을 써주시었습니다.》

리희호는 꿈을 꾸는것만 같았다.

사실 **김정은**군사위원회 부위원장장님에 대하여 이남사람들이 가지고있는 표상은 편견적인것이였었다.

텔레비죤화면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손짓, 걸음씨, 호탕한 미소...

김일성주석의 환생이라고 이남사람들을 깜짝 놀래웠던 그분! 이남 군부에서는 2009년 새해 첫날을 맞으며 땅크련합부대를 찾으신 그이께서 직접 조종간을 잡고 땅크를 모시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그이를 직업적인 군인으로만 묘사하고있었으며 연평도의 징별도 그이와 련관시키고있었다.

《광명성-2》호발사때 그이께서 반타격사령관이 되시어 전쟁을 불사할 결심까지 품고계셨다는 소문까지 퍼돌아 어쨌든 이남사람들은 이북에 새로 출현한 젊으신 령도자에게 어지간히 주눅이 들어있었다.

젊으신분, 그만큼 혈기방장하시고 결단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령도자... 이남의 관측은 대체로 이러했다.

과연 그분께서 이처럼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셨단 말인가.

그날 점심식사때 정선일과 동석한 그는 상우에 올라있는 칠보산송이버섯을 보고 또다시 감격하였다.

《많이 드십시오. 그때가 생각납니까?

우리 장군님께서 홀어진 가족이 될번 한 녀사님을 김대통령옆에 앉혀주시던 일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잊어요. 6.15가 남긴 유명한 일화의 하나인데요. 이남에선 그 일화를 모르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날 연회상에도 칠보산송이버섯이 올랐었지요?》

《정말 그래요.》

그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유모아까지 써가시며 자기를 남편결에 앉혀주는 바람에 리희호도 어려움을 잊고 신바람이 났었다.

《국방위원장님, 이게 송이버섯이 아닙니까?》

《예, 유명한 칠보산송이버섯입니다. 어서 들어보십시오.》

《어머! 과연 소문이 날만 합니다. 우리 남쪽에서는 설악산송이버섯이 유명한데 이보다 송이도 작고 향긴 더 못해요.》

《아직 여름이어서 칠보산에 송이버섯이 나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오면 내 녀사께 송이버섯을 보내주겠으니 그걸로 우리 선전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보안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좌중은 그래서 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그해 가을 그분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비행기까지 띄워 송이버섯을 보내주시었다. 로무현 대통령이 왔다갈 때에도 또 보내주시고…

그때 정말로 55년간의 분렬장벽에 통금이 족 갔었다.

《방금전에 그이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녀사님이 불편해하는 점은 없는가 관심하시면서 식탁에 칠보산송이버섯을 꼭 잊지 말고 올려놓으라고 당부해주셨습니다.》

리희호는 그 향기론 버섯을 목구멍으로 넘길수가 없었다.

푸대접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고, 일방적인 퍼주기만 할수 없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늘어놓던 그 악담들이 다시 떠올랐다. 무엇을 퍼주었던가?

큰 손해라도 본것처럼 떠드는 그 모든것을 다시 퍼담아모은대도 칠보산송이버섯에서 풍기는 이 유정하고 포근한 향기 한모금과 바꿀수 있을가…

저녁 6시 20분.

리희호는 속죄의 마음을 안고 위대한 장군님의 령구앞에 나섰다. 죄많은 남조선당국의 처사때문이기는 하지만 이 강토의 반쪽 민중을 대표하여 나서

기에는 너무도 단출한 일행을 거느리고 그이앞에 나서자니 슬픔보다도 억울함이 치밀었다.

그래서 더욱 눈물이 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 부디 저희들을 용서해주십시오.)

이윽고 그는 자식들의 부축을 받으며 **김정은**동지의 앞에 나섰다. 두손을 마주 내미시는 **김정은**동지의 림름한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리희호는 느닷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것을 느끼었다.

《부위원장님! 국방위원장님에 대한 도리를 이렇게밖에 지킬수 없는 저희들을 부디…》

그는 남조선민중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김정은**동지께 사죄의 말씀을 올렸다.

《할머니!》

그 순간 리희호는 흠칫 몸을 떨었다. 전신에 쪼르르 전류가 흘렀다. 그래 그래, 이진 친혈육사이에만 통하는 육친의 정이 내 몸에 흘러드는거야. 피줄은 감출수 없는 법이지.

그이께서 리희호의 두손을 따듯이 감싸주시었다.

아, 그 포근함이란…

《불편하신 몸에 쉽지 않은 걸음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것을 생략하시고 그이께서는 오히려 감사를 표하시었다. 눈물의 대하에 겨우 한방울을 보태인 이 불민한 늙은이에게… 이 큰 심장, 이 후더운 인정…

뜨거운 정이 온몸에 훈훈히 퍼지는것을 느끼며 리희호는 그이께 손을 맡기고 오래오래 있고싶었다.

그이의 손등에 리희호의 맑은 눈물이 점점이 떨어졌다.

마침내 머리를 든 리희호는 자기를 할머니라 불려주신 그 젊으신 부위원장의 림름한 안광에도 맑은 눈물이 맺혀있는것을 보았다.

눈물을 안고계시는분! 눈물을 아껴주시는분!

아, 역시 이분의 심중에도 민족을 위해 사품치는 눈물이 한가득 고였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과 똑같이…

이런분을 또다시 령수로 모심은 이북동포들의 행운이랄수밖에 어찌 달리 표현할수가 있으랴.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은 가시였지만 통일의 미래는 결코 멀어지지 않은거야.

리희호는 조의록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는 영면하시었지만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 하루빨리 민족통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011년 12월 26일 김대중평화센터 리사장 리희호.》

다음날 리희호는 정선일의 바램을 받으며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섰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왔었지만 **김정은**대장님을 뵈옵고나니 한결 기분이 가벼워졌습니다. 그이께 다시 한번 사회의 말씀을 올려주시시오. 영결식을 보지 못하고 가는데 대하여 말입니다....

리희호는 영결식장면을 텔레비존으로 시청할수 밖에 없었다. 가족들외에도 박수원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사람도 우는 평양의 거리를 누비는 령구차행렬... 눈덮인 길우에 깔린 솜옷주단... 언뺨들을 녹이며 흘러내리는 눈물, 눈물들...

리희호는 여직껏 것처럼 많은 눈물을 흘려본 것 같지 않았다. 박수원도 눈물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저 모습들을 두고 감히 〈연출된 모습〉이니 〈강요된 슬픔〉이니 하고 모독하는것은...》

《만반의 대응책》들을 마련해놓고 기다렸건만 단 한건의 자그마한 소요도, 단 한명의 탈북자도 생기지 않는데 악이 발친 리명박패당은 입에서 뱀이 나가는지 구렁이가 나가는지 모르고 이북국민이 흘리는 눈물은 어찌구저찌구 하고 마구 미친소리를 췌쳐댔다.

박수원은 그런자들속에 섞이여 정치를 론하고있다는 자신자체가 역겹기 그지없었다.

령구차가 평양체육관앞을 통과하고있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몸부림치던 군중이 차도에 뛰어들어 령구차의 행렬을 가로막아나섰다. 령구차가 벗어섰다.

《저런!》

머느리가 가벼운 비명을 질렀다.

가족들도 긴장한 눈빛으로 텔레비존화면을 주시했다.

동서고금에 없는 일이었다. 예로부터 령구가 가는 길은 신성하여 나라님도 길을 비켰다던데 백성이 나라님의 길을 감히 막아나서고있었다.

환하게 웃으시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인민들에게 응위되어 가던 길을 멈추고계시었다.

리희호가 앉아있는 삼륜차가 텔레비존화면앞으로 굴러갔다. 그는 자기가 삼륜차의 바퀴를 굴리고있다는것을 의식하지 못하고있었다. 못 가시게 해야 해, 못 가시게...

령구차는 하얀 눈우에 보석처럼 떨어져내리는 눈물을 밟으며 다시 힘겹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랑으로 맺어지고 눈물로 굳어진 저 혼연일체의 모습, 이런 령도자와 인민을 당할 힘이 이 세상에 있을손가....

리희호는 알수 없었다. 길이 막힌 그 령구차의 뒤차에 **김정은**동지께서 타고계신줄을...

그 시각 **김정은**동지께서는 터지는 오열을 삼키며 말씀하시였다.

《이런 훌륭한 인민들을 위하여 나는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땀것입니다.》

×

피눈물속에 2011년이 저물어가고있었다.

김일성광장에 제야의 종소리가 울릴 그 시각이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고계시였다. 그 전날 조선로동당 정치국회의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다.

《우리는 어제 민족의 대국상앞에 저지른 리명박괴뢰패당의 만고대죄를 끝까지 따라가며 결산할것이라는 국방위원회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조국통일을 위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것은 다 용서할수 있어도 우리 인민의 눈물을 모독한 죄만은 용서치 않을것입니다.

눈물의 값은 오직 피눈물로밖에 치를수 없습니다. 력사는 나에게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새해가 밝아온 이른새벽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방크사단을 찾아 떠나시였다. 혁명의 총대에 사랑과 증오를 만장약해주시려...

장군님의 한생—인민

주체100(2011)년 12월 15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광복지구에 현대적으로 꾸려진 광복지구상업중심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찬바람 몰아치는 한겨울의 맵짠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오신 장군님을 우러러 일군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사색에 사색을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몸소 상업봉사기지의 명칭을 인민들이 부르기 편리하게 광복지구상업중심이라고 달아주시였다.

매대들을 하나하나 다 돌아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앞으로 광복지구상업중심과 같은 상업중심들을 더 꾸려놓고 잘 운영하여 우리 인민들에게 좋은 상품이 많이 차례지도록 할데 대하여 간곡히 이르시였다.

갓가지 상품들이 가득찬 매장들을 둘러보시던 그이께서는 광복지구상업중심이 평양제1백화점보다 더 흥성거리게 하기 바란다고 하며 어느 봉사단위가 사람들을 더 끄는가 경쟁해보아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놀랍기도 하고 조바심도 없지 않았다.

이런 심정을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광복지구상업중심과 평양제1백화점이 서로 경쟁하면 결국 인민들에게 더 많은 상품이 차례질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들에게 더 많은 상품이 차례지게 하는 경쟁!

뒤늦게나마 그이의 의도를 깨달은 일군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 우리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과 더불어 경쟁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새겨졌던가.

인민을 위하시는 승고한 사랑을 안으시고 인민봉사기지들을 편이어 찾으시여 은정넘친 경쟁열의를 북돋아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눈시울을 적시였다.

어느덧 시간은 퍼그나 흘렀지만 장군님께서서는 오늘 인민생활향상에 복무하는 새로운 상업봉사기지를 돌아보니 정말 만족하다고, 광복지구상업중심에 상품들을 가득 채워놓은것을 보니 추운 날이지만 마음이 후더워진다고 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였다.

승엄한 걱정애 젖어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절절한 음성으로 자신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그 무엇인가를 해놓았을 때가 제일 기쁘고 인민의 행복과 기쁨속에 바로 자신의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행복과 기쁨속에서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찾으시는 아버지장군님, 바로 그 인민의 행복과 기쁨이 그이의 혁명지론이고 투쟁의 목표였으며 거룩한 혁명생애의 전부였다.

일군들은 감격에 목메어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인민을 위한 상점, 인민을 위한 봉사, 인민을 위한 경쟁.

위대한 장군님의 심중에 짝 찬 인민이라는 이 두글자속에 그이의 불같은 헌신이 집약되어있고 그이의 뜻과 사상의 의지, 신념과 정열 그 모든것이 깃들어있었으니 그렇다, 장군님의 한생—그것은 인민이었다.

가 사

우리 헌법 제일일세

리 계 주

얼싸좋아 복판은 이 땅에
삶의 권리 법으로 지켜주니
절싸좋아 춤노래 넘치고
집집엔 행복이 꽃피었네
수령님과 장군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헌법 세상에 제일일세

얼싸좋아 인민이 누리는
생명재산 법으로 보호하니
절싸좋아 모두가 일하고

마음껏 배우며 살아가네
수령님과 장군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헌법 세상에 제일일세

얼싸좋아 인민을 위한 법
무궁토록 받들어 꽃피가세
절싸좋아 자주의 존엄을
떨치는 이 조선 자랑하세
수령님과 장군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헌법 세상에 제일일세

최고사령관 그에게 거수경례를!

황 명 성

달리는 될수 없는
그것이 오, 그것이
우리의 념원이고 신념이었기에
또 한분의 걸출한 령장
그이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날
나는 두해전 그날처럼 거수경례를 하였다

끓어솟는 격동의 회열이
북받치는 환호의 웨침이
귀밀에 불린 흰서리도 잊고
병사시절로 되돌아가는듯
나는 거수경례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 슬하에서
일찌기 총대와 인연을 맺고
군사를 천품으로 지니신분
슬기론 예지와 비범한 지략으로
이 땅의 천만군사를 통솔하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가 우리의 최고사령관
우리 운명과 삶 투쟁과 전진의 군가인듯
그 부름 온녔으로 새기고 새길수록
크나큰 긍지 축복받은 행운이어

그이를 모시여 나날이 짧아지는 마음
내 다시 병사의 군복 떨쳐입고
지칠줄 모르는 패기와 용맹에 넘쳐
원수벌 찬란한 최고사령관기 날리며

복무의 한길을 걷고싶나니

그 열망이여라
전승 60년의 경축의 광장
승리와 영광의 단상에 오르시여
령장의 미소를 보내시는 그이 향해
《받들어 총!》하는 열병대오와 함께
옛 근위병사 나도 올린 거수경례

그렇다 그것은
최고사령관 그이만을
백승의 기치로 믿고 따르려는
강의하고 순결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열화같이 뿜어나는 흠모와 신뢰의 분출

이 강산에 충정의 대하를 이루는
천만군민의 최대의 경의를 안으시고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민족의 운명과 존엄 세계의 평화와 안정
이 행성의 밝고 창창한 미래를 지켜
천하무적의 강군을 이끄시나니

삼가 드리노라
대원수님들 물려주신 선군의 총대로
김정은원수님을 받들어
혁명의 최후승리를 떨칠 불타는 맹세
엄숙히 옛 근위병사의 이 마음도
결사옹위 철의 대오에 서서 삼가 드리노라
최고사령관동지께 거수경례를!

병사의 공지

리 찬 호

산중에 이름없는 우리 초소는
병사들 몇명 되지 않아라
허나 우리는 엄숙히
지붕우에 높이 최고사령관기를 올린다

2011년 12월 30일
병사들의 경건한 눈길들에 받들려
우리의 존엄높은 최고사령관기가
하늘가에 더 높이 펴려이던 그날

그날에 나는 애어린 신입병사였건만
그때 벌써 그이의 전우가 된줄
그 영광 다 몰랐구나
다만 하늘처럼 그이를 우러렀을뿐

하지만 그이께서 바로 여기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던가
힘찬 나의 보고도 들어주시며
팔을 끼고 사진도 찍으시지 않았던가

병사들을 부탁한다고
지휘관들의 손을 잡고 재삼 말씀하실 때
그이는 최고사령관이시기 전에
가장 친근한 어버이이시였다

꿈만 같이 오시였다
꿈만 같은 사랑을 남기신분
다시 만나자는 약속만 아닌
마음을 초소에 두고가신분

진창물은 신발
비물에 젖은 바지가랭이를 바라보며
우러러 눈물을 쏟으며 목메여 따라선
그분이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시다

신입병사 나를 몸가까이 부르시여

우리는 다같이 장군님의 전사들이라고
우리모두를 전우로 굳게 믿어주신분
그이가 그이가 바로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시다

아, 위대한 **김정은**동지
세상에 가장 위대한분이시건만
병사들과 제일로 가까우신분
그이를 모시여 우리 힘은 강하다

그렇다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우
나는 결코 평범할수 없어라
그 사랑과 믿음 영광을 안고사는 병사
그 어떤 대적도 나를 당하지 못한다

아, 우리에게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

나는 보았다

류 민 호

이 나라 이 땅에서
우리와 제일 가까우시고
일터와 거리 마을들에서
인민들과 가장 친근하신분

늘 인민속에 계시며
인민들과 친근하게 담소하시며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시는분
나는 수없이 보았다

공장구내 일터와
유원지의 젊은이들속에서
빙상장의 아이들과
유치원 물놀이장에서
나는 보았다 친근하신 그이를

서해의 날바다 헤치며
목선을 타시고 섬들을 찾아가시는 모습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병사들과 어떻게 어울리는가를

나는 알았다
우리 원수님과 병사들과 인민들은
정녕 혈육처럼 뗄수 없는것임을!

마식령산발을 들었다놓는
병사들의 일본새
세포등판의 면모를 뒤엎어놓는 그 위력

나는 알았다
우리 원수님의 불같은 열정
우뢰와 번개같은 결단성이
우리 병사들과 인민들의 심장속에
어떻게 뿔뿔고있는가를
나는 정녕 알았다

하늘에 위성을 날리고
최첨단을 돌파해가는 과학자들
그들의 발견과 창조앞에서
나는 똑똑히 알았다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들속에 계신다는
그 무한대한 깊고 넓은 의미를!

오, 우리의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계시여라
인민의 심장속에
우리의 사랑하는 노래속에
우리의 모든 창조와 행복속에
그이가 계심을 나는 보았다

그때문에 그때문에
꿈으로만 그리던 이상도
자신있게 우리 펼치고
만복을 누리며
세계를 딛고 존엄높이 사는것을
나는 오늘에 다 보았다

단 평

태양의 축복받은 조선의 미래에 대한 정서적형상

강 정 심

은 세상을 매혹시키는 위인의 해빛같은 모습이 바로 이 땅 우리 조국땅우에 끝없이 번영할 강성조선의 태일을 안아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문학은 눈부시게 발전하는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시대를 선도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여야 한다.》

은 나라 대가정을 보살펴주시며 꿈같은 행복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노래들에는 우리 인민의 뜨거운 진정이 어려있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따르려는 절절한 소망이 담겨져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작은 목선을 타시고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 장재도를 찾으시여 태어난지 6개월밖에 안되는 어린이를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그리도 환히 웃으시던 원수님!

경상유치원 꼬마들의 소꿉놀이도 다정히 보아주시며 허물없이 이야기도 나누시던 원수님의 그 모습 우러르며 우리모두가 그이 계시여 더욱 찬란할 조선의 미래를 굳게 확신하지 않았던가!

찬란한 조선의 미래를!

《조선문학》주제101(2012)년 11호에 실렸던 서정시 《미래의 문을 여시다》(백하), 《8월의 조선에서...》(김형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미래사랑의 위대한 화폭을 정서적으로 감동깊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고있다.

시들에서는 수령과 아기라는 감동적인 시적세부를 통하여 조국의 미래들과 혈연의 관계로 뜨겁게 이어진, 그로 하여 더욱더 밝고 창창한 조국의 앞날을 실감있는 정서로 노래하고있다.

서정시 《미래의 문을 여시다》는 시적정황에서부터 온 나라 아이들에게 온갖 사랑을 다 부어주시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감격과 걱정, 흠모와 칭송의 감정을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새로 꾸린 경상유치원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아담한 음악실들과 황홀한 놀이장들
희한하고 동심이 넘치는 강당만을
보아주시려만 오시지 않았다
...

비오는 날 한점의 그늘도 없이 밝고 명랑하게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고싶으시여 경상유치원을 찾으신 원수님.

동심이 넘치게 황홀하게 꾸러진 놀이장들을 돌아보시며 그리도 만족하게 웃으시는 우리 원수님.

정녕 원수님께서 아이들의 놀이장만을 보아주시려 그 바쁘신 시간을 내시였던 말인가.

시에서는 감동적인 시적세부의 설정으로 이에 대한 감명깊은 해답을 주고있다.

...

경애하는 원수님

의사놀이하며 청진기를 대고

진찰하는 아이들의 모습 보시고 너무도 기특해

자신의 팔을 걷어올리고 말씀하셔라

—나도 한번 진찰해주시오

...

시는 여기서 수령과 꼬마라는 한계를 넘어 《소꿉친구》가 된 원수님과 아이의 다정하고 친밀한 관계를 세부적으로 감명깊게 형상하였다.

작품은 내 조국의 미래를 활짝 꽃피워주시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의 세계를 순수 걱정만이 아니라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시적세부로 여운이 깊게 형상하였다.

그로 하여 시는 읊으면 읊을수록 한없이 따뜻하고 친근한 원수님의 사랑과 정을 독자들모두가 직접 받아안는듯 한 감동을 주며 원수님의 미래사랑이 더더욱 진실하고 뜨겁게 안겨오도록 하고있다.

서정시 《8월의 조선에서...》도 역시 감동깊은 시적세부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미래사랑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적들과 마주하고있는 최대열점지역에서 부모들조차 불러본지 여섯달밖에 안되는 어린 항명이의 이름을 그렇듯 다정히, 그렇듯 친근하게 불러주시며 아기의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원수님.

바로 그 위대한 사랑속에 이 나라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마련되고 보다 찬란한 조국의 미래가 펼쳐지는것 아닌가!

시에서는 원수님품에 안겨 웃고있는 아기의 모습을 시적세부로 설정하였다.

온 나라를

조국통일성전으로 부르신

그날

그 순간

그이의 품엔
태어나 여섯달된 아기가 안겨 웃고있었다
...

아기의 웃음!
평범한 날에 웃는 아기의 웃음은 기쁨과 랑만을
안겨준다.

하다면 최대열점지역에서 원수님품에 안겨 웃고
있는 아기의 행복한 웃음은 온 세계에 무엇을 보
여주었던가.

시시각각 위험이 따르는 최대열점지역에서 병사
들의 싸움준비상태를 보아주시었다면 그렇듯 감동
적이라!

정녕 온 세계가 아기를 안으신 그이의 모습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미래를 보았으며 그이 계시여
행복할 내 조국의 앞날을 그려보았다.

태어나 여섯달된 아기!

그 아기의 웃음속에 비친 내 조국의 태일은 또 열
마나 아름다울것인가.

더욱더 찬란할 조국의 미래를 소중히 가꾸어가시
는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
는분, 소년단원들을 앞날의 강성조선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주시며 경축행사도 마련해주시고 머나먼 외
진 섬과 두메산골 소년단대표들을 위해 사랑의 비
행기도 띄워주신 우리 원수님, 만경대혁명학원 원
아들의 두볼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손이 언
다고, 장갑을 끼라고 그리도 따뜻하게 말씀하시던
원수님의 모습은 정녕 찬란한 조선의 미래를 안
아오는 이 세상 가장 자애로운 아버지의 모습이
였다.

서정시 《미래의 문을 여시다》와 《8월의 조선
에서...》는 시적세부설정과 함께 극적인 시화폭으
로 절세위인의 후대판, 미래사랑을 정서적으로 감
동깊게 노래하고있다.

가장 뜨겁고 열렬한 원수님의 미래사랑으로 하여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릴 내 조국의 태일이
밝아오는 이 땅, 바로 오늘의 현실은 극적감흥을
안은 시화폭을 낳았다.

원수님의 팔에 손가락을 얹고 제법 맥박을 짚어
보는 꼬마의사...

만사람의 가슴속에 파스함과 친근감을 안겨주는
서정시 《미래의 문을 여시다》의 시화폭!

《나도 한번 진찰해주시오...》

스스럼없이 청진기를 대여보는 꼬마의사에게 원수님
다시금 물으신다. 《그래 어떻게, 무슨 병입니까?》
이 물으심에 그만 두눈만 깜박이는 어린아이, 일군
들도 당황하여 어쩔줄 몰라하는 이 순간—

《그러니 내가 건강하단 말이지.》

사랑이 넘치는 원수님의 음성이 해살되어 온몸에
스며드는 이렇듯 감동적인 시화폭은 보다 극적인
형상으로 더욱더 부각되는것이다.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아이들의 동
심의 문을 여시고 허물없이 소꿉놀이도 하여주

시며 다 자라도 잊지 못할 영광의 순간을 꿈같
이 안겨주시는 이러한 극적화폭으로 하여 시에
서는 내 조국의 미래의 문은 우리 원수님께서 활
짝 열어주신다는 정서적주장을 더욱 뚜렷이 하
고있다.

서정시 《8월의 조선에서...》도 극적대조를 통한
시화폭을 펼치였다.

...

8월의 조선에서...

세계는 보았다

전쟁이란

불과 불의 대결인가?

전쟁이란

사랑과 증오로 원수를 이기는것!

8월의 조선에서...

인류는 들었다

전쟁이란

총포성의 메아리 죽음의 비명인가

전쟁이란

신념의 강자들의 웃음소리

...

8월의 조선에서 불과 불이 오가는 격전을 보
게 되리라고 온 세계가 가슴조이며 바라보았건만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선 태어나 여섯달된 아
기가 안겨 행복의 웃음을 짓는 감동적인 시화폭!

이러한 극적인 생활화폭을 통하여 시에서는 혈연
적관계로서의 수령과 아기와의 불멸의 화폭을 소리
높이 구가하였다.

수령과 아기!

그것은 온 세상과 작은 물방울이라고 할수 있지
만 시에서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곱게 웃는 아기의
행복한 모습을 통하여 정녕 경애하는 원수님이시
야말로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내 조국의 미래를 활
짝 꽃피워가시는 미래사랑의 귀감이시라는것을 뜨
겁게 노래하고있다.

서정시 《미래의 문을 여시다》와 《8월의 조선
에서...》는 읊으면 읊을수록 가슴을 확 달구어주는
뜨겁고도 강렬한 형상적힘을 안고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내 조국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며 조선의 미래는 영원히 빛날
것이라는 굳은 확신의 정서이다.

이 땅에 백화만발하는 조국의 미래를 한품
에 안으시고 사랑과 정을 다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를 우러러 터치는 만민의 칭송은 하늘에 달
고 그이께서 안아오실 조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
신이 신념의 메아리로 되어 이 땅 그 어디서나 뜨
겁게 울려퍼지고있다.

친근하신 그이를 우러러 끝없이 끝없이 울려
퍼질 미래의 노래, 그 또한 얼마나 아름다울것
인가!

가을이 오니

한 옥 란

모내는기계 푸른 주단 펼치던
그 봄날 어제같은데
벌써 가을 가을이 왔구나
바라보기만 해도 흐뭇한 가을

어데서 시작된 황금파도나
두령을 넘어 보도랑을 넘어
이 가슴 흥치며 안기여드는
황금의 파도 이삭의 어리광

나도 그 황금파도에 한껏 잠기고 싶어
너를 한아름 안으니
가슴에 울려오는
이삭의 속삭임 속삭임

—이 좋은 가을날 올긴 왜?
웃으시라요 이 좋은 가을날
오늘위해 바친 낮과 밤이
반들어올린 황금가을 아닌가요...

아 가을이 오니 깊어지는 생각이여
장군님 이제 꼭 오시리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장군님 모시고 꼭 오시리

미곡벌의 풍년작황을 위해
뜨락또르 비료를 보내주시며
미곡벌은 나의 시험포전과 같다고
때없이 찾아주신 장군님

온 나라 농장의 앞장에 세워주시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힘을 주시고
청년분조원들 살림살이도
회상기연구발표모임도 보아주신 장군님

눈이 오면 그 첫눈을 맞으시며
그날처럼 그날처럼 찾아오실듯
멀리서 자동차의 행렬이 나타나면
그날처럼 비료며 농기계를 보내주실듯

아, 그리운
아버이장군님
이 풍요한 가을의 들판에서
낮이나 밤이나 기다리는 우리 마음

알알이 이삭은
여물고 또 여물었건만
평양하늘 우리러 이 시각도 키를 돌구며
기다림에 기다림에 불타는 가을이여

섬초소의 걱정

리 영 일

한해도 못되는 사이에
원수님을 방어대에 두번씩이나 모셨건만
누구나가 가슴속에 그들먹이 차오르는 생각
그이를 다시 뵈웠으면

병사들의 간절한 그 마음 다 아신듯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이른아침 서해의 파도를 헤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섬초소에 오시였어라

잘들 있었느냐고
항명이가 그새 몰라보게 컸다고
두팔벌려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신 그이

이것이 정녕 꿈인가 생시인가

새로 지은 병실이며 살림집들을 돌아보시고
마음에 드는가고 다정히 물어도 주시고
병사들이 교향집보다 더 좋아한다는 보고 들으시고는
그리도 만족해하시는 우리 원수님

섬초소 군인들을 더 잘살게 해주시려던
대원수님들의 소원 또 하나 풀어드리게 되었다고
기쁘시여 기념사진도 찍어주실 때
가슴마다 북받치는 걱정예 목메어
두볼타고 흘러내리는 감격의 눈물이어

병사들을 위해 최고사령관이 있다고
친부모의 심정으로 그리도 마음쓰시며
대원수님들의 사랑 그대로 부어주시는
그런분이시여라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는

어찌 충정다해 받들어모시지 않으랴
어찌 한목숨 바침을 서슴으랴
원수들이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물속천리 불길만리라도 두려움없이
원수님명령따라 최후승리 펼쳐가리라

결사옹위로 뚫어버지는 병사들의 심장의 웨침
노호하는 파도처럼 적진을 삼켜버릴듯
아, 밝아라 따뜻해라
이 아침 우리의 태양은 섬초소의 하늘가에 솟아
3천리강산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어라!

충정의 미소

리 계 심

뵈을수록 따르고싶어
우러러뵈는 이 마음에
홀려드는 사랑의 그 미소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웃으계시네
김정숙어머님
붉은별 빛나는 항일모가 그리도 잘 어울려
그 별처럼 빛나는 눈길
새봄을 아뢰는 진달래인양
기쁨과 희망이 피어나는 그 모습

가난과 천대의 설음을 씻어버리고
총메고 나선 혁명대오에서
태양의 빛발아래 꽃이 피듯
수령님의 해빛아래 피어난 그 웃음

아, 수령님께 충정다하신
하늘의 별무리같이 하많은 이야기
말없는 그 미소에 담으셨으니
그 미소로 헤쳐가신 험산준령
몇천몇만리더냐!

천리길 달려온 숙영의 깊은 밤에도
장군님의 옷을 빨아 품속에 말리시며...
그 모진 철창속에서도
먼 하늘가 사령부를 우러러
피어난 충정의 그 미소

아, 불타는 그 충정이 있어
그 웃음 더더욱 밝고
그 미소로 하늘땅 얼어붙는
고난의 행군길 헤쳐넘으셨어라
사령부를 노리던 적탄도 한몸으로 막아나서신

그 숭엄한 미소를 앗아가지 못했어라

한겨울에도 웃으시면 새들이 날아오고
한겨울에도 웃으시면 강물이 풀려
수령님을 따르는 수천수만리
희망에 넘쳐 걸으셨네
넘고넘으신 험한 산발들에
그 웃음이 어리어있네

그 웃음속엔 시련을 거쳐
수령님께서 그러주신 미래가 있었네
춤추는 아이들의 노래가 있고
어머니들의 행복이 물결치고
가없는 황금들판이 설레고있네

아, **김일성**장군님의 해빛넘친 땅
가슴속에 일어서는 조국의 미래가
그 미소에 비껴
그리도 아름다와라
새 조선의 모습으로 밝게밝게 빛나라

한평생 수령님께 충정다하신
어머님만이 지닐수 있는 그 미소
그 미소는 어제도 오늘도
우리들의 가슴속에 홀려드네

끝간데 모르는 슬기와 용맹
불타는 열정과 강毅한 의지를 모두어
수령님께 충정하라고
영원한 미소를 우리들에게 안겨주시네

주체62(1973).



나의 아버지

홍 남 수
그림 김 광 석

집마당을 나서 걸어가던 옥빈은 무춤 멈춰서며 뒤따라오는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긴 속눈썹아래의 쌍꺼풀진 두눈이 반짝 빛났다.

《아버지, 무슨 생각을 하세요? 늦겠어요.》

전문학교를 졸업한 옥빈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첫 출근을 한다.

《응.》

아버지는 머리를 끄덕이며 옥빈의 몸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다.

옥빈은 느닷없이 자기가 입고있는 탄부제복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의 눈길은 분명히 자기의 탄부제복을 훑어보고있었던것이다. 아버지두 참, 내가 입은 탄부제복이 그렇게도 보기 좋을가?

어제 밤 아버지는 옥빈이가 입고 첫 출근을 할 탄부제복에 눈처럼 하얀 목달개를 제 손으로 달아주었다.

옥빈은 한뼘한뼘 바느질을 하는 아버지의 손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일생 탄덩어리를 만지며 투박하게 굳어진 아버지의 손이 어쩌도 능숙하게 놀려지는지 마치도 수를 놓는 여인의 섬세한 손같았다.

이윽고 목달개를 다 달고난 아버지는 내심 흡족한 표정을 금치 못하며 말했다.

《이젠 된것 같다. 옥빈아, 한번 입어봐라. 음— 옷이 날개라더니… 여보, 우리 옥빈이가 탄부제복을 입으니 얼마나 멋있소. 꼭 당신 처녀시절을 보는것 같구만. 허허.》

탄부제복은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옷이다.

옥빈은 지금껏 아버지가 다른 옷을 입고다니는것

을 별로 본적이 없다. 명절날이라든가 어떤 기회에 어쩌다 다른 옷을 입을 때면 아버지는 불편한듯 궁싯거리며 불안스러워하였다. 그러다가는 종내 탄부제복과 도로 바꾸어입곤 하여 어머니의 지청구를 들은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다.

《당신은 탄부제복밖에 모르니 언제 다른 옷을 입어보겠어요.》

《탄부제복은 내가 일생 입고 살 옷이요. 우리 수령님께서 탄부들이 귀하시여 친히 도안까지 보아주시면서 해입히신 제복이 아니요.》

옥빈이가 중학교(당시)를 졸업하고 석탄전문학교로 가는 길을 택하고 오늘 이렇게 탄부제복을 입은 것도 바로 아버지의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까닭일지도 모른다.

아침부터 태양은 재글재글 쬔었다.

탄광지령실앞에 웅기중기 모여 입궐준비를 하던 사람들속에서 아버지와 딸의 모습을 띄여보았는지 누구인가 계사니처럼 목을 빼들고 옥빈이 아버지한테 말을 건넸다.

《1중대장동무 어깨가 왜 으쓱해졌는가 했더니 딸이 첫 출근을 하는구만. 너무 어깨를 세우지 말게. 우리 아들도 인츰 제대되어오네.》

아버지는 위협하듯 그를 향해 뭉툭한 둘째손가락을 세워보였다. 그리고는 옥빈이에게 나직이 알으켜주었다.

《2갱장이란다. 소문난 익살꾼이지. 옥빈아, 운반갱에도 오랜 탄부들이 많다. 처음부터 그들한테서 착실히 일을 배우거라. 무슨 일이든 첫걸음을 잘 내짚어야 한다. 알겠냐?》

《알겠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3갱쪽으로 걸음을 큼직큼직 내짚었다. 갱입구에서 멈춰선 아버지는 무슨 의미에선지 슬쩍 턱짓을 한다.

옥빈은 아버지를 향해 손을 살짝 흔들어보였다. 아버지는 어느새 갱안으로 사라져버렸다.

옥빈은 한참동안 아버지가 들어간 갱입구를 지켜보며 서있었다. 아버지는 저 갱을 얼마나 나들었을까? 아마 저 갱엔 아버지의 발자국이 무수히 찍혀져있을거야, 셀수없이... 허다면 이제부터 시작될 내 발자국은 얼마나 찍혀지게 될까...

한달후에 옥빈은 전차운전공이 되었다.

탄차를 길게 달고 푸른 섬광을 번쩍이며 내달리는 전차, 바로 그 전차를 안전모뎀으로 빨간 머리스건이 언뜻 보이는 처녀가 몰아간다. 처녀는 노래도 랄랄 부르며 이따금 머리를 내밀고 뒤에 단 탄차가 이상이 없는지 살피도 본다. 처녀의 얼굴엔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과 궁지가 다분히 비껴있어 꽃과 같이 환하다...

옥빈은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상상해보곤 했었다. 드디어 그 꿈이 실현된것이다.

아버지는 석탄을 많이많이 캐세요. 그러면 제가 제껴제껴 실어내어 저탄장에 높이 쌓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탄을 캐는지 사람들이 모두 알게 하겠어요... 옥빈은 날마다 전차를 몰아가며 이런 속대사를 마음속으로 굳히곤 하였다.

옥빈은 아버지네 중대의 탄을 나를 때에는 탄차 하나라도 더 끌어내려고 남몰래 원심을 쓰곤 하였다. 어떤 날에는 아버지의 귀에 대고 다른 중대의 비밀도 알려주곤 하였다.

《아버지, 3중대는 벌써 30광차를 꺼냈어요. 아버지네는 다섯광차나 떨어졌어요.》

아버지는 딸의 등을 두드려주며 한층 즐거워하였다.

《3중대에 가서 말해줘라. 좀더 힘을 내지 않으면 우리 중대가 따라잡을수 있다고. 허허.》

옥빈은 아버지의 팔에 매달리며 어린아이마냥 발을 동동 굴렀다. 아버지가 다른 중대에 떨어지는 것이 싫다고, 아버지네는 탄광의 기둥중대가 아닌가요? 하면서...

《우리 옥빈이가 언제 이런 리기주의자가 되었을까?... 옥빈아, 3중대도 또 다른 중대도 탄을 많이 캐서 발전소에 보내면 그만큼 전기가 팡팡 나오고 전기가 많이 나오면 우리 생활이 더욱 좋아질게 아니냐?》

옥빈은 아버지의 팔을 뺏개치듯 놓았다. 난 속상해서 그러는데... 아버지두 참, 명예를 어떻게 나누어가질수 있담?

그전에는 다 물랐는데 함께 일하며 지켜보느라니 아버지는 자기한테 차례지는 좋은 일도 다른 사람들과 양보하는 때가 많았다. 그렇게 다 양보하면

아버지한테 남을것이 뭐란 말인가?...

조구통으로 탄이 좌르르 쏟아져내리는 소리에 옥빈은 옷몸을 내밀고 뒤를 돌아보았다.

안전등빛으로 광차에 차오르는 탄을 비쳐보던 아버지가 광차안에서 무엇인가 두꺼비 파리잡듯 땀을 잡아쥐었다. 채탄장쪽에 대고 소리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갱안을 찌렁찌렁 울리었다.

《여, 2009년! 웬 버력이 섞여있어?》

아버지는 중대원들을 찾을 때에 그들이 제대되어 탄광에 온 년도를 이름자대신 부르는데를 더 즐겨하였다. 이제는 아예 그것이 입에 붙어 굳어져버렸다.

채탄장쪽에서 인차 대답이 들려온다.

《탄짚에 끼워있었습니다. 탄질은 최상급입니다.》

《버력이 한덩이라도 섞이면 안돼. 옥에 티처럼 생각해야지.》

《명심하겠습니다. 중대장동지, 소뿔은 단김에 뿔으랬다구 아예 오늘 계획을 끝내고 한숨 돌립시다.》

《옥심이 발전소굴뚝같군. 아무튼 한발과 더 하자구.》

아버지는 채탄장쪽으로 혈금씨금 올라간다. 그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회안탄광의 채탄중대장들은 거의다 팔팔한 젊은 사람들이고 원고개를 넘긴 중대장은 아버지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옥빈이가 보건대 아버지는 탄광에서 손꼽히는 사람이었다.

언제인가 부임되어온지 얼마 안된 연합기업소 책임비서와 탄광지배인이 아버지에게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다고 한다.

...

《책임비서동지, 그는 20년동안 채탄중대장을 해오면서 계획을 못해본적이 없습니다. 그 중대는 회안탄광의 기둥중대입니다.》

《난 연합기업소에 갓 오다보니 매 탄광들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오. 하지만 그 중대 이야기는 들은적이 있소. 연합기업소적으로 기둥중대라고 하더구만. 헌데 그 중대장이 신경통으로 허리를 자주 앓는다면? 지배인동무가 자기 욕심만 채우면서 사람을 아끼는 마음은 부족한것 같구만. 그런 사람을 막장에 들여보내다니...》

《책임비서동지, 사실은 그런게 아니라...》

지배인은 몇마디 하다가 말끝을 얼버무렸다.

옥빈의 아버지는 고난의 행군시기에 부족한 전기사정으로 갱이 물에 잠기곤 할 때마다 물속에 들어가 탄차를 밀고나오곤 했던 후파로 허리에 신경통이 와서 얼마동안 병원신세를 진적이 있었다. 그후 아버지는 갱에 들어갈 형편이 못되어 중대를 다른 사람한테 인계하고 공무원직장으로 옮겨앉았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지배인이 지나가다 들렀노라며 아버지를 찾아왔다. 한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흥심없이 늘어놓던 지배인은 《아직 몸이 썩 좋지 않겠지?》하고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그리고는 어깨춤을 내쉬었다.

아버지는 지배인의 생기없는 얼굴을 피끗 쳐다보았다.

《1중대때문에 그러나?》

지배인은 대답을 않고 담배를 피워물었다. 사실 그때 지배인의 머리속에는 1중대에 대한 생각이 착잡하게 엉켜있었다.

옥빈의 아버지가 중대장사업을 인계한 후 탄광의 기동중대라 떠받들리던 1중대의 석탄생산실적은 날이 갈수록 하강선을 긋고있었다.

그리하여 며칠동안 생각을 굴리던 끝에 아버지를 찾아온것이였다.

지배인은 힘들게 말머리를 꺼냈다.

《자네도 탄광일이 힘과 열성만으로 될수 없다는걸 알지 않나. 중대장은 아직...》

옥빈의 아버지는 반갑게 나왔으며 말을 받았다.

《아닌게아니라 난 다시 갱에 들어가고싶어 몸살날 지경이네. 바깥일은 정말 내 몸에 맞지 않는구만.》

정작 아버지가 선뜻 응하자 되려 지배인이 망설이였다.

《갱에 꽤 들어갈만 한가? 집사람은 자네 허리병이 채 낫지 않았다고 걱정하던데...》

《신경통이야 그런거지. 보라구, 지금 이렇게 시시편편하지 않나. 날 다시 중대에 보내주게. 응? 내가 가서 탄 한삽이라도 더 캐수 있다면 말일세.》

지배인은 피우던 담배를 비벼끄고나서 아버지의 손을 잡아쥐었다.

《그럼 다시 중대로 가주게. 자넨 잃었던 중대의 명예를 다시 회복할거네.》

지배인의 믿음에 찬 시선은 오래도록 아버지의 얼굴에 머물러있었다....

30분도 채 안되는 사이에 10개의 광차에는 탄이 가득가득 실려졌다. 아버지가 채탄장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오더니 옥빈에게로 다가왔다.

《옥빈아, 나갔다가 빈차가 있으면 있는대로 다 달고 들어오너라. 수리해놓은게 있을게다.》

《그렇게 하겠어요, 아버지.》

옥빈은 서둘러 전차에 올랐다. 빈차를 빨리 끌어다주자, 빈차만 있으면 탄은 얼마든지 실어낼수 있고 그러면 3중대를 능히 따라앞설것이다.

얼마쯤 전차를 물고가던 옥빈은 운전칸에서 머리를 내밀고 갱안쪽을 돌아보았다. 아버지는 안전등을 머리위로 높이 쳐들고 옥빈이쪽을 비추주고있었다.

옥빈은 하루일과의 첫시작을 지령실앞에 세워놓은 경쟁도표판을 들여다보는것으로 떼군 한다.

도표판에는 채탄중대별 석탄생산실적이 붉은 줄로 표시되어있다. 아버지네 중대의 붉은 줄은 월초부터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고있었다. 한주일동안에 벌써 월상순계획의 70프로계선을 돌파하였다.

그런데 어제부터 그 붉은 줄이 1갱 3중대에 놀리워 올리출넘을 못한다. 1갱 3중대는 아버지네와 항상 어깨다툼을 하는 중대였다. 탄광에서는 이 두개 채탄중대를 쌍두마차라고 부른다.

제대군인출신인 3중대장도 아버지 못지않게 갱일에 눈이 밝았고 중대를 통솔하는 능력도 있었다. 아버지와 좀 다른것이 있다면 남달리 승벽심이 세다고 할지...

언제인가는 월생산총화에서 아버지네한테 3톤이 모자라 뒤졌다는것을 알고서 총화가 끝난 후 곧장 갱에 들어가 석탄을 캐서 그 3톤을 마저 채웠다고 한다. 그런데 아버지는...

...넌 어째서 그렇게 앉아몽개니? 일어설 힘이 그렇게도 없니?... 옥빈은 애꿎은 아버지네 붉은 줄을 탕했다. 붓에 빨간 색감을 듬뿍 찍어 아버지네 도표를 북북 올려주고싶었다. 아버지네 2소대장이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옥빈의 속이 지금처럼 타들지 않았을것이다.

이틀전이었다.

조구통으로 쏟아지는 탄을 한줌 집어 찬찬히 들여다보던 아버지는 서둘러 채탄장으로 올라갔다.

《2소대장, 작업을 중지하고 소대를 철수시켜야겠소. 보라구, 가까운데 물동이 있는것 같소. 심상치 않은걸...》

《물동이 터지면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중대장동진 그 일에 귀신인데...》

2소대장은 아버지가 내미는 탄을 애당초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웬간한 물동이 터지면 손쉽게 잡아놓는 묘리를 알고있다. 그래서 2소대장은 아버지를 믿고 배심이 든든해하는것이였다.

아버지는 갱안일에는 막히는데가 없다. 어데는 몇미터 굴진해야 착탄(탄을 찾아내는것)이 될수 있다는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또 갱안의 공기흐름을 가늠하여보고 어느 위치에 지압이 온다는것을 제때에 포착하고서는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도 하였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소대를 철수시키요. 내 기술파에 가서 다시 확인해보겠소. 도면에는 물동위치가 없었던것 같은데...》

《그러지요.》

2소대장은 전성 대답하였다. 그러나 좋은 탄밭을 버리기가 아까와 아버지가 나간 잠에 한발과 또 때렸다. 끝내 일은 터지고야말았다. 예상외로 큰 물

동이 터지며 채탄장을 쓸어버렸다. 하마트면 인명 피해까지 생길뿐 하였다.

소식을 듣고 천방지축 달려온 아버지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서 마음이 괴로운 나머지 눈을 꼭 감아버렸다. 이마의 두줄기 주름살이 더욱 두드러졌다.

2소대장이 비척비척 다가왔다.

《중대장동지, 절 처벌해주시시오. 중대장동지의 말을 새겨들었더라면... 예익.》

2소대장은 주먹으로 갱벽을 팡 때렸다.

순간 눈을 번쩍 뜬 아버지가 격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무슨 객기요? 그럴것 없이 이마를 갱벽에 받고 죽는편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배짱은 없을테지?》

《예?》...

결국 아버지네는 그 후파를 수습하느라고 3중대에 놀리웠던것이다.

옥빈이 생각에 움해있는데 1갱입구에 교대를 마치고 나오는 3중대원들이 나타났다.

《?...》

옥빈은 그들의 눈에 뜨이는것이 싫어 도표판뒤로 얼른 숨어버렸다.

머들쩍하며 걸어오던 그들은 도표판앞에 멈춰섰다. 아니나다를까 그들중 한사람이 아버지네 이야기를 꺼내었다.

《1중대가 오늘 실적이 없는걸 보니 아직 채탄장을 복구하지 못한것 같구만. 경쟁자가 없으니 적적한걸... 지금껏 재미나게 경쟁을 했는데...》

《아무튼 이번엔 1중대를 어깨달기시켜야 해. 이 달에는 1중대가 우리 중대를 축하해줄수밖에 없겠는걸...》

옥빈의 마음속에서 흥분이 바글바글 끓는다. 툭 튀어나가 따벌처럼 쏘아주고싶은것을 가까스로 억제했다. 물동이 터지지 않았으면 3중대는 어림도 없었을걸요....

그날 저녁 퇴근하여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가 부엌바닥에 내려서서 동자질을 하고있었다. 옥빈의 두눈은 대뜸 깔끔해졌다.

《어머니! 부엌널마루를 종내 2소대장네 집에 깔아주었나요?... 말썽만 일으키는 2소대장이 뭐가 곱다구 아버지인 그저...》

...《여보, 당장은 좋은 판자가 생길것 같지 않구만. 우리 부엌마루라도 2소대장네 집에 깔아주지요. 임신한 새색시가 부엌을 오르내리자니 오죽 힘들겠소.》

오늘 아침 집을 나서면서 아버지가 한 말이였다....

어머니는 토달거리는 옥빈의 말을 웃음으로 넘기며 대꾸했다.

《2소대장이 어쩔다구... 아버지인 그가 중대의 기둥이라면서 칭찬만 하더라.》

옥빈은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구새먹은 기둥이에요. 난 그가 정말 미워요.》

이때 밖에서 귀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중대장아바이 계시나요?》

옥빈은 얼른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마당에는 아버지네 중대원인 광철의 안해 정심이가 서있었다.

《정심언니구만요. 들어오세요.》

《아니, 아버지를 만나러왔어. 계시니?》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호—》

정심은 어깨를 처뜨리며 가느다란 숨을 내쉴다. 이때 마침 아버지가 대문안으로 들어섰다. 정심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마침 왔구만. 그러지 않아도 건너가려던 참인데. 세대주가 앓는다더니 좀 어떤가?》

정심은 아버지의 눈길을 피하듯 얼굴을 숙이더니 또다시 한숨을 내쉴다.

《왜 그러오? 집에 무슨 일이 있었소?》

아버지는 정심이가 우연한 걸음을 하지 않았다는것을 느꼈는지 다우쳐물었다. 정심은 한참후에야 찾아온 사연을 자초지종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정심의 남편 광철은 요새 이틀째 련합기업소로 동파를 오르내리고있다고 한다. 새벽에 집을 나섰다가는 밤이 되어서야 돌아오곤 하였다.

정심은 남편이 무슨 목적으로 자기를 숙이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다니는지 모르지 않았다. 엇저녁도 광철은 날이 어두워서 집에 들어섰는데 별스레 기분이 좋아보였다. 정심은 더이상 눈감고있을수가 없어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이젠 탄광을 떠날 준비가 끝났어요?》

《무슨 소리요? 아닌밤중에 흥두깨라더니...》

광철은 시치미를 뻘뻘.

정심은 입술에 뽕소를 떠올렸다.

《저에게까지 아닌보살할 생각인가요? 쓸데없는 생각은 그만두세요. 우릴 한집안식구처럼 대해주는 중대장동지가 알면 얼마나 섭섭해하겠어요.》

광철은 더이상 숨길수가 없었던지 그럴듯한 말로 변명했다. 나도 탄광이 싫어서 뜨겠다는것이 아니다. 탄광이 싫다면 내가 왜 왔겠는가. 정심이도 알지만 난 외아들이다.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한다. 그런데 어머니는 고향을 뜨지 못하겠다고 한다. 그러니 정심인 불가피한 내 사정을 리해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한때 즉흥적인 결심으로 탄광으로 자원해오는 청년들의 물결에 휘말려온 광철은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떠나올 때의 흥분과 열의가 사그라지기 시작하자 자기가 서둘러 결심을 내린것을 후회하기 시작하였다. 광철은 자기가 설 자리는 탄광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렇다고 어디에 서야 한다는 명백한 대답을 찾은것은 아니였지만 어

줬든 탄광은 뜨고싶었다. 그런데 탄광을 떠나도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남기고싶지 않아 어머니를 방패로 내세운것이였다.

《당신은 단지 그래서가 아니예요. 본심은 그게 아니예요. 입밖에 내어 말하면 내자신이 루추해질 것 같아 꼬집어말하지는 않겠는데 가겠으면 혼자 가세요. 전 탄광을 뜨지 못하겠어요.》

《뭐라구?》

광철의 얼굴색이 새파래졌다. 그는 황소숨을 쉴 쉴 내쉬다 뻔듯이 말하였다.

《맘대로 하오. 정심이가 못 가겠다면 나 혼자서라도 가겠소. 난 이미 결심했으니까.》

《뭐라구요?》

정심은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져 몸을 비칠했다....

《중대장동지! 그를 좀 타일러주세요. 제 말은 듣지 않아도 중대장동지 말은 들을겁니다.》

정심의 두눈에 눈물이 그렇그렇 차올랐다.

《가자구.》

아버지는 불시에 격한 감정이 솟구친듯 제 먼저 집대문을 나섰다.

옥빈은 아버지의 뒤를 타박타박 따라가는 정심의 뒤모습을 측은한 눈길로 바라왔다.

옥빈은 정심을 친언니처럼 따라왔다. 랑부모가 없는 정심이가 합숙생활을 하면서 옥빈이네 집을 친척집처럼 다녔는데 그때 옥빈이와 자매간처럼 가까워진것이다. 나이가 찬 다음에는 아버지가 자기 중대원인 광철이와 가정을 이루어주었다.

그런 정심이와 광철의 불화를 알게 되니 옥빈은 자연히 생각이 깊어졌다.

아버지는 늘 광철이를 칭찬해왔다. 리상도 높고 앞으로 탄광의 기둥감이 될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째서 오늘날엔 그처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인가?! 아버지가 사람을 잘못 보았을까?...

그날 밤이 깊어서야 아버지는 돌아왔다.

아버지의 인상은 침침했다.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에 앉아 말없이 식사하던 아버지는 종내 몇순가락 뜨는등마는등하고 물러났고말았다.

옥빈은 정심이네 일을 묻고싶었으나 쓸데없는 참견인것 같아 꼭 참았다. 그리고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들고보던 소설책에 눈길을 떨구었다.

(에이, 오늘 아버지 다 주무셨구나.)

정말로 아버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옥빈은 결파라 마음이 싱숭생숭해져 몸을 뒤척거렸다. 어쩐지 아버지네가 지금껏 지켜오던 기둥중대의 지위가 뒤전으로 밀려날것만 같은 위구심이 갈마들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중대를 위해 바친 아버지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것이며 아버지의 존재도 희미해질것이다.

위구를 안고 바재이는 옥빈의 마음을 달래듯 우중충한 밤하늘에 보석처럼 뿌려진 별들이 쉬임없이 반짝이였다.

×

...

전차공처녀야 노래일랑 아껴라

혁신자 앞가슴에 꽃다발만 안겨주라

...

옥빈은 요즘 《처녀시절》의 노래구절을 자주 부르는 한다.

채탄장을 복구한 아버지네 중대는 드디어 제일 앞서나가던 3중대를 따라잡았다.

옥빈은 회안탄광에서 아버지네가 무시할수 없는 중대임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 그럴수록 아버지에게 대한 남다른 긍지감을 더욱 느끼었다.

옥빈은 아버지의 명예를 귀중히 여기는터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집안의 기쁨이고 자랑이기때문이었다. 옥빈은 아버지에게 미구하여 알수 없는 큰 기쁨이 찾아올것만 같은 생각에 때없이 마음이 부풀곤 하였다. 그것이 무엇인지...

기울앞에 서서 옷차림을 살펴보고난 옥빈은 집을 나섰다.

오늘부터 9월 첫 전투에 들어간다. 이제 한주일을 보내면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이하게 된다. 온 탄광이 공화국창건기념일전으로 월상순계획을 끝내려고 부글부글 끓었다.

옥빈이가 걸음을 다우치고있는데 방송선전차에서 전달 채탄중대별 석탄생산실적과 순위를 알리는 방송원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었다.

들어나마나 아버지네 중대가 1등일것은 뻔했다. 허나 옥빈은 귀를 강구었다.

《?...》

옥빈은 그만 돌미룩처럼 한자리에 굳어지고말았다. 자기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방송선전차에서 부른 순위는 1갱 3중대가 1등이었던것이다.

그럴수 없어, 절대로 그럴수 없어... 옥빈은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방송선전차로 달려가 막 항변할 생각까지 하였다.

이때였다.

《옥빈아, 너의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많더니 젊은 중대장들한테 앞자리를 빼우는구나.》

옥빈은 뺨 고개를 돌리었다. 3갱에서 압축기운전공을 하는 중학동창생이었다.

옥빈은 속눈섭을 바르르 떨며 그의 얇은 입술에 눈총을 쏘았다. 그러지 않아도 바글바글 끓던 찰나라 옥빈이 그에게라도 화풀이를 하려고 막 입을 벌리는데 함께 오던 처녀가 그의 팔을 툭 쳤다.

《애두 참, 넌 잘 모르는구나. 그건 옥빈동무 아버지가 스스로 1등을 양보한거야. 옥빈아, 너 알고있니? 너의 아버지 중대에서 버력이 섞인 탄을 어물쩍해서 실적으로 잡았다. 1소대장이 그랬다던지.

그래서 후에 너의 아버지가 그걸 알고 지배인을 찾아가 자기 비판을 했다는구나.》

아버지는 신경통이 도져 며칠동안 출근을 못했었다. 아마 그동안에 그런 일이 있는 모양이다. 설사 그렇다 한들 그렇게까지 문제를 로출시키고 자기 자신까지 괴롭힐 필요가 뭐람. 아버지도 참... 소대장을 엄하게 비판해서 다시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면 될 일이 아닌가...

옥빈은 무엇에 꼭 떠밀리운듯 총총히 걸어갔다. 마침 아버지가 지령실에서 나와 갱쪽으로 가는것이 보였다. 옥빈은 빠른 걸음으로 아버지를 뒤쫓아갔다. 아버지는 인기척을 느낀듯 뒤를 돌아보았다. 부지중 옥빈의 두눈에 눈물이 펴고 여울랐다.

《아니, 옥빈아! 너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냐?》

아버지는 웬일인듯싶어 눈을 크게 뜨며 다우쳐 물었다.

《아버진 어째서 중대의 명예를 내던졌나요? 예? 그건 중대의 명예이자 아버지의 명예가 아니나요?》

볼썽 튀어나온 옥빈의 목소리는 울먹울먹하며 떨리었다.

아버지는 모든것을 짐작한듯 묵직한 손을 딸의 어깨우에 얹었다.

한동안의 침묵이 흐른 후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하듯 또박또박 말하였다.

《옥빈아, 명예는 남모르게 찾아들어야 빛이 나고 더 값있는것이란단다. 탄은 명예보다 더 무겁다. 그래서 아버지는 명예보다 탄을 먼저 생각하는거다.》

옥빈은 머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그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싶지 않았다. 석탄을 캐기는 쉽지만 명예를 얻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아버지는... 옥빈은 아버지의 팔을 대구 흔들었다.

《아버지네는 탄광의 기동중대가 아닌가요? 이 건 잘못된거예요. 내가 지배인아버씨를 찾아가겠어요.》

옥빈은 껍 돌아섰다.

《게 섰거라!》

아버지의 성난 목소리가 옥빈의 뒤머리를 후려치는것 같았다. 옥빈은 무춤 멈춰섰다.

저벅저벅...

여느때없이 아버지의 발자욱소리가 갱안을 크게 울리며 다가왔다.

아버지는 뿔로통해있는 옥빈에게 무엇인가 말하려는듯 막 입을 떼다가 후- 무겁게 숨만 내쉬었다.

《그럼 못 쓴다. 가봐라.》

옥빈은 입에 자물쇠라도 채운듯 온종일 말없이 기계적으로 전차만 운전하였다.

결국 옥빈의 위구심이 현실로 된것이였다. 아버지네는 더는 기동중대가 아니다. 그것도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서가 아니라 아버지스스로가 그것을 포기해버린것이다. 생각할수록 옥빈은 아버지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았고 억울하기만 하였다.

교대를 마치고 갱에서 내려오던 옥빈은 저란장쪽으로 나진 길로 꺾어들었다.

저녁어스름이 사위를 뒤덮고있었다.

얼마쯤 가노라니 저쯤 앞에서 두사람의 형체가 우줄우줄 움직이고있었다. 두런두런 말소리가 귀익어 들어보니 아버지와 지배인이였다.

알지를수도 없어 뒤에서 걸음발을 늦추는데 지배인의 말이 옥빈의 귀에 들려왔다.

《오늘 연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 토의가 있었네. 도에서 열리는 석탄부문일군열성자회의에 자네가 참가하게 되었다누만. 경험토론도 해야 한다니 준비를 잘하게.》

《뭐라구?!...》

옥빈의 아버지는 똑 멈춰섰다. 그리고는 완강한 어조로 말하였다.

《아니, 그건 안되네. 내가 무얼 한게 있다구...》

그 말을 지배인은 서둘러 부정한다.

《채탄중대장 20년 년한이 좀 적나. 그 기간에 탄은 얼마나 많이 캐나. 그리고 자네네야 연합기업소적인 기동중대가 아닌가.》

옥빈은 은연중 귀가 솔깃해져 아버지의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한참후에야 생뚱같이 다른 말로 대답한다.

《여보게, 지배인. 날 2중대로 보내주게. 중대장이 아니라도 좋네.》

《?!》

옥빈은 그만 놀라움과 실망으로 온몸이 차갑게 식어버리는것 같았다. 표현하기 어려운 실망이 옥빈의 온몸을 휩싼다. 그는 돌부리에 발이 걸려 몸을 비칠했다. 옥빈이가 아버지한테서 듣고싶었던 말은 그것이 아니었던것이다.

《자네가 2중대로 가면 나도 한시름 놓지. 하지만 아깝지 않나, 모든것이...》

지배인도 옥빈의 심정과 마찬가지로인 모양이다. 옥빈이가 하고싶었던 말이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무뚝뚝하니 대답하였다.

《그 모든것이란 말속에 2중대 일도 넣고싶네.》

지배인은 아버지에게 더 다른 말을 하고싶지 않은지 잠자코있었다.

《그때 가면 중대는 누구한테 인계하겠나?》

《2소대장한테 맡기겠네.》

아버지는 짤막하게 대답했다.

지배인은 머리를 끄덕일뿐 더 묻지 않았다.

《그 문제는 내 좀더 생각해보겠네.》

지배인은 행정청사쪽으로 발길을 돌리었다.

옥빈은 망연한 자세로 아버지의 뒤모습만 바라보고 서있었다.

정말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버지에 대한 실망에 실망만 덧쌓인다.

아버지가 정말 원망스러웠다. 지금껏 품들여 심혈을 기울여온 중대를 내놓고 다른 중대로 가려는 아버지를 이해할수가 없었다. 2중대는 탄광에서 제일 약한 중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왜?... 혹시 아버지가 그 일때문에?!...

...며칠전이었다.

저녁에 아버지를 찾아온 2중대장이 이틀만 채탄장을 빌려달라고 성화를 먹이었다. 아버지는 아연하여 단마디로 거절했다.

《안돼!》

하지만 2중대장은 비위살이 여간 아니었다.

아버지는 성이 나서 그를 욕했다.

《동문 제정신이요? 남의 터밭에 들어와 농사를 짓겠다는건가? 월계획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내 언제부터 동무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탄도 우격다짐으로 캐는게 아니요. 중대장은 소대장이나 일반 중대원들과는 달라야 하는거요. 동무한테는 그게 부족한것 같소.》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중대장동진 탄광에서 20년이나 일했지만 저야 아직 풋내기가 아닙니까. 저도 힘에 부칩니다. 그러지 말고 차라리 중대장동지가 우리 중대까지 다 맡아주십시오. 전 마음편히 탄이나 캐게... 중대장동지, 이웃끼리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정말 우리 채탄장에서 월계획수행이 내다보이지 않아 그렇습니다. 제 신세값음을 꼭 하겠습니까.》

《꿈도 꾸지 말게.》

아버지는 더 듣기 싫다는듯 돌아앉았다. 2중대장은 어깨를 푹 떨구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할수 없군요. 2중대는 1중대를 위해 달마다 박수만 치겠습니다.》

...

그러니 아버지는 2중대의 일이 마음에 걸려 내려가지 않는 모양이다. 옥빈은 천천히 걸음을 떼었다. 도대체 아버지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옥빈은 무척 그것이 알고싶었다. 아버지를 따라잡아 옆에 나란히 섰다.

아버지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리더니 《옥빈이냐?》 하고 반가움을 나타냈다. 그리고는 옥빈의 어깨를 다정히 짊어고 걷기 시작했다.

이때 누구인가 터벌터벌 그들을 따라오는 발자욱 소리가 들렸다. 2소대장이었다. 그는 아버지곁으로 다가오며 성급히 물었다.

《중대장동지, 광철이가 탄광을 떠나갔다는게 사실입니까?》

《...》

《중대장동진 그가 술가도주할 작전을 한다는걸 알고있었다더군요. 왜 그냥 놔두었습니까? 나라면 움쩍 못하게 정경이라도 분질러놓겠습니다.》

2소대장은 《술가도주》라는 어마어마한 말까지 써가며 격분해서 말이 아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2소대장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듯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광철이네는 어제 밤에 소리없이 떠나갔다. 그것을 어머니밖에는 누구도 몰랐다. 정심이가 어머니에게 편지를 주고 떠났던것이다.

어머니는 그 편지를 오늘 아침에야 일 나가는 아버지한테 보였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들을 떠나보 내기라도 한듯 몸을 웅크리며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중대장아바이, 이렇게 편지 한장만 남기고 떠나갑니다. 어찌겠습니까. 그저 남편을 붙잡지 못하는 제자신을 원망할뿐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마음속 고충을 겪게 되는것이 불가피한 일인지... 중대장아바이도 아시다싶이 저의 아버지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탄광에서 순직한 사람입니다. 전 아버지처럼 일생 탄광에 뿌리를 내려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할 결심이었습니니다. 그래서 탄부제복을 입은 그를 사랑하게 된것입니다. 전 오늘에야 탄부제복을 입었다고 다 탄부가 될수 없다는걸 알았습니다. 전 어쩌면 좋을가요...》

2소대장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울화를 탕탕 터뜨린다.

《중대장동지, 제가 그를 데려오겠습니다. 오지 않겠다면 목덜미를 잡아서라도 끌어오겠습니다. 이건 우리 중대의 수치입니다. 이래가지구야 우리가 어떻게 기동중대의 자리를 고수하겠습니까?》

《2소대장동지!》

옥빈은 2소대장을 아니꼽게 쳐다보았다. 그러지 않아도 그 일로 마음이 괴로울 아버지인것이다. 아버지는 잠자코 걷기만 했다.

《우리가 기동중대란 말이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2소대장동무, 난 사람들이 우리를 기동중대라고 부를 때마다 생각이 많더구만. 동문 우리가 기동중대구실을 했다고 생각하냐? 탄이나 남들보다 몇십 더 캐고 계획을 한다고 해서 기동중대가 된다면 난 정말 부끄럽네. 우리가 몇몇한 기동중대로 되자면 매 사람이 다 마음속에 진정한 애국심을 간직하고 그 기초우에 자신들을 세워야 하네. 그래야 탄광을 떠받드는 진짜 기동중대라 말할수 있지.》

《아니?!》

멈칫했던 2소대장은 잠시후 아버지의 보폭과 스텝적 걸음을 맞추었다.

아버지의 말은 옥빈의 마음속에도 잔잔한 메아리를 일으켜주었다.

밤...

옥빈은 알수 없는 꿈을 꾸다 잠을 잤다.

아래방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지금이 몇시인데 아직 자지 않을까?

《아무래도 내가 광철이를 찾아가 봐야 할 것 같소. 결집에 그를 내버릴 생각을 했었는데. 후-》

《깁에도 힘들게 올라가면서 몇백리 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정심이도 만나볼 겸 제가 갔다 오겠어요. 임신한지 몇달 되었는데 차를 타고 가며 다른 일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정심이가 그런 몸이었소? 난 그걸 몰랐구만.》

《당신이야 탄밖에 더 알아요?》

옥빈은 눈을 감아버렸다.

차라리 광철이가 오지 않았으면... 그런 말썽 꾸러기가 없으면 아버지네 중대는 정말로 생신해질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 광철이를 따라간 정심이도 리해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할가?...

×

아버지는 얼마동안 집을 떠나게 되었다.

나라에서는 경치좋은 서해지구에 로동자휴양소를 몇들어지게 새로 건설하였는데 아버지가 첫 입소자들중의 한사람으로 가게 된것이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입고갈 새옷을 마련하였다. 이번만은 아버지한테 탄부제복이 아닌 다른 옷을 입혀보낸다면... 떠나기 전날에 아버지는 어머니가 마련한 새옷에 하얀 사썸을 받쳐입고 넥타이까지 매보았다.

《어마나?!》

옥빈은 두손을 짝- 하고 마주치며 반짝이는 두눈을 아버지의 얼굴에서 떼지 못했다. 몇년은 펍 째어보이는게 옷이 참 잘 어울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탄부제복을 입고 떠나갔다. 어머니가 품들어 마련한 새옷은 또 그대로 옷장속에 들어갔다.

옥빈은 어머니의 한가닥 소망마저 뿌리친 아버지가 야속하게 생각되었다. 하지만 인차 아버지를 리해하였다. 옥빈은 휴양가시는 아버지가 그저 기쁘고 고마왔던것이다.

지금껏 일만 일이라며 차례지는 혜택을 다 양보하던 아버지가 이번에만은 선선히 승낙을 하였다. 어찌된 일일까? 이젠 아버지도 늙으신 모양이다 하고 생각된 옥빈으로서는 마냥 기쁘기만 했다.

아버지는 떠나면서 로동자휴양소와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광철이네 집을 찾아가보겠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휴양가시면서도 일거리를 잡네, 참... 혹시 그래서 선뜻 휴양을 갔는지도 몰라. 속으로 토달거리면서도 옥빈은 어쨌든 기뻐다. 한편 옥빈은 광철이가 중대에 돌아오는것이 달갑지 않았다. 아버지는 중대의 영상을 흐려놓고 가버린 그를 어째서 한사코 데려오려는지...

아버지를 떠나보낸 후 옥빈은 하루하루가 즐겁기만 하였다.

아버지가 이제 휴양갔다 오시면 도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가하여 경험토론을 하시겠지. 그러면 아버지네 중대가 온 나라에 소문나게 될거야.

한생을 말없이 수직수직 탄전에 바쳐온 아버지가 드디어 영예의 단상에 오르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옥빈의 마음은 환희로 날아갈듯 하였다. 빨리 집으로 가 어머니와 이 기쁨을 나누고싶었다.

옥빈은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아직 한시간은 더 있어야 퇴근할수 있었다. 옥빈은 한시바삐 이 기쁜 소식을 어머니에게 알려주고 싶어 마음이 조금해졌다.

불현듯 언제인가 어머니한테 10년이나 나이차이가 있는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데고 묻던 일이 생각났다.

어머니는 봉싯한 입술에 웃음을 담고 이렇게 대답했었다.

《사랑은 나이로 하는게 아니란다. 너의 아버지 마음속에 석탄이 짝 차있는 사람이다. 어머니 탄부의 딸이어서 그런지 아버지같은 사람이 좋더구나.》

석탄! 어버이수령님께서 《검은금》이라고 불러 주신 석탄! 아버지가 오늘 이렇게 될수 있는것은 마음속에 바로 그 석탄을 안고 보석처럼 빛나는 인생길을 창조하여왔기때문이 아닌가!

덜컹! 하는 소리에 옥빈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탄차 하나가 레루에서 탈선되었다. 어찌나?...

옥빈이가 올라가마이 되여 서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지배인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걸어온다.

《이런, 우리 둘이선 어림도 없겠군.》

탈선된 탄차를 기웃이 내려다보던 지배인은 부러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그럼 어떻게 하나? 아버지네 중대에 가서 한탕을 더 끌어내야겠는데... 아니?... 옥빈은 빙그레 웃는 지배인을 보고서야 자기를 놀린다는것을 깨달았다. 지배인의 팔에 매달렸다.

《지배인아저씨, 빨리요. 시간이 없어요.》

지배인은 그러는 옥빈이가 재미있는듯 꺾꺾 웃고 나서 저쪽 앞에서 탄부스레기들을 모으고있는 녀인들을 향해 소리쳤다.

《아주머니들, 여기로 좀 오십시오. 힘을 좀 빌립시다.》

《우리 힘으로 그걸 꽤 들어올리겠나요.》

우르르 몰려오는 녀인들속에서 누군가 하는 말이였다.

《팬한 말씀을... 나 어린 처녀군대들은 대포도 다루지 않습니까. 자, 모두 함께 구령을 치면서 힘을 씁시다. 하나, 둘, 셋!》

지배인은 탄차밑에 쇠장대를 넣고 지그시 힘을 쓰며 구령을 쳤다. 녀인들도 목소리를 합친다. 하나, 둘, 셋!

드디어 탄차는 레루에 올라섰다.

《옥빈아, 넌 30분의 시간을 잃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전차를 몰았지? 내 말이 틀리냐?》

지배인은 손가락으로 옥빈의 볼을 툇 툇기였다.

옥빈은 황황히 전차에 올랐다. 훗. 아우. 전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지배인아저씨도 우리 아버지가 어떤 영예를 지니게 되었는지 아시지요?...

문득 옥빈에게는 방금전에 지배인이 한 말이 되 살아났다.

...잃어버린 30분을 난 어떻게 보충할까? 그 시간을 보충하지 못하면 내 마음속에 그만큼 공백이 생길테지. 빨리 달리자, 달리자....

옥빈은 다짐하듯 속으로 웨치며 전차를 몰아갔다.

×

아버지는 휴양기일을 절반도 못 채우고 돌아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오성산의 칼벼랑길을 넘어 최전연초소에게까지 나가셨다는 보도를 듣고는 편안히 휴양을 할수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광철이네 소식을 한마디도 입밖에 내지 않았다. 어머니도 그에 대해서 구태여 묻지 않았다.

옥빈은 아버지가 광철이를 찾아갔다가 실망을 안고 돌아왔음을 짐작할수 있었다. 하지만 옥빈은 그가 오지 않은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그만큼 아버지의 정신적부담이 덜어지고 마음도 편할것이라고 옥빈은 단정했다.

하지만 그 일이 아버지의 가슴에 얼마나 큰 자책의 덩어리로 매달려있는지 옥빈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었다.

교대를 마치고 갭에서 나오던 옥빈은 한자리에 무릎 멈춰섰다. 아버지와 지배인이 주고받는 말이 발목을 붙들었던것이다. 무슨 일인지 지배인은 피우던 담배를 내던지고 버럭 어성을 돋구었다.

《사람이 지나치게 겸손해도 교만성의 표현이네. 다들 보는 눈이 있어 자네를 추천했겠는데 다른 생각 말고 이제 당장 내려가 준비를 하게. 요전에도 말했지만 자네네는 연합적으로 기동중대로 되어 있지 않나.》

아버지는 땅에 깊숙이 박힌 말뚝처럼 움직일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 아버지는 이번에도 차례진 영예를 마다하시려고?...

옥빈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툇 툇 떨어져내리는것만 같았다.

《왜 아직 그러고있나? 빨리 내려가게. 사진사가 기다릴거네.》

지배인이 독촉하였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몸가짐을 흐트리지 않는다.

옥빈은 한순간 어떤 충동이 불쑥 솟구쳤다. 그

충동은 그를 아버지한테로 사정없이 떠밀었다. 그는 아버지에게로 다가갔다.

《아버진 자식에게 기쁨을 주는것이 싫나요? 아버지는 어머니의 소박한 기쁨마저 외면해버린다는걸 왜 생각 못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일생 집안의 기쁨을 가져다주지 못할것 같아요.》

말없는 항변이 눈물로 차올랐다.

아버지는 눈물이 찔랑 고여오른 딸의 두눈에서 발산하는 이 말을 읽었다. 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딸의 어깨에 묵직한 손을 얹었다. 그리고는 지배인을 마주보며 입을 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동중대라는 말을 들을만큼 탄을 많이 켜것만은 사실이지. 그걸 쌓아놓으면 얼마나 될까?...

자네는 정말 우리가 기동중대가 될수 있다고 보나? 난 기동중대의 징표를 캐낸 탄으로 보지 않네. 온 중대가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으로 탄광을 든든히 떠받들 때 진짜 기동중대라고 할수 있네. 그런데 난 아직 중대를 그렇게 키우지 못했네. 여보게, 난 광철이가 떠나갔을 때 내 중대장사업에 커다란 공백이 있다는걸 깨달았네. 그 공백을 난 아직까지 메꾸지 못하고있네. 그런데 이런 놈이 어떻게 그런 영예를 지닐수 있단 말인가?!...》

지배인은 옥빈이 아버지의 격정이 옮겨온듯 말없이 눈만 습벽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오늘 자네를 다시 알게 되는구만.》

그리고는 옥빈의 어깨를 툇 건드렸다.

《옥빈아, 너무 섭섭해말아. 너의 아버지 좌우명이 뭔가 하니 탄은 명예보다 더 무겁다는거다, 허허.》

3갱에서 빠져나온 전차가 탄차를 길게 달고 그들앞으로 지나간다. 전차 머리부에서 푸른 섬팡이 번쩍인다.

하지만 옥빈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듯 한자리에서 까딱 움직이지 않고 서있었다.

아버지는 옥빈의 얼굴을 여겨보더니 진중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옥빈아, 네 마음을 다 안다. 아버지가 얘기를 하나 할까?

고난의 행군시기였다.

전선시찰을 나가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느 한 산골의 현지도도표식비앞에 놓여진 꽃다발을 보시게 되었다누나. 바람에 하느적이는 너무도 수수한 들꽃뭉침이었지만 장군님께서는 감동이 크시여 차를 타고가시는 길에서 말씀하시었다.

《어떤 애들의 소행인지 정말 많은걸 생각하게 하누만. 누구도 보지 않는 이런 산골에서 매일 아침 저렇게 꽃다발을 바꿔놓는 애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가. 그건 바로 애국심일거요. 이 땅에 대한, 이 제도에 대한 그런 소중한 애국의 마음이 있어 우리 인민은 이 준엄한 고난의 행군도 꼭 이겨

낼거요. 저 꽃다발의 주인을 찾아내어 후날 꼭 만나보지요.)

그 아이들을 생각하시는듯 오래도록 침묵을 지키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나직이 노래를 부르시었다.

...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

장군님께서서는 그 소박한 들꽃다발의 주인들을 후에 정말 만나주시고 기특하다고 높이 치하해주시었지.

옥빈아, 우린 장군님께서 한생 안고사신 불같은 애국심을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야 한다. 그 애국심엔 크거나작거나 한점 티도 없어야 한다. 우린...》

아버지는 갱쪽으로 걸음을 옮기었다.

저벽, 저벽...

갱안을 울리던 아버지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아주 찾아버렸다.

옥빈의 하얀 얼굴에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다.

채 하지 못한 아버지의 말뒤편에 숨겨져있는 깊은 뜻이 가슴을 쿵 쳤던것이다.

그로부터 보름후에 아버지는 중대를 2소대장에게 인계하고 2중대로 떠나갔다.

중대를 떠나면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중대를 부락하네. 전에도 말했지만 중대를 애국의 기초우에 세울 때만이 꺾이지 않는 기둥이 될수 있다는걸 명심하게.》

그 다음날 옥빈은 휴가를 신청하고 어디론가 떠나갔다.

남겨놓은 편지 한장이 퇴근해들어온 아버지의 손에 쥐여졌다.

《아버지! 전 정심언니네 집으로 갑니다.

제가 아버지처럼 탄부제복을 입었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한 철부지라는 자각이 이제야 들어 이 길을 갑니다.

아버지,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 일이 생각나요?

그날 아버지 회의에 가신다고 했는데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탄부제복이 아닌 다른 양복을 입히려고 씹싸웃듯 하했지요. 난 막 징징거리기까지 하구요. <나 아버지 미워. 노상 새까만 옷 입는거. 미워, 미워...>

그때 아버지 나에게 허릴 숙이고 느슨한 웃음속에 물었지요.

<그럼 옥빈인 진짜루 아버지가 밋니?>

<아니, 아니. 아버지 고운데 새까만 옷은 미워.>

생똥거지를 쓰며 우는 나에게 아버지 말했어요.

<옥빈아, 이제 저녁에 봐라. 이 옷속에서 뭐가 나오는가.>

정말 저녁에 들어오는 아버지의 품속에서 맛있는 사랑봉지가 나왔지요.

그 철없던 딸자식이 탄부제복을 입는 날 아버지의 뒤를 잇는다고 대견해서 울리보고 내리보시다 <석탄과 같은 색깔인 그 제복을 입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진실한가 알게 될 때엔 우리 옥빈이가 진짜 탄부로 되는 날일게다.> 하고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그 말뜻도 난 잘 몰랐어요.

한사람의 락오자를 자신의 마음속에 세우며 그 큰 영예를 거절하시던 그날에야 난 아버지를 조금 이나마 알았어요. 술한 탄을 캐도 애국의 마음이 실려있지 않은 탄은 명예로 계산될수 없다는걸 말이에요.

아버지, 걱정마세요.

정심언니네와 함께 인차 돌아오겠어요.》

《원, 자식두.》

아버지의 얼굴에 느슨한 웃음발이 퍼졌다.

한주일후 광철과 정심은 어머니를 모시고 탄광으로 다시 돌아왔다.

가사

인생의 자옥

김 용 엽

세상에 태어나 한생의 끝까지
찍어가는 그 자옥 얼마나 많던가
머나먼 인생길 한걸음 한걸음은
제 모습 새겨지는 생의 흔적 아니라

조국에 심장을 바쳐온 자옥은
한걸음 걸어도 별처럼 빛나고

저만을 생각하며 걸어온 자옥은
천년을 산대도 락엽에 묻히리

흘러온 인생길 뒤돌아볼 때에
남긴 자옥 없다면 그 무슨 생이라
한걸음 걸어도 조국이 기억하는
그런 자옥 남기며 내 한생 살리라



별하늘을 바라보며

리 명 현

맑게 개인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불꽃보라인양 밝은 빛을 뿌리고있다.

나와 함께 밤거리에 나선 아들의 눈길은 줄곧 하늘가로 향하고있었다.

《아버지, 우리 위성이 어데 있나?》

지난해 12월에 싸올린 《광명성-3》호 2호기가 성과적으로 자기 궤도에 들어섰다는 소식에 접했을 때 온 나라를 뚫게 하던 감격과 걱정이 아들의 머리속에 아직도 남아있는듯싶었다.

나 또한 그날의 걱정이 다시금 미쳐와 소리치듯 말했다.

《난 어쩐지 저 별들이 다 우리 위성같이 보이누나.》

《형, 우리 위성이 제일 크고 밝다고 했는데 뭐.》

아들애의 이 말은 나의 생각을 더 깊게 했다.

나는 왜선지 그 말을 세상리치를 알기엔 너무도 어린 철부지어린애의 말로만 생각되지 않았다.

저 하늘에 지금껏 인류가 싸올린 위성은 얼마나 많은가. 군사위성, 통신위성, 우주비행선 등...

인공지구위성의 크기를 어찌 용적과 무게만으로 가늠할수 있으랴.

그것은 누구를 위해 어떤 사명을 수행하는가 하는것이라라.

《광명성-3》호 2호기는 이 세상에서 자주성을 가장 사랑하며 정의롭고 문명한 평화로운 세계에서 살려는 우리 인민의 념원을 안고 바로 우리 사회주의조선에서 발사되었다.

자주권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는 우리 인민!

평화의 락원에서 살려는 우리 인민!

그래서 우주과학의 력사와 첨단을 자랑하는 대국들이 싸올린 위성보다도 내 나라의 위성이 제일 크고 밝은것이다.

나는 두팔로 아들을 품에 안고 평양의 별하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아들아! 네 말이 옳다. 우리 위성이 제일 크고 밝은 위성이다.

나의 귀전에는 해방후 우리 로동계급이 자체의 힘으로 만든 첫 기관단총으로 우리 수령님께서 울리셨던 총소리가 쟁쟁히 들려오는것만 같다.

한세기전만 해도 총대가 약해 왜적에게 국권을 강탈당해야만 했던 우리 인민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인민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령도하여오신 주체위업, 선군혁명의 빛발속에서 가장 존엄높고 긍지로운 인민으로 되었다.

이런 군대와 인민이 이 세상 못해낼것이란 없다.

지구는 자전축이 있어 제돌기를 하고있다.

하다면 력사발전의 주축은?

그 력사발전의 주축은 반제반미항전의 최전선에서 사회주의의 한길만으로 힘차게 나가는 우리 조국이라고 뽏뽏이 말하고싶다.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대국이라 자처하는 나라들도 눈치를 보아야만 하는 미국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나라는 우리 조국밖에 없음을 온 세계가 경이적인 눈길로 보고있지 않는가.

동방의 사회주의조선은 이미 끝이 없는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지구자전축중심에 한치도 드물지 않는 영원한 웅좌를 차지했다.

세계력사발전의 방향을 주도하는 내 조국의 위업을 저 무한대의 우주에도 펼치시려 아버지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기어이 조선의 실용위성을 싸올려야 하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념원이고 유훈이었다.

그렇다.

오늘날 우주의 중심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끝없는 충정심과 천하대적도 벌벌 떨게 하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령도따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제작발사된 《광명성-3》호 2호기가 있다.

내 조국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자들, 우리 조국이 강해지는것을 탈가와하지 않는 적대세력들의 음모와 책동이 악랄하여도 그러면 그럴수록 저 만리창공 우주에는 우리의 위성이 더 높이 날아오를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것이려니 세계여, 보라.

또 한분의 천출명장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두리에 온 나라 천만군민이 굳게 뭉치여 사회주의 한길을 따라 변함없이 나아가며 어떻게 강성국가를 건설하는가를...

우리의 머리우에서 밝은 빛을 뿌리는 저 별하늘!

아! 언제나 맑고 끝없이 창창한 조선의 별하늘!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우리의 위성 《광명성-3》호 2호기는 지금도 선군조선의 별로 세계를 향해 돌고돌것이다.



인연

김철순

1

로동자구라지만 옥천은 군소재지만큼 크고 번화한 곳이다. 여기에 주변의 크고작은 여러 제염소들을 통솔하는 소금공업관리국이 자리잡고있고 공업시험소며 제염전문학교, 화학공장이며 정제소금공장 등 제염계통의 큰 공장과 기관, 기업소들이 집중되어있기때문이다. 한창 채염기에는 전국각지에서 소금받으러 온 사람들과 자동차들로 길거리가 한결 더 붐비군 한다. 우리 나라 제염공업의 중심지라고도 할수 있는 여기에 심해성이 일하는 제염연구소도 있다.

제염연구소는 번화한 길거리와 초간히 떨어진 조용한 동림산기슭에 자리잡고있다.

염토장마다 크고작은 하얀 소금더미들이 촘촘히 널려있는 무연한 소금밭너머 바다가 환히 내다보이는 연구소 본청사 3층의 자기 방에서 해성은 벌써 몇시간째 한본새로 앉아 콤퓨터자료들을 읽고 있었다.

초리긴 속눈썹을 곤두세우고 미간을 약간 모은 채 글줄을 더듬는 그의 얼굴색은 그닥 밝지 못했다.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좀 야무져보이는 매력이 느껴지는 그 얼굴은 몹시 피로하고 지쳐보였다. 때없이 밀려드는 초조감마저 가득이나 피로한 그의 심신을 괴롭히고있었다.

초염수개발을 위한 첫 현장연구에서 실패한지 여러날이 지나도록 해성은 아직 다른 출로를 찾지 못하고있었다. 새로운 목표와 가설은커녕 어렵פות한 방향조차 포착하기 어려웠다.

우리 나라에는 정말 초염수가 없는게 아닐까?...

몇달전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에는 가슴벅찬 희열과 자신심에 넘쳐 몇날밤을 패워도 힘든줄을 몰랐다.

그렇만도 하였다.

지하초염수개발만 성공하면 정보당 소금생산량을 지금에 비해 3~5배나 대뜸 높일수 있었다. 더우기 초염수소금은 칼시움이나 마그네시움함량이 적은것으로 하여 그 질이 높아 최근 세계제염계가 주목하고있는 새 제염법의 하나였다.

해성은 지하초염수의 생성원인과 운동론을 깊이 있게 연구하는 과정에 청천강하류와 대동강하류사이 파렬대기반지층에 초염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 파렬대기반지층의 제일 깊은 곳이 바로 옥천지구였다.

일 대 십만 축적의 그리 크지 않은 지질도우에서 운명의 라침판이 가리키는 옥천지구를 이윽히 들여다보는 해성의 가슴은 억제하기 어려운 흥분으로 울렁이였다. 그는 옥천지구에서의 초염수연구가 분명 자기 운명의 도약대가 되리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해성의 대담한 첫 단독연구계획을 연구소일군들과 동무들이 적극 지지해주고 고무해주었다.

자력탐사기며 중력탐사기, CT탐사기 등 최신기술기재들을 아낌없이 보장해주었고 여러명의 연구조수들과 남천수문지질탐사대 한개 시추소대를 불려주었다.

《해성, 꼭 성공해. 그럼 넌 제염분야의 진짜 해성이 될거야.》

공업시험소 분석실에서 일하는 소꿉동무 윤희가 해성의 손을 꼭 잡아주며 한 말이었다. 그 말에 해성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제염분야만이 아니라 장차 온 과학계의 해성이 될 야심이 꿈틀 고패쳤었다.

그런데 첫 연구에서부터 좌절되어 그속에서 바이헤어날 길 없으니 온 과학계는 고사하고 자기가 제염분야의 혜성도 되지 못할 존재가 아닌가 하는 위구마져 갈마드는 것이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 하였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새 자료파일을 찾아 펼치는데 곁에 놓인 전화기에서 신호음이 울렸다. 혜성은 신호음이 한동안 반복되어서야 컴퓨터화면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송수화기를 들었다.

《제염소 혜성이 전화를 받습니다.》

공업시험소 분석실 윤희의 은근하면서도 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 윤희로구나. 어떻게?》

《혜성아, 우리 오빠가 널 꼭 만나야겠다기에 네가 방에 있는지 알아보려구... 지금 여기 있어. 보낼가?》

윤호동무가 왜 갑자기 날 만나자고 하는걸가...

혜성은 윤희가 마치 앞에 있기라도 한듯이 난색을 지었다.

《요샌 정말 바쁘데...》

《넌 그저 항상 바쁘데. 그러지 말구 시간을 좀내. 중요한 일이 있어. 혹시 너 우리 오빠를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러지 않니? 그러면 내가 갈가?》

잠시 할말을 못 찾고있는데 윤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그럼 내가 인차 가겠으니 기다려.》

2

중요한 일?... 혜성은 별안간 마음이 싱숭생숭해져 도무지 일에 몰두할수가 없었다.

우리들사이야 이미 윤호 그자신이 대범하게 아귀를 짓지 않았는가.

《우리 윤희가 혜성동물 형님삼겠다고 무척 원심을 쓰지만 난 알아. 별이 돼서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동무를 내가 붙잡을수 없다는걸. 또 붙잡아도 안된다는걸.》...

사실 그랬다.

어릴적부터 혜성은 꿈이 컸다. 중학교(당시) 3학년때에는 어느날 케플레르의 행성운동3법칙을 공부하다가 문득 한가지 아쉬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전자계산기는 물론 초보적인 대수표도 없는 그때 벌써 별들의 자리길을 계산하고 운동법칙을 발견한 천재가 어째서 그 행성들의 운동을 지배하는 힘은 발견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조금만 더 파고들었다라면 뉴턴보다 반세기나 먼저 만유인력의 법

칙을 내놓을수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할수록 혜성은 천재의 실수가 자기의 실수처럼 아쉽기 그지없었다. 하긴 만유인력법칙을 내놓은 뉴턴도 물질내부에 잠재한 거대한 에너지를 상상조차 하지 못한 것이었다. 원자에너지를 발견한 아인슈타인이 상상하지 못한것도 또한 아직 있을것이다. 그것을 내가 발견할수만 있으면...

달까지 날아가는데 실로 1.28초밖에 안 걸리는 광량자로켓트를 만드는 꿈도 꾸었다.

그 나날에 어처구니없고 엉뚱한 장난인들 오죽했던가.

옆집에 살던 윤희의 오빠를 들볶아 석도금철판으로 로켓트모형을 만들기까지 하였다.

보다못해 어머니가 핀잔조로 말하였다.

《원, 계집애가 사내애들처럼 무슨 장난이 그리 심하냐?》

하지만 혜성은 어머니에게 당돌하게 대꾸했다.

《난 장난을 하는게 아니예요. 실험을 해요. 그러구 이제 내가 만들 로켓트는 단번에 달이나 화성에 날아가는거예요. 씨리우스나 프록시마별까지 얼마나 먼줄 아세요? 거기까지도 갈수 있어요.》

카바이드로켓트가 광량자로켓트로 발전하자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며 또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이겠는가 하는것은 혜성에게 아직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꿈 그자체가 행복인지도 몰랐다.

키보다 먼저 어벌이 크게 자라는 딸을 대견하고 너그럽게 대한것은 역시 아버지였다. 하지만 경제일군인탓에 역시 실속을 중시하는 사람이기도 하였다.

그런 날들이 흘러 중학교졸업을 앞둔 어느날 혜성의 아버지는 무작정 대학에 가겠다고 폐를 쓰는 막내딸을 엄하게 놀려놓았다.

《우리 제염분야에도 할일이 많다. 부디 먼데 가서 공부를 할게 있니. 난 네가 제염전문학교에 갔으면 한다. 꼭 대학을 나와야만 큰일을 할수 있다는 법이야 없지 않느냐. 일하면서 공부한 로동자 박사들도 있는데.》

할아버지때부터 소금과 인연을 맺고 살아온 집안의 맏아들로서 제염공으로부터 시작하여 작업반장, 직장장, 지배인, 오늘은 국장까지 된 아버지이고보면 심분 이해할만 한 요구이기도 하였다. 만팔도 이웃제염소의 일 잘하는 작업반장총각한테 시집보낸 아버지였다.

그 아저씨가 지금은 거기서 직장장을 하고있었다.

혜성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수 없어 제염연구사가 되었지만 결코 소금이 자기 리상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제염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인민군대에 나가 군사

복무를 마친 윤호가 제염공이 되겠다고 지난해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윤희가 혜성에게 이런 말을 했다.

《혜성아, 난 너를 형님으로 맞고싶은 생각을 한 지 이미 오래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순간 혜성은 얼굴을 활짝 붉혔다.

아련하고 귀염성스러운 생김새처럼 마음잡고 착한 윤희가 더없이 좋았고 진실하고 순박한데다 탐구심과 정열도 있는 윤호 또한 좋은 사람이 분명했지만 혜성은 너무나도 평범한 그의 리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인생의 목표가 소금뿐이라면 뭐 그닥 훌륭한 리상이라고는 할수 없지 않을까?》

윤호가 대학이라도 추천받고 왔다면 좀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었을지 몰랐다.

《그럼 넌 우리 오빠가 천재가 되길 바라니? 하지만 이 세상에 천재나 수재들만 사는게 아니지 않니. 보통사람들도 제 나름대로의 행복을 찾을수 있다고 생각해.》

윤희의 말에 혜성은 웃고말았다.

평범한 사람도 높은 리상을 가지고 애써 노력하면 수재가 되고 수재가 또 노력해서 천재가 될수도 있단 말인가. 누가 말했던가. 희망과 리상은 인생의 라침판이라고...

자기가 초염수연구를 시작하던 몇달전 어느날 저녁에 아버지가 윤호에 대한 이야기를 한적도 있었다.

《거 전에 우리 옆집에 살던 리수현이 아들 윤호가 정말 팬찮은 애더라. 제염소에서 그 엘 3직장 기술원으로 배치했는데 관리국적으로두 소금발성능이 제일 나쁜 9직장기술원으로 자원해 갔다질 않니. 그 아버지애 그 아들이라더니... 사실 리수현이 그 사람이 오래동안 9직장기술원을 하면서 루수를 막아 소금발성능을 높이느라 애쓰다가 허리까지 상했는데 고생은 고생대루 하면서도 생산실적이 높은 다른 직장 사람들만큼 평가는 많이 받지 못했지. 하지만 9직장이 그대두 지금만큼 정보당생산량을 올리게 된건 다 그 사람 덕이야. 오늘은 그 아들이 아버지가 못다한 루수연구에 달려붙었다니 난 대견한 생각이 든다. 그러니 혜성아, 네가 초염수연구를 하면서 그 애 일두 좀 도와주거라.》

퍼그나 감심한 어조로 아버지가 하는 말이었으나 혜성은 거기에 별로 공감하게 되지 않았었다.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아들이 이어하는것이 물론 찬양받을만 한 일이긴 하겠지만 이왕이면 보다 새롭고 큰일을 해서 아버지를 뒤통하고 아버지보다 더 훌륭해질수도 있지 않겠는가.

소금을 만드느라하면 찌뽀물이 좀 새나가는것은 불가피한것이고 그걸 막아 생산량을 얼마간 더 올린다

해도 그것이 결코 제염공업발전에 영향을 줄만큼 사변적인 일은 아닌것이였다. 그러한 도덕적의무감이나 자기희생적인 도리에 치중하여 혁신적인 안목이나 진취성 같은것은 생각지도 않는듯 한 윤호가 어딘가 고리타분해보였다.

그후 한달가량 지난 어느날이였다.

혜성이가 자기 방에서 그동안 진행한 현장연구 결과를 분석종합하느라 여념이 없는데 윤희가 찾아왔다.

윤희는 방에 들어서는 참으로 《더운데 문이라도 좀 열고이지.》하고 가볍게 나무라며 창가로 다가가 문을 활 열어젖혔다.

열어놓은 창문으로 소금기 배인 비릿한 바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들어왔다. 혜성이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컴퓨터에 음악을 켜 다음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한낮의 따가운 해별이 드넓은 소금밭우에 자글자글 내리쪼이고 아물거리며 별가득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눈을 어지럽히고있었다.

결정지들에서는 하얀 소금을 실은 삭도바가지들이 드달려다닌다.

《래일두 소금꽃이 참 잘 피겠구나.》

윤희는 혼자 말하듯 중얼거리고나서 창결에 놓인 쏘파에 가앉더니 별안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슨 일이 있니?》

의아해하는 혜성의 물음에 윤희는 두눈을 내리칸 채 인츰 대답을 못하고 좀자르기만 하다가 한참만에야 입을 열었다.

《오빠때문에 그래. 우리 오빠가 지금 한 교대 생산지휘도 할래, 소금발기술관리도 할래, 거기에 루수연구까지 하자니 늘 시간이 모자라 찼찌매고 있어. 게다가 탐측설비가 자체로 만든 전기전도도 식탐사기이다보니 여간 힘들어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좀 도와줄수 없겠니? 네가 가지고있는 최신탐사설비루 9직장구역을 한번 누벼주면 땅밀의 루수상태를 환히 들여다볼수 있겠는데... 루수값을 찾아 차폐층을 형성해서 지표수위를 높이구 다른 곳으로 스며나가는 루수까지 몽땅 잡아 되돌리면 소금발성능이 제일 좋은 직장의 최고생산수준을 능히 따라잡을수 있어. 거기에 현재 소금발주변의 땅속에 염도높은 루수가 많은데 그것까지 찾아 뽑아 쓰면 그 최고생산수준의 1.5배를 돌파할 전망이 열리게 돼.》

혜성은 문득 아버지가 윤호의 연구를 도와주라고 하던 말을 상기했다. 초염수연구때문에 그사이 눈코 뜰새없이 바빠 지내느라 아버지의 당부를 감감 잊고있었던것이였다.

혜성도 딱했다. 윤희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기

도 그렇지만 한편 선뜻 도와주마하고 말하기도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한동안 바재이다가 힘들게 말을 뱉었다.

《윤희야, 초염수연구가 점점 어려워지고있어. 지금까지의 탐사결과값이 신통치 않아. 누굴 도와줄 계제가 못되기도 하거니와 솔직히 말해서 한개 직장의 생산이나 올리는 일이 초염수연구조의력을 뚝 떼서 품놓아 도와줘야 할만큼 중요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구나.》

혜성의 심정이 이해되어서인지 윤희는 별로 실망해하는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오히려 제편에서 미안해하는 어조로 말했다.

《너두 바쁘리란걸 생각 못한건 아니지만... 그러구 초염수연구가 더 급하구 중요하다는걸 모르지 않으면서두 너무 안타까와 찾아왔잖어. 나두 오빠의 연구를 돕느라고 하지만 어디 크게 도움이 되어야지? 그래두 오빠 내가 별치 않은 의견을 하나 내놓아두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안됐어. 우리 일때문에 너무 마음쓰지 마.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끝까지 해내야지.》

윤희가 너무 쉽게 자기를 이해해주는 바람에 혜성은 당황해났다.

가슴노리가 쿵 찢리운듯 했다. 차라리 도와주지 않는다고 성이라도 냈더라면... 하긴 그럴 윤희가 아니지.

이런 윤희에게 자기가 너무 모질게 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정말 루수연구를 도와줄수 없는걸가? 아니, 도와줄수도 있다.

다만 잃어버릴 내 시간이 아까운 생각에 그럴만한 마음의 여유를 못 가진때문이다. 윤희가 이렇게 안타까와하는걸 보면서 자기 시간만 아깝다고 외면하는 내가 무슨 벗이고 동무인가... 내가 이렇게까지 리기적인가.

《좋아. 내가 도와주겠어.》 하고 말하고싶은 충동이 불쑥 치밀어오를듯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종시 입이 열리지 않았다.

아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차폐지고있다. 하루에 스물네시간! 단 1분도 에누리가 없다! 너에게도 시간이 모자라고 나에게도 역시 시간이 모자란다. 그 모자라는 시간을 보충할 방도가 있다. 두뇌, 정열, 분투... 오직 이것으로 우리는 각자가 자기의 시간을 쟁취해야 한다. 하루를 백시간, 천시간으로! 승리의 열쇠는 거기에 있다!...

컴퓨터에서 벋들의 사랑과 우정에 대한 은은한 서정가요선물이 흘러나오고있었다. 그 선물이 또 한번 마음을 흔들어놓았으나 혜성은 강인히 자신을 다잡았다.

어쨌든 초염수연구나 끝내고보자. 우정은 귀중한 것이지만 시간 역시 귀중한것이 아닌가....

그 일이 있는 며칠후 윤호가 혜성이 일하는 탐사현장에까지 찾아왔다.

한쪽에서는 시추기가 와룡와룡 돌아가고 혜성은 조수들과 함께 CT탐사기 전도선을 옮겨늘이느라 바빠 돌아가고있었다. 굵혔던 허리를 펴며 얼굴에 땀을 돌아보는데 저쪽에서 윤호가 자기를 지켜보고있었다. 혜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쥐고있던 전도선통구리를 옆사람에게 넘겨주고 그에게로 다가갔다.

남재기며 이름모를 불그죽죽한 풀들이 여기저기 불품없이 자라고 허연 소금버캐가 얼룩얼룩 내뿜은 꾸덕꾸덕한 감탕관을 한동안 거닐도록 그들은 말이 없었다. 윤호가 차마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가 힘들어 그러는가부다 하고 생각한 혜성은 따분한 침묵을 깨며 먼저 말쑈지를 뱉었다.

《참, 루수연구는 어떻게 돼가요? 루수를 무작정 뽑아올리면 소금발지층이 내려앉을수도 있겠는데...》

다행스러운듯 윤호는 활기를 띠며 제격 대답했다.

《그건 이미 방도가 섰소. 루수영향이 미치는 15미터 깊이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기본추공을 뚫고 그 사이사이에 12미터, 8미터, 4미터 깊이의 보조추공을 한 다음 그걸 하나로 편결하는 굴포를 형성하여 거기에 솟아오른 찌물을 양수하면 얼마든지 뚫수 있소.》

《오, 그래요?... 그런데 난 그 루수연구가 앞으로 실제상 얼마나 의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초염수연구만 성공하면 소금발 전면적의 70프로에 해당하는 1중발지가 필요없게 되는데 그러면 자연히 루수량도 대폭 줄어들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윤호는 어지간히 놀라는듯 하였다.

별에 타서 좀 감때사나와보이는 얼굴에 크고 억실억실한 눈이 무척 어질고 순박한 인상을 주는데 거기에 비낀 실망의 그림자는 인츰 지워지지 않았다.

《혜성동문 혹시 자기 연구의 성공여부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게 아니요? 꼬집어말한다고 나빠 생각마오. 물론 소금발성능에 대한 차이는 있겠지만 결정지는 몰라도 20프로 면적에 해당하는 2중발지에서도 루수현상은 있기마련인데 귀중한 초염수자원이 한그람이라도 새나가면 그게 아깝지 않소?》

혜성은 윤호의 연구에 대한 시뭇한 감정이 은연중 그런 실언을 빚어냈음을 깨닫고 아래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게 분명한 사람이 이렇게 깔끔하고 온곰지 않

게 나올수 있을가 하는 생각에 불쾌감이 살아올랐다. 혜성은 시간도 없는데 빙빙 에돌것 없이 이 시 푸녕스러운 상면을 서둘러 끝내고싶었다.

《어쨌든… 일전에 우리 아버지두 그래, 윤희도 그래 루수연구를 좀 도와줄수 없겠는가 하는 부탁이 있긴 했지만 저… 보다싶이 일이 이렇게 바쁘다보니…》

혜성은 걸음을 멈추었다. 윤호가 내짚던 걸음을 무뎌하고 혜성을 향해 돌아섰던것이다.

《난 동무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게 아니요.》

혜성은 놀랐다. 그럼 여기에 왜 왔단 말인가.

《혜성동무, 실은 우리 9직장 루수상태를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 10미터깊이의 한 지점에서 특별히 농도가 높은 찐물줄기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혹시 초염수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찾아왔소.》

자기의 억측이 왕창같이 빛나가는 바람에 혜성은 다시금 놀랐다. 자기의 경망스러운 속단이 부끄럽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초염수에 대한 파악은 깊이 못한듯 하나 그래도 자기에게 도움을 주려고 수고로이 걸음을 한 그가 고맙기도 하였다.

혜성은 윤호를 향해 짐짓 아량있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정말 고마와요. 거기일두 무척 바쁘겠는데 이렇게 찾아와주어서… 하지만 70~80미터깊이의 지반지층에 초염수가 있다는거야 이 분야의 공인된 리론이구 초보적인 상식이 아닌가요. 저도 이미 몇개 지점에서 그걸 포착했었지만 비교적 복잡한 루수운동의 결과로 결론지었어요.》

《나두 혜성동무가 그걸 이미 포착했을수 있다는걸 방금전에야 생각했소. 너무 흥분한김에 한달음에 달려오다보니…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루수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차폐층이 깔려있는 5미터선까지는 비교적 일정하게 농도높은 루수가 분포되어있고 그아래부터는 깊이 내려갈수록 루수농도가 급격히 낮아지고있는것이 상례인데 아무리 루수운동이 복잡하다 해도 어떻게 10미터선에 그렇게 높은 농도의 찐물줄기가 형성될수 있는가 하는거요.》

혜성은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세우려드는 윤호를 어떻게 납득시켜야 할지 난처하였다. 실상 그 물음에 대답하자면 루수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하기 어려운 모든 미세한 조건들과 그에 따르는 루수운동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면적인 연구가 필요하였다. 그것도 지금 진행하고있는 초염수연구에서 루수연구어로 완전히 방향전환을 하지 않는 한 밝혀낼수 없는 일이었다. 윤호에게 《자, 바로 이거예요.》 하고 한마디 대답을 주기 위해 이제 와서 루수연구에 뛰어들 생각은 없는것이다. 혜성은

침착하게 말했다.

《지질학적전대를 추정해보아두 그래, 초염수의 생성원인과 운동론적전지에서 보아두 그래 10미터선에는 절대로 초염수가 존재할수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밖에 말할수 없었다. 하루빨리 자기의 초염수연구를 성공하여 그것으로 명백한 대답을 주어야만 한다고 혜성은 생각하였다.

하지만 윤호는 자기 주장을 쉽게 굽히려 하지 않았다.

《내 생각은 이 지대 지반지층이 급격한 지각변동이 아니라 저진현상으로 서서히 내려앉았기때문에 초염수가 갇혀있을 가능성이 극히 적지 않겠는가 하는건데 만약 그렇다면 연구폭을 좀더 넓혀볼 필요도 있다고 보오.》

순간 혜성은 섬찔했다.

그것은 혜성이가 지금 와서 제일 우려하고있는 점이었다.

초염수연구의 전망이 거기서부터 점점 어두워지고있는것이였다.

혜성은 자기가 생각했던것보다 윤호가 초염수에 대해서 더 깊이 파악하고있으며 나름대로의 일가견도 가지고있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윤호의 견해를 긍정할수는 없었다. 엄연한 루수구역에서 초염수를 찾겠다고 하는것은 자기의 연구를 포기하는것이나 다를바없기때문이었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풀덤불사이를 거닐던 혜성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윤호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아니, 그건 분명 초염수는 아니예요. 초염수는 아니래도 몇십억톤쯤이라면 개발해볼 가치가 있겠지만 흔적에 불과한 찐물줄기를 가지고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순 없어요. 난 기여이 진짜 초염수를 찾고야말겠어요. 여기에 없으면 다른 곳에서라도, 온 나라를 다 뒤져서라도…》

혜성은 선언하듯 말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다짐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거의 두달동안이나 최대한의 인내력을 발휘하여 진행한 옥천지구에서의 초염수연구는 끝내 실패하였다. 최신탐사설비들의 탐측결과도, 시추결과도 지반지층가까이로 내려갈수록 오히려 록지와 련결된 담수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것을 확증했을뿐이었다....

3

똑, 똑.

문두드리는 소리에 미쳐 대답도 할새없이 윤희가 방에 들어섰다.

윤희의 손에는 꽃보자기에 쓴 꾸레미가 들려있었다. 윤희가 늘 현장에서 살다싶이하는 오빠에게 밥을 싸들고 다니던 빨간 바탕에 국화무늬의 보자기를 혜성은 인츰 알아보았다.

윤희는 들고온 보꾸레미를 책상우에 올려놓았다. 보자기안에서 쟁그렁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건 뭐야? 오늘은 날 위해서 특식이라도 마련했니?》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는 혜성에게 윤희는 동심한 얼굴에 살짝 볼웃음을 지었다.

《특식이라도 이만저만한 특식이 아니야.》

《그래? 그런데 난 요새 밥맛을 젓혀서 아무것도 먹고싶지 않은데...》

《그래두 보면 구미가 동할거야.》

윤희는 보자기매듭을 풀어헤쳤다. 코르크마개를 막은 크고작은 하얀 병들이 여러개 나뉘었다. 성분분석표를 깨끗이 붙인 병마다에는 맑은 액체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었다.

혜성은 병 하나를 손에 들고 성분분석표를 들여다보았다.

염도와 동위원소량, 광화도값과 칼시움, 마그네시움 등 성분지표들을 읽어내려가던 혜성은 갑자기 두눈을 홑뜨며 저도 모르게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아니, 이진?...》

그것은 틀림없이 품질이 가장 좋은 1류급의 고농도, 고풍화도초염수였다.

윤희가 담담한 어조로 설명해주었다.

《우리 분석실에서 분석한 초염수시료들이야. 그 작은 병의것은 9직장구역 10미터깊이의 두개 지점에서 채취한것이구 큰 병의것은 그와 관련된 광활한 수원지의 여러 지점들에서 채수한거야.》

혜성은 의자에서 튕기듯 일어나며 부르짖었다.

《그 수원지가 도대체 어디 있었다는거야?》

《우리 오빠 연구끝에 10미터깊이의 농도높은 잔물이 발견된 곳이 신생대구기 즉 약 1억년전의 개펄자리라는것을 밝혀내구 그 개펄이 바다밑의 초염수 수원지와 연결되어있을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어. 전마선을 타구 바다에 나가 탐색을 진행했는데 해안선으로부터 6키로미터선에서 13미터깊이의 바다흙을 발견했지. 거기서 채수해온 시료와 신생대 3기지층의 개펄자리에서 뽑아올린 잔물시료를 분석해보니 그 성분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겠니. 실상 그 바다흙은 수십미터로부터 수백미터까지의 폭으로 옥천앞바다는 물론 아래로는 금성앞바다, 우로는 은하, 안석앞바다에 이르기까지 아직 그 연장선의 끝을 찾지 못할만큼 거대한건데 거기에 무진장한 초염수자원이 있었던거야.》

혜성은 일루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껏 애써 지탱

해오던 운몸의 기력이 삼시에 발밑으로 빠져나가는 듯 한 허탈감을 느꼈다. 그는 다시 의자우에 맥없이 주저앉았다.

나는 왜 그것을 보지 못했단가. 그렇게도 애타게 찾고찾던 초염수가 거기에 있을수 있다는걸 나는 왜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가....

혜성처럼 찬연한 자태로 제염계에, 온 과학계에 불쑥 나타나리라던 자기의 꿈, 그 꿈을 믿고 망망하고 캄캄한 우주공간을 날고날던 혜성이 무섭게 깨어져나가는 아찔한 환각이 뇌리에 덮쳐들었다.

아니, 그것은 환각만이 아니었다. 언제인가 책에서 읽은 슈메이커-레비혜성에 대한 이야기가 그 순간에 너무나도 생생히 떠오르는것이였다.

천문학자 슈메이커부부와 레비에 의해 1993년 3월 처음으로 발견된 후 1년 4개월만에 스물한개 조각으로 분열되어 목성우에 수백키로메터, 지어 천수백키로메터의 거대한 불기둥들을 일으키며 떨어져내린 혜성, 지난 시기 세계천문학계에서 유명한 할레혜성을 발견했을 때보다 더 큰 파문을 일으킨 그 혜성의 어마어마한 폭발장면이 금시 눈앞에 보여와 혜성은 전몰하였다.

그 슈메이커-레비혜성과 내가 다름바 무엇이란 말인가....

그존한 설비와 많은 력량을 동원하여 진행한 자기의 연구를 자체로 만든 평범한 탐측기재들로 두달도 안되는 사이에 전면 부정해버린 윤호가 놀랍기 그지없었다.

뉴턴이 케플레르를 넘어서는데는 반세기가 걸렸다. 아인슈타인이 뉴턴을 넘어서는데는 몇세기나 걸렸다. 이 시각에 혜성에게는 윤호가 천재처럼 생각되였다. 정말 그가 천재라면 그 천재성은 어디서 나왔는가....

윤희가 원탁우에 놓인 보온병을 기울여 물 한고뿌를 따라 혜성의 앞에 놓아주고 곁에 있는 의자를 끄당겨앉았다.

혜성은 차거운 물을 몇모금 들이켰으나 번열로 달아오른 머리를 좀처럼 식힐수가 없었다.

심각해진 혜성의 얼굴표정을 이윽히 바라보던 윤희가 입을 열었다.

《혜성아, 우리 오빠는 네가 하루빨리 이 연구를 완성하길 바라고있어. 연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해. 그런데 너도 알다싶이 우리 오빠한테는 이 분야를 전문연구할 조건과 시간이 부족해. 이 지구에서 신생대 3기지층의 개펄자리들을 모조리 찾아내고 바다흙을 형성한 지각의 룡기운동과정과 초염수 생성원인들을 과학적으로 해명해서 우리 식 초염수리론을 정립해야 해. 난 간석지에서 증발농축된 잔물이 조수의 운동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바다흙에 모여 초

염수를 생성했을수 있다는 가설을 제기했는데 우리 오빠두 그 견해를 지지하고있어. 만일 그것이 과학적으로 해명되면 우린 끊임없는 생성조건을 가진 영원한 자원에 근거해서 우리의 제염공법과 증발지에 비한 결정지면적확대를 비롯한 생산구도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할수 있어.》

사뭇 진지하고 정열적으로 울리는 윤희의 말이 가슴을 쿵! 울렸으나 혜성은 설레설레 도리를 저었다.

학술적으로 새롭고 경제적의의가 대단히 큰 연구만 완성하면 윤호는 학위도 받을수 있고 영웅까지도 될수 있다.

그는 얼마든지 해낼것이다. 이제 와서 그가 애써 연구한 이미 성공한것이나 다름없는 연구를 넘겨받는다는것이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수 없다고 혜성은 생각하였다.

하물며 윤호가 힘들어하고 안타까와할 때 도움 한번 주지 않고 외면하고 지어 무시까지 해온 내가 감히 그 제의를 받아들일 면목이나 있는가...

《아니, 난... 그렇게 할수가 없어.》

윤희는 혜성이 그렇게 나오리란것을 미리 짐작한듯 했다.

《왜? 자존심때문에? 체면때문에?... 혜성아, 너 생각나니? 중학교때 우리 등산가서 보물찾기하던일이.》

생각났다. 그것은 중학교에 입학하여 수업산에 첫 등산을 갔던 어느 여름날의 일이었다.

...소학교때 가까운 동림산에 몇번 등산을 갔던적은 있지만 동림산에서도 고개를 두개나 더 넘어 숲이 울창하고 풀개물이 바위며 돌서덜을 씻으며 소리쳐흐르는 수업산에 가보기는 처음이었다.

산경치, 물경치구경도 좋았고 꽃을 꺾고 산딸기를 따먹고 가재잡이를 하는것도 좋았지만 등산때면 마냥 그러하듯이 아이들의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 제일 재미있는 일은 역시 보물찾기였다. 수백명이나 되는 아이들에 비해 불과 여라문개밖에 안되는 보물을 손에 질 행운이 차례지기가 결코 쉽지 않을것이기때문이었다.

혜성은 보물찾기가 시작되자마자 눈을 밝혀가며 범고사리나 밝은쟁이포기밀을 헤쳐보기도 하고 커다란 돌도 뒤집어보았다.

이때 저쯤 아래에서 자기 동생에게 핀잔하듯 말하는 윤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희야, 그렇게 땅만 뒤지지 말고 하늘도 좀 쳐다봐. 보물이 나무가지사이에 끼워있을수도 있어.》

그 소리에 혜성이는 고개를 쳐들고 사위를 두루 살펴보았다.

아닐세라! 몇발자국앞에 있는 그리 크지 않은

나무의 가시에 꼭 찢러놓은 하얀 종이쪽지가 눈에 띄었다.

순간 혜성의 가슴속에 작은 새가 날아들기라도 한듯 심장이 파드득 뛰었다. 우거진 개암숲을 헤치며 그리로 서둘러 달아올라가 발돋움을 했으나 손이 자라지 않았다. 몇번 땀박질을 콩콩 해보던 혜성은 돌아서서 소리쳤다.

《윤희야! 이리루 빨리 와. 여기 보물이 있어.》

윤희보다 먼저 윤호가 달려올라왔다.

《어디 있니? 오, 요게 있구나.》

윤호도 키가 자라지 않아 그는 곁에 있는 매출한 비수리나무가지를 하나 꺾어들고 뚱기쳐 떨구었다.

혜성이는 떨어진 종이쪽지를 얼른 집어들고 펴보았다.

《새벽을 알리는 수탉울음소리를 흥내내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수업산에 사는 새들의 이름을 일곱개이상 꼽아보세요. 그 새들은 어떻게 읊니까?》

아니, 이진?... 량컨에서 이마를 맞대고 쪽지를 들여다보던 윤호와 윤희가 일시에 까르르 웃음을 터쳤다. 윤희는 웃느라 배를 그러안고 돌아갔다.

《아이참, 재미있겠네. 혜성아, 너 그럼 수탉울음소리를 한번 흥내내보렴. 꼬 꼬 꼬, 꼬끼요-》

윤희가 닭울음소리까지 내는 바람에 혜성이는 성을 발끈 내었다.

《남은 속상해 죽겠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니.》

혜성은 뺨이 나다못해 얼굴이 다 새빨개졌다.

가슴을 들먹이며 요행 손에 넣은 보물이지만 온 학교 학생들이 모인 앞에서 닭울음소리를 내는것이 끔찍이 망신스러웠고 더우거나 겨금내기로 우짖는 술한 새들이 이름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우는지도 무지 알 재간이 없는것도 속상한 일이었다.

혜성은 생각다못해 손에 들고있던 종이쪽지를 훑내버리고말았다.

《에이, 아무래도 이진 안되겠어. 빨리 또 다른 걸 찾아봐야지.》

나풀거리며 개암잎우에 떨어진 종이쪽지를 윤호가 주어들며 말했다.

《무슨 보물이 많아서 이제 또 찾겠니. 그러지 말구 닭울음소리두 려습해보구 여기 사는 새들두 한번 잘 살펴보자꾸나. 내가 도와줄게.》

《싫어. 수학문제풀이나 외국어단어를 외우는거라면 몰라두...》

혜성은 도리머리를 하며 울가망을 해보였다.

《혜성아, 수학이나 외국어만 중요한게 아니야. 이것두 다 공부란 말이야. 우리 수업산에 무슨 새가 사는지도 몰라서야 되겠니?》

《체, 수업산에 무슨 새가 살든 내게 무슨 상관

이야. 그런건 몰라두 돼.》

하지만 아이들은 끝내 다른 보물을 찾지 못하고 말았다.

그날 등산뒤끝에 가진 모임에서 윤호가 나가 기운찬 닭울음소리를 신통하게 흉내내며 온 학교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리고 꿩, 부엉이, 산비둘기, 접동새소리는 물론 할미새, 솔새, 휘파람새, 개미새 등 열가지도 넘는 새소리를 기막힐 정도로 신통하게 내며 상을 탔다.

윤호는 자기가 상으로 탄 목직한 구력을 혜성에게 통채로 안겨주었다.

《자, 받아. 보물을 찾은건 너니까 이걸 옹당 네 거야.》

얼결에 구력을 받아든 혜성은 호기심이 동해 그안을 들여다보았다. 여러권의 학습장과 단어장, 원주필 등 학용품들과 딸기사랑봉지까지 들어있었다.

혜성은 그것을 윤희에게 안겨주며 말했다.

《됐어. 난 보물꼭지를 버렸으니 이걸 가질 자격이 없어.》

윤희는 생글웃음을 지으며 봉지를 터뜨려 딸기사랑 한알을 혜성의 입안에 억지로 넣어주고는 윤호에게도 주고 자기도 한알 입에 물었다.

그리고는 선언하듯 말했다.

《뭐 그럴거 있니? 그럼 우리 이걸 똑같이 나누자구나. 그게 좋지? 우?》

마치 어른이 투정꾸러기 아이를 달래듯 말하는 윤희의 눈빛이 하도 간절하여서 혜성은 그가 꺼내주는 학습장이며 원주필들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였다....

지금 와서 자기에게 그때일을 상기시켜주는 윤희의 심정을 혜성은 이해하였다. 그리고 그때일의 여운이 왜서인지 심각하게 마음에 미쳐왔다.

하지만... 딸기사랑을 나누어먹던 어린 날의 그때처럼 오늘 일이 그렇게 단순하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윤희는 살며시 혜성의 허리를 감싸안으며 다가앉아 속삭이듯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다.

《혜성아, 사실 나두 오빠가 이 연구를 너에게 넘겨주자구 했을 때 생각이 많았어. 그래서 오빠한테 말했지. 〈혜성이의 자존심에 그걸 받아들이게 뭐예요. 아니, 절대루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빠의 아량이 오히려 그의 처지를 딱하게 만들구 고통이나 더해줄수 있어요. 혹시 다른 측면으루 본다면 어떤 이들은 오빠가 처녀의 환심이나 사려구 그런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힘들구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난 오빠가 이 연구를 끝까지 완성했으면 해요. 혜성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세요. 오빠에게두 자존심이 있구 리상이 있지 않나요.》

내 말을 다 듣고나서 오빠두 뭔가 깊이 생각해보

는것 같더구나.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지 않겠니.

〈네 말이 옳을수도 있다. 나라구 왜 큰일을 해놓구 온 제염계가 떠들썩하게 이름을 날려보고싶은 생각이 없겠니. 하지만 우리 제염공업을 하루라도 빨리 발전시키자면 이 일을 혜성이에게 맡겨야 해. 그건 혜성이가 초염수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했구 이 분야에 대한 파악이 누구보다 깊을뿐아니라 전반 실력두 나보다 엄연히 높기때문이야. 혜성이에 대한 다른 미련은 없어. 그가 나를 하찮게 본다구 나뻘 생각할것두 없구. 리상이 높은거야 좋은 일이지. 오히려 난 그의 리상을 더 고무해주구 힘을 주고싶어. 우리 제염소마을에서 정말 세계적인 학자가 나온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나. 지금 첫 연구에서 실패하구 괴로와하며 안타까와하는 그가 이 일을 맡으면 그는 분명 누구보다 훌륭히 해낼거구 그 과정에 더 높이 솟구쳐오를거야. 그 어떤 개인적인 사소한 감정때문에 초염수를 개발하여 정보당 소금 생산량을 높일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이 한시라도 더디여지지는걸 난 허용하고싶지 않구나.〉 하구 말이야. 우리 오빠 다음해 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할 준비도 하고있어. 이번에 더 많이 배워야 하겠다는걸 절실히 느꼈던거야.》

갑자기 눈굽이 뜨겁게 확 달면서 견잡을새없이 눈물이 왈칵 솟구쳐올라 혜성은 두손으로 얼른 얼굴을 감싸쥐었다.

얼굴을 감싸진 하얀 손가락사이로 맑은 눈물이 샘솟듯 줄줄 흘러내렸다.

그런 사람! 그렇게도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 그렇게도 훌륭하고 높은 리상을 지닌 사람. 그런 사람을 지금껏 내가 하찮게 생각하고 외면하고 무시해오다니...

이 순간에 혜성은 윤호가 수재만이 아니라 웅건한 산악파도 같은 큰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그 거인은 바로 자기와 함께 흘러온 생활, 학교의 교정과 아담한 고향집마당가, 수업산등산길과 같은 평범한 생활속에서, 자기의 가까이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남모르게 무럭무럭 자란것이였다.

목깃에 령장자리가 또렷한 군복을 입고 윤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의 모습이 떠올랐다.

...어느날 어머니가 마련해준 새옷 한벌 가지고 윤희네 집에 가던 혜성이 저녁늦게야 돌아오게 되었는데 윤호가 바래주겠다고 따라나섰다. 혜성은 만류하지 않았다.

혜성이네 집으로 가는 가까운 길에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약속이나 한듯이 동림천 방축길로 접어들었다.

꼭배같이 생긴 달이 잔잔한 내물우에 떠가고있었다.

뚝도 없이 노대도 없이 그저 물결따라 흘러가는 듯 한 그 배가 혜성에게는 어쩐지 쓸쓸하게 생각되었다.

《윤호동무, 그래두 대학에 가는데 좋지 않겠어요?》

대학에 가서 공부하느라면 시야도 넓어지고 보다 큰 새로운 목표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금 해보는 권고였다.

《대학공부야 일하면서두 할수 있지. 난 아버지가 하던 루수연구를 하루빨리 완성하고싶어.》

《그다음엔요?》

《그다음엔 제염공정들에 대한 기술개진두 하구 정보당 소금을 한 500톤 아니, 1 000톤쯤 생산하는 새 제염법도 연구해야지.》

《그럼 한평생 소금만 주무르며 살겠다는거예요?》

《그게 어때서... 군사복무를 할 때 우린 동무들끼리 서로 자기 고향 얘기를 즐겨하군 하였소. 한 동무는 자기네 마을 앞바다에서 양식하는 다시마자랑을 하면서 뭐랬는지 아오? 옛날에 어느 나라 왕이 오래 살겠다고 온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장생불로약재를 구해오라는 령을 내렸는데 신하들이 몇해를 두구 찾고찾다 가져온것이 바로 그 다시마였다는거요. 그 동문 제대되면 자기가 꼭 훌륭한 다시마양식기사가 되겠다고 말하군 했지.

난 소금얘기를 자주 하군 했소. 한창 최성기에 백옥같은 하얀 소금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광경이랑 세계적인 제염공업발전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금을 낼수 있을가 하는 생각을 하군 하였소. 집에 있을 때보다 고향을 멀리 떠나서 소금과 더 깊은 인연을 맺었다고 할수도 있지. 설사 대학에 간다 해도 졸업하면 난 여기로 다시 돌아올거요.》...

뚝도 없이 노대도 없이 내물우에 물결따라 떠가던 쪽배와 같다고 생각했던 그 달...

그때 그 달을 보며 난 윤호의 운명을 뚝도 노대도 변변치 않은 쪽배라고 생각했지. ...

하지만 지금에 와서 윤호가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쪽배와도 같은 존재가 아니였을가.

사랑으로 충만된 리상을 뚝뚝에 팽팽히 안고 그 어떤 사나운 풍랑도 헤쳐갈 억센 노대를 힘차게 저어가는 윤호를 나는 왜 지금껏 리해할수 없었고 리해하려고조차 하지 않았던가.

풍랑속에 표류하는 가냘픈 쪽배, 자리길을 잃

고 깨어져 어디론가 떨어져내리는 혜성을 향해 내뻗친 구원의 손길을 차마 잡을수 없는, 선뜻 잡지 못하는 자기의 처지가 혜성은 외롭고 슬프기 그지 없었다.

언제인가 윤희가 한 말이 아프게 혜성의 가슴을 허비며 되새겨지었다.

《혜성아, 넌 왜 우리 오빠와 인연을 맺기 그렇게도 힘들어하니?》

그때 하지 못한 대답을 혜성은 지금은 할것 같았다.

아니야, 윤희. 너의 오빠가 아니라 난 소금과, 이 땅과 인연을 맺기 힘들어한거야.

꿈과 리상은 하늘에 있어두 사랑만은, 애국의 마음만은 자기 땅에 든든히 뿌리박고있어야 한다는걸 모르지 않으면서두 너의 오빠에겐 이미 습관처럼, 타고난 천성처럼 몸에 배인 그 사랑이, 이 땅과의 인연이 나에겐 그리두 힘들구 낯선 초면의것으로 되었던걸 이제 알것 같애.

윤호가 거대한 초염수자원을 발견할수 있는 비결을, 첫 연구에서 자기가 여지없이 실패한 원인을 혜성은 마음속깊이 절감하였다.

혜성은 손수건을 꺼내 손이며 얼굴에 흘러내린 눈물을 꼼꼼히 닦고나서 책상앞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불어오는 바다바람을 한껏 들이켰다.

멀리 바다에서 흰 물갈기를 앞세우고 한창 밀물이 들고있었다.

차오르는 밀물을 이윽히 바라보고있노라니 가슴속에 조금씩 조금씩 새로운 용기가 차오르는것이 느껴지기 시작하였다.

혜성은 담담하나 씩씩한 어조로 말하였다.

《윤희야, 너의 오빠가 옳았어. 윤호동무의 리상이야말로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리상이야. 그것만 있으면 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지. 이제라도 모든걸 새롭게 시작하고싶어. 윤호동무를 책임자로 하는 초염수연구조를 새로 조직할것을 총국에 정식 제기할 생각이야. 그러구 내 기꺼이 윤호동무의 조수가 되겠어.》

윤희는 흥분에 들떠 일어서며 웨치듯 혜성을 불렀다.

《혜성!》...

나는 은하과학자거리에서 산다!

한 동 선

나의 집주소는
은하과학자거리 11호동 1현관 1층 1호
이사짐 하나없이 훌가분한 몸으로
고대광실 고급살림집에 이사했노라
결혼한지 넉달인 우리 가정
나는 은하과학자거리에서 산다!

흙 한삽 뜬적 있었던가
애젊은 안해와 나
두 식솔 사는 세칸짜리 이 집에
한일보다 할일이 더 많은 젊은 과학자
아스팔트길에 발자국 옮기기도 송구한
나는 은하과학자거리에서 산다!

꿈같아 꿈만 같아
제 손을 꼬집어보았건만 꿈아닌 현실
부엌이며 방이며 가구며를
쓸어보고 또 쓸어보는 나와 안해
가슴속에 감사의 정 그득히 차넘치는
나는 은하과학자거리에서 산다!

알리고싶다 나의 집 새 주소
학문의 세계에로 나의 손목 이끌어준
정다운 모교의 선생님들에게
청춘을 군사복무에 바치는 나의 동갑들에게
내 나라의 근면한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집들이초청장 온 나라에 보내고싶은
나는 은하과학자거리에서 산다!

끝없는 탐구의 밤을 지새고
동터오는 새날의 창문을 열 때
우주의 한끝까지 내려치는 환희여
그 끝에서 마주오는 기쁨의 파도여
아, 목메게 바라던 사회주의부귀영화
아름다운 미래와 제일 가까운 곳에
우리를 세워주신 원수님의 사랑이여
나는 은하과학자거리에서 산다!

밤이나 낮이나 울렁이는 가슴

나의 꿈 나의 리상은
내 살아갈 미래의 날들을 향해 웨친다
우리를 믿으라 조국이여
하늘에 닿은 그대의 억센 기상 안고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은 나태쳐오르려니
나는 은하과학자거리에서 산다!

나의 리상은 태여날 나의 아들과도 이야기한다
—아들아 너는 무엇이 되겠느냐
그러면 울려오는 우렁찬 화답
—아버지 나도 꼭 위성과학자가 될래요
저 놀이공원에 컴퓨터를 펼치고
제법 틀지게 한자리잡은
조각꼬마곰도 목소리 합쳐주누나
—나는 은하과학자거리에서 산다!

나의 랑만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파도 교신한다
—나의 사랑 위성이여
나의 모습 우리 행복 온 세상에 전송하라
부러움도 두려움도 없는 과학자
나는 은하과학자거리에서 산다!

인터넷의 창을 열어
과학의 동료들에게 묻고싶다
그네들의 땅에서 이런 거리에서 살 영주권이라면
얼마만 한 값을 치러야 하는지
아서라 내 구태여 묻지 않으리라
이 사랑 이 믿음을 어찌 값으로 매긴단 말인가
그 무엇과도 아니 바꿀 나의 궁지
나는 은하과학자거리에서 산다!

세상에 대고 알리노라
나는 조선의 위성과학자
나의 집 문패는 영원한 행복
나의 집 변함없는 주소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품
아, 나는 은하과학자거리에서 산다!



신입병사의 첫 경례

박 상 민

최전연으로 달리는 철차
단조로운 바퀴소리는
류다른 장단으로 울리는가
신입병사들이 부르는 군가에 맞춰

—평양이다!
그 웨침소리에
노래는 멎고
신입병사모두의 눈길은 차창에 쏠리고

금수산태양궁전은 어데쯤일가
대원수님들 계시는 만수대는 어데
평양전학의 못 잇을 나날
추억속에 영원할 개선청년공원은?...

신입병사들 저저마다 가리키는 곳으로
뜨거운 마음들은 달려가는가
번영하는 평양을 새겨두려는듯
오래도록 떼지 못하는 눈길들

이윽히 멀어지는 평양
정다운 고향과 작별하는듯
군모의 채양가에 오르는 손들
거수경례에 아직은 익숙되지 않았어도
름름한 병사의 첫 경례를 드린다

철차복도에 줄맞춰선 병사들
뜨거운 눈길에 가득찬 평양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전선에서 만나뵈을 그리움속에
신입병사의 첫 경례를 드린다

아, 최고사령관동지의 품속에서
모두다 영웅이 되리라
평양에 마음을 두고가는
저 병사들의 경례는
성스러운 조국통일의 보고로 이어지리!

가을날의 분노

황 성 하

가을이 왔다
산과 들에 단풍이 들고
전야엔 물결치는 이삭의 바다
더운 땀이 스민 대지에
탐스런 열매들이 주렁지는데

어찌하여
이 손으로 가꾼 소중한 열매들을
우리 달게만 먹을수 없는것인가
유정하고 풍요한 가을날에조차
가슴에 분노의 피를 끓여야 하는가

창조로 들끓는 이 땅에
새집들이기쁨과
즐거운 유원지에 넘치는 웃음을 없애려
추악한 괴뢰놈들이 이 땅에 몰아오는
동족대결의 저 검은구름

보느냐 대화와 통일의 열기에
화약내를 풍기고
미제의 부추김 받아 전쟁연습에 미쳐날뛰는
천추에 용서 못할 민족반역자들 향해
활화산처럼 타번지는 증오의 불길을

어찌 용서하랴
감히 우리에게 《핵포기》의 헛나발을 불어대며

내 조국의 절반땅을
미국제핵무기고로
핵전쟁의 전쟁터로 만들고
동족을 해치려고 미쳐날뛰는 전쟁호전광들을

원한에 사무친 분노로 이글대는 이 땅
오곡을 걷어들이는 농민의 눈빛에
증오의 불꽃이 번쩍인다
웃음많고 노래많은 사과따는 처녀들의
고운 얼굴조차 증오로 달아올랐다

이 나라 초소와 마을 그 어디나
복수의 함성이 하늘땅을 뒤흔든다
선군으로 다져온 무자비한 타격으로
원썬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자고
수풀마냥 설레는 총창들이
조국통일의 명령을 기다려
분노의 서리발을 내뿜고있다

풍성한 가을
창조의 열매들이 주렁진 이 땅
침략자 미제와
반통일역적들을 쓸어버리지 않고서는
이 땅에 행복의 열매를 가꿀수 없음을
뼈에 사무치게 깨우쳐주는
아, 가을날의 분노여!



그리움에 사는 사람들

엄 성 영
그림 김 광 석

가을, 풍요한 가을이다. 청산벌에 땅이 꺼지도록 금나락이 실렸다. 무겁게 고개숙인 벼이삭들이 흥치며 설레인다. 금파만경이런가, 아득히 펼쳐진 벼바다위로 백학이 너울너울 춤춘다. 선들바람에 실려오는 구수한 난알향기...

청산벌은 벼가울이 한창이다. 규격포전을 주름잡아 달리는 벼수확기들, 낫날을 번뜩이며 걸싸게 벼를 베여가는 사람들, 너인 하나가 아름이 별게 벼단을 안은채 허리를 편다. 풍요한 벌을 둘러보며 흐뭇하게 웃는다, 이마에 맺힌 구슬땀을 흠칠 생각도 잊은듯...

나는 방금 베여낸 벼이삭을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벼알들이 하나같이 또글또글하다. 쪽정이 한알 찾아볼수 없다. 총알같이 팡팡 영글었다.

이삭은 어떻게 영그는것인가?

봄은 어디에서...

열매주렁지는 가을은 싹트는 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봄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것인지?...

얼음버께가 백곰처럼 웅크리고있는 봉상강 방쪽길을 따라 한사람이 걸어가고있다. 보통키, 길쭉하면서도 갱빳한 얼굴, 수북한 장미밑에서 씹없이 껌벅이는 두눈...

이마에 깊숙이 패인 주름을 보면 어지간히 나이가 들어보이지만 어딘가 강기가 느껴지고 기백에 넘쳐 걸음을 옮기는 사람, 그는 청산협동농장의 민경남작업반장이다.

이 아근에서 땅을 다루는 사람은 물론, 읍에 직장을 두고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남먼저 새벽이슬을 차며 논두렁길을 걷는, 달이 떠오를 때까지 포전에서 일손을 놓지 않는 그를 띄여보곤 했다. 그리고는 한마디씩 외우곤 한

다. 《벌을 안고사는 사람》, 《땅과 말하는 사람》이라고.

민경남은 하루일과의 첫 순서를 작업반포전을 돌아보는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과정에 농장관리위원회에서 조직하고 분공된 영농공정별 진행정형을 직접 확인하고 새롭게 취할 대책을 강구한다.

방금전 청산리농업과학기술지식보급실에 들렀다가 모판자리로 향한 그는 생각이 깊었다.

(봄씨뿌리기를 어떻게 하면 제철에 끝낼수 있겠는가?)

이해따라 봄이 더디게 찾아온다. 날씨가 좀처럼 풀릴줄 모른다. 눈앞에는 늦추위를 두고 봄씨뿌리기를 안타깝게 걱정하던 작업반원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칫하면 적기를 놓칠수 있다. 무슨 방도가 없겠는가?

《차, 이거 설을 거꾸로 쇠었나?》

민경남이 모판자리에 이르렀을 때였다. 방풍장저쪽에서 누군가 투덜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벌걸음을 그쪽으로 돌렸다. 2분조장 최성팔이 곡괭이로 언땅을 파보며 불부은 소리를 하다가 작업반장을 띄여보았다.

《이것 보십시오. 아직 한겨울입니다.》

분조장의 마음이 이해되었다. 녹지 않은 땅때문에 어지간히 속이 단 모양이다.

《음, 한겨울이라...》

민경남은 땅바닥에 나딩구는 곡괭이를 잡고 몇번 휘둘러보았다. 멍멍 맞선다. 언땅알갱이들이 파편조각처럼 사방으로 휘뿌려진다. 땅이 녹고 씨뿌리기를 할수 있게 감이 들려면 아직 얼마나 시일이 걸려야 할지 대증할수 없다. 한낮동안에는 해벌에 땅거죽이 녹아 바지가랭이에 흠탕이 게발리다가도 초저녁이 되면 언제 그랬더냐싶게 쫘쫘 얼어붙는다. 설을 거꾸로 쇠느냐고 푸념질할만도 하다.

이대로 나가다간 씨뿌리기철을 놓치고 손맥을 잃게 된다.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원썬놈들이 그것을 꺼한다.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걸고들면서 이 땅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다. 죽으나사나 올해농사를 잘 지어 나라의 쌀독을 그득그득 채워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첫 신년사에서 농업전선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주타격방향으로 정해주시고 앞장에서 끊임없는 헌신의 길을 이어가 고계신다!

민경남은 마음을 가다듬었다. 농업과학기술지식 보급실에 들린것도 실은 봄씨뿌리기를 제철에 할수 있는 방도를 찾기 위해서였다.

《땅만 녹으면 씨뿌리기를 불이 번쩍나게 해제길 수 있겠는데...》

최성팔이 더수기로 손을 가져가며 어쭙게 미소를 짓는다. 그로서는 작업반장의 마음을 넘겨걸고 한 말이겠지만 민경남에게는 왜선지 귀설게 들렸다. 만약 그의 말대로 한다면 눈이 녹고 땅이 풀리기 전까지는 모판씨뿌리기를 할수 없다는 소리가 아닌가?

그는 가볍게 도리머리를 저었다. 작업반이 말은 알곡생산계획, 스스로 높이 세운 전투목표, 이것은 단순한 생산실무적과제가 아니다. 죽으나사나 점령해야 할 전투목표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현실로 꽃피우는 길이다!

《분조장동무, 논같이준비는 다 됐소?》

민경남은 최성팔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물었다. 며칠전 그는 봄철영농공정추진정형을 료해하다가 깊이갈이를 보장할수 있게 트랙토르와 런결 농기계수리정비를 잘하도록 분공을 주었던것이다.

《예, 빈틈없이 해놓았습니다.》

최성팔이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날 저녁.

작업반사무실에서는 기술원과 분조장, 반원들의 참가밑에 협의회가 열렸다. 모판씨뿌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문제토의였다. 협의회가 시작된 때로부터 퍼그나 시간이 흘렀지만 씨뿌리기날자를 정하는데서는 아직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민경남은 반원들의 목소리를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담아들었다.

《글쎄 당장 모판씨뿌리기를 하자는데는 나도 반대없습니다. 그렇지만 땅이 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귀한 씨앗을 언땅에 묻어놓고 누군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나는 최소한 언땅이 녹은 다음에 씨뿌리기를 진행하자는겁니다.》

앞자리에 앉은 2분조장의 말은 잠시 소란스럽던

장내를 진정시켰다.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 침묵이 흘렀다.

(그때 여기에 또 다른 의견이 없단 말인가?)

민경남은 앉은자리에서 납덩이같은 침묵이 깔린 방안을 빙 둘러보았다.

이때였다. 뒤쪽구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작업반에서 수십년간 논물관리공으로 일해오는 장동무였다.

《땅이 풀려야 씨뿌리기를 할수 있다는 말은 옳수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땅이 녹기를 기다릴수는 없수다. 씨뿌리기철이 박두한 지금 어떻게 기다리고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모판자리에 물질을 끌자는거우다.》

《언땅에 물을 댄다구요?》

사람들은 의아한 생각을 금치 못했다. 서로 얼굴만 마주보았다.

《그렇수다. 언사과를 녹일 때 찬물속에 담가 얼음을 빼는 리치와 같다고 할가.》

《그것 참 묘한 생각입니다.》

민경남은 놀랐다. 그가 내놓은 의견이 자기의 생각과 꼭같았기때문이었다. 리농업과학기술지식보급실에서 초보적으로 합의본 방도였다.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민경남은 작업반기술원의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다. 기술원이 자리에서 엉거주춤하며 일어났다.

《리치는 뻔한데 만약 땅속얼음이 채 풀리지 않게 되면 싹트기가 늦어지고 벼알이 굵거나 썩을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음, 위험하단 말이지?》

민경남은 잠시 생각을 더듬다가 누구에게라 없이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보다 더 위험한건 할수 있는것도 할수 없다고 하는것이요!》

작업반사무실에는 가벼운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방금 한 그의 말을 음미해보는것 같았다.

기침소리와 함께 기술원이 다시 일어났다.

《문제는 종자의 발아온도를 보장하는것인데 모판에 씨를 뿌린 다음 제창 활창대를 늘이고 박막을 씌워주면 될것 같습니다.》

기술원이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옳다! 기술원도 논물관리공의 착상도 좋지만 그보다 씨앗을 자기의 피더운 가슴에 품안아 키우려는 애국의 마음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

민경남은 넉넉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에서는 근엄한 빛이 흘렀다. 장내를 더듬는 두눈은 황황 불타고있었다.

《동무들, 우리는 어떤 난관이 가로놓여도 모판씨뿌리기를 제철에 해야 합니다. 줄대같은 모를 키워 높이 세운 알곡목표를 기어이 점령해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

에 봄이 오고 청산리에 풍년이 들어야 온 나라에 만풍년을 안아줄수 있다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었습니다. 절세위인들의 발자취가 력력하고 고귀한 체취가 뜨겁게 스민 청산리의 주인들인 우리가 어찌 이만 한 난관앞에 주저하며 손땀을 놓을수 있겠습니까? 자연의 계절에 앞서 우리가 먼저 봄을 불러옵시다!》

반원들의 기세가 오르자 하루사이에 물도랑이 째지고 봉상강의 물이 모판자리로 흘러들었다.

민경남은 잠시도 일터를 뜨지 못했다. 물도랑을 더 깊숙이 째고 물뚝을 띄워주기도 했다. 반원들은 힘든줄 몰라했다.

《자, 좀 쉬어서들 합시다!》

민경남이 말했으나 누구도 그렇게 움직일줄 몰랐다. 오히려 일손만 더욱 다그쳐질뿐이다. 가슴이 뜨거워올랐다. 그럴수록 그들을 아껴야 했다. 하는수없이 자신부터 담배를 꺼내어 피웠다, 반원들에게 권하며.

농장방송선전차가 달려왔다.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춤과 노래로 흥을 돋구주었다. 농장관리위원장의 얼굴도 보인다. 신년사관철제로 불러일으키는 방송원의 열띤 목소리가 청산벌을 들었다놓는다.

《얼음이 빠진다!》

갑자기 누군가의 목소리에 이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리로 쏠린다. 유유히 흘러가는 물줄기에 얼음버께가 뚱뚱 떠내려간다. 언제까지 양버틸것 같던 언땡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한것이다.

민경남의 얼굴에도 사람들의 얼굴에도 소리없이 미소가 피어났다.

결국 봄은 자연에 앞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오는것이 아닌가!

푸르른 들에서

부지깽이도 뽕다는 모내기철이다. 민경남은 눈코 뜰새없이 바빴다. 줄대같이 키운 모판도 돌아볼라 씨레를 앞세운 논판도 찾아볼라 정비를 끝낸 모내는기계들도 살펴볼라 꿈무늬에 불이 당겼다. 그런 가위에도 하루일파의 첫순서만은 어김이 없다.

민경남은 지금 작업반의 사적포전앞에 서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른새벽 험한 논두렁길을 농민들과 함께 걸으시었고 새날이 밝기 전에 또다시 농장벌을 찾으시여 손수 풍년모를 심어주신 포전이다. 사적포식비를 마주하고 서면 청산리에 새겨져 있는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이 가슴그들먹이 피여오르고 그러느라면 어느새 막혔던 고리도 풀려나가고 스스로 마음이 안정되군 했다. 그래서 정해진 하루일파의 첫걸음이 인제는 허물수 없는 하나의 습벽으로 굳어졌다.

민경남은 주머니에서 담배갑을 찾았다. 아직 곳

잡에서 채 깨어나지 못한 젓빛안개가 계정을 부리듯 씨레를 친 논판우에서 이리저리 굽는다. 이제 사흘후면 사적포전에서 시적인 모내기보여주기사업이 있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청산리에 찾아오시여 모를 내신 뜻깊은 날을 맞으며 해마다 년례행사처럼 치르는 사업이다.

민경남은 기분이 상쾌해였다.

(미흡한데가 없는가?)

그는 모내기보여주기준비에서 혹시 설치거나 놓친 빈구석이 없는가를 다시한번 꼼꼼히 더듬어나갔다.

《작업반장동무가 아니에요?》

뜻밖에 윤춘화관리위원장이 찾아왔다.

《작업반장동무를 만나려면 그저 포전에 나와야 한단िका요, 호호...》

《허허, 누가 할 소린지... 그런데 웬일루?...》

민경남은 윤춘화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보여주기사업을 앞두고 두루 걱정돼서 나왔습니다.》

《그럴테지요.》

민경남은 관리위원장이 고마왔다. 녀성의 몸으로 가정을 돌볼라 남편을 내세울라 좀 바쁘랴싶지만 그런 내색은 표출만치도 찾아볼수 없는 윤춘화다. 관리위원장으로 일한지는 몇해밖에 안되지만 농사미립에 밝고 농장관리위원회에서 토의결정된 일을 암팡지게 내밀줄 안다.

《앙금이 앓기 시작했군요.》

윤춘화가 앞장서 두렁길을 밟으며 논판의 흙 한 줌을 움켜쥐어보고 하는 소리였다.

민경남은 젊은 녀성관리위원장이 이렇듯 다심한데 저으기 감심되었다.

《모상태는 어때요?》

《줄대같습니다.》

민경남은 그가 모상태를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라는것을 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게 모판을 돌아보는 관리위원장이자. 모내기보여주기를 앞두고 누구라없이 마음의 준비를 갖추도록 각성시키는것이다. 민경남은 작업반의 논물상태며 씨레치기정형, 모내는기계의 가동할수 있는 대수까지 설명했다.

《빈구석이 없군요. 그만하면 보여주기사업을 성파적으로 보장할수 있을것 같애요. 수고가 많았습니다.》

《필요? 관리위원회에서 다 도와준 덕입니다.》

소박하고 겸손한 작업반장의 됴됨을 음미해보던 윤춘화가 이번에 손님들의 대렬은 어떻게 지으며 그들이 타고온 빠스는 어디에 세워놓겠는가 하는것까지 관심하고나서 이렇게 물었다.

《모내는기계는 누가 운전하기로 했어요?》

《김영식동무를 추천했습니다.》

《김영식?… 수렁 논에 트랙토르를 구겨박았던 그 동무 말입니까?》

《예, 왜 그러니까?》

민경남은 윤춘화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관리위원장이 동안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다.

《어쩐지 선뜻 내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대신할 동무는 없는가요?》

윤춘화의 말은 무리가 아니었다. 지난해 마가를 농장에서는 봉상강 주변의 저지대인 늪을 논으로 풀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갈대가 숲을 이루고 창포만 무성했던 저지대에서 새땅을 얻어내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허리까지 푹푹 빠지는 수렁탕에 흙을 날라다 펴야 했고 왁살스럽게 뒤엎킨 그루터기들을 뿌리채 들어내야 했다. 사람들은 한치의 땅이라도 더 얻어내려고 욱옥했다. 새땅찾기가 마감고비에 이르렀을 때였다. 김영식이 그만 일을 저질렀다. 이곳 저지대의 지형조건을 채 파악하지 못한 그가 욱심을 앞세우던 나머지 적체함에 산더미처럼 흙을 실은 트랙토르를 마구 들이밀었다가 수렁탕에 빠진 것이다.

김영식으로 말하면 제대명령을 받고 년초에 농장으로 자원진출해온 청년들중의 한사람이었다. 꿈이 많고 포부가 큰 진취적인 청년이었다. 땅크병출신인 그는 몸매가 박달나무처럼 다부지고 무슨 일이나 땅크처럼 욱 내밀기를 좋아했다. 리문화회관에서 제대군인들을 축하하는 환영모임이 있던 날 처녀들은 그에게도 꽃다발을 안겨주며 속살거렸다.

《애, 정말 땅크처럼 생겼다예.》 하고는 서로 마주보며 얼굴을 붉혔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웬만한 사람같으면 트랙토르 사고를 쳤으면 가책을 느끼고 사람들을 보기 송구스러워해야겠는데 그런 기미는 통 찾아볼수 없다. 주점이 들기는커녕 농장대학에 입학시켜달라고 하면서 하루일이 끝난 저녁이면 과학기술지식선전실에서 밤늦도록 농업기술학습을 한다는 것이다. 그야 물론 좋은 일이지만 분별을 잃기가 쉽고 자신을 가늠할줄 모르는 그가 시적인 보여주기사업에서 또 무슨 일을 칠지 알수 없는 것이다.

《왜, 미덥지 않아서 그러니까?》

민경남이 물었다. 윤춘화가 머리를 기웃거렸다.

《만약 그를 모내내기계운전공으로 내세웠다가 또 사고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번일은 우리가 리해할랐지만 이번일은 시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경남은 대답대신 생각이 깊어졌다. 머리속은 삼거우처럼 오만가지 생각이 겹쳐돌았다. 관리위원장의 말이 우연치 않다. 이번 모내기보여주기가 과연 어떤 사업인가?

하지만 민경남은 김영식을 믿고싶었다. 도시에서 자란 그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관철하겠다

고 농장에 자원진출한것만도 어딘가! 젊은 혈기에 본의아니게 일을 좀 그르쳤기로서니 그를 따돌리고 낮가림을 한다면 장차 하늘의 별이라도 따올것 같은 양기는 누가 지켜주고 키워주겠는가? 오히려 그 좁한 일에 주눅이 들지 않고 기가 꺾이지 않는 영식이가 대견했다. 이제는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적인 젊은이들을 작업반의 주인으로 당당히 내세워야 한다.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어 농촌진지의 대를 굳건히 이어가야 한다!

《왜 말이 없는가요? 반대의견인 모양이지요?》

윤춘화의 시선이 다시 민경남의 얼굴에서 떴었다.

《예, 난 반대입니다. 영식동무를 믿습니다. 믿을뿐아니라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그는 이번 일을 앞두고 모관주변에서 모내내기계운전원습도 하고 엿저녁엔 사적포전략도를 놓고 모내내기계의 왕복자리길까지 그려가지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윤춘화가 침묵을 지켰다. 맑고 신선한 새벽기류가 줄달음쳐오며 폐부로 흘러든다.

《물론 경험이 풍부한 모내내기계운전공을 영식이 대신 내세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젠 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관리위원장동무, 믿읍시다. 믿음은 곧 힘을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꿈이 많고 새것에 민감한 젊은이들을 농장의 어엿한 주인으로 키웁시다. 장차 그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쌀로써 받드는 농촌진지의 기둥감이 되여야 할게 아닙니까?》

윤춘화는 가슴이 뜨거웠다. 얼마나 웅심깊은 작업반장인가! 지금껏 그의 마음을 모르고 지낸것은 아니지만 이번준비에까지 이렇듯 속깊은 마음을 기울일줄은 몰랐다.

윤춘화의 머리속에는 문득 민경남작업반장을 두고 해주던 리당비서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여러해전, 민경남이 리당사무실로 찾아왔다.

《무슨 일인데?…》

동년배의 리당비서는 의자를 권하며 소탈하게 맞아주었으나 그는 웬일인지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나를 좀 도와주시오.》

밀도 끝도 없는 소리에 리당비서는 눈이 둥그레졌다.

《군대에서 제대된 내 아들녀석이 글썽 남포시 어느 기관에 배치를 받았다는게 아니겠소.》

《그런데요?》

《정신이 쑥 빠졌지. 제 근본을 잊다니. 이게 어디 될말이요?》

민경남은 억이 막힌듯 말을 더듬었다.

《허허, 좀 진정해서 말하구려.》

리당비서는 한참후에야 민경남이 찾아온 사연을 알수 있었다.

《그런데 농사군의 아들이라고 꼭 농촌에 와서

일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소?》

《그야 그렇지요.》

《그럼 됐습니다. 당에서 다 생각하고 배치했을 터인데 너무 마음쓰지 말라구요.》

리당비서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민경남이 그의 소매자락을 잡았다.

《아닙니다. 그녀석은 내가 잘 알지요. 우리 청산리가 어떤 고장입니까? 그녀석이 꼭 여기로 배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남포시에 배치받았던 아들 민정철이 청산리로 오게 되었다. 곧 청산농장대학에 입학하였고 농장에서 일 잘하기로 소문난 처녀와 가정을 이루었다....

리당비서의 이야기를 돌이켜보고난 윤춘화의 가슴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잡았다.

모내기보여주기, 이것은 단순히 논판에 모를 내는 기술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다. 이 땅을 가꾸는 사람들,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농장원들이 어떻게 심신을 키우며 백옥같은 충정심으로 우리 당을 받들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사업으로 되어야 한다!

윤춘화는 이 아침 자신의 마음속 빈구석을 한두 마디의 말로 가볍게 일깨워주는 민경남작업반장이 고마웠다. 한생을 쌀로써 당을 받들어온 로력영웅이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사람이 다르다는 생각이 새삼스레 갈마들었다.

《반장동무, 결국은 준비사업이 바늘 들어갈 틈도 없이 잘됐다고 봐도 되겠군요.》

《허허, 그렇다고 맘놓을수는 없지요.》

민경남의 대답은 소박하였다.

5월 12일!

사적포전에서는 시적인 모내기보여주기사업이 있었다. 구름처럼 하얗게 밀려온 참관자들중에는 시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과 협동농장관리위원장, 기사장들, 작업반장들의 낮익은 얼굴들이 보인다. 참관자들은 숨을 죽이고 뜻깊은 사적포전에서 첫모를 내는 작업반원들의 공지에 넘친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있었다.

유리판처럼 반듯하게 정리된 논판, 통통통... 모내는기계의 경쾌한 동음, 끝없이 펼쳐지는 푸른 주단, 김영식의 밝은 얼굴, 모공급수처녀들의 날렵한 일숨씨...

윤춘화관리위원장이 기회를 농칠세라 농장의 어제와 오늘, 래일에 대하여 설명한다.

마음은 언제나

옛그제 모를 낸것 같은데 청산벌은 하루가 다르게 푸르싱싱하다. 무성하게 아지킨 벼잎사귀들이 땅냄새를 맡고 시커멓게 용을 쓴다. 복합미생물비료를 듬뿍 낸 보람이다.

《영식동무, 이런 논벼작황을 두고 학술적으로는 뭐라고 하나?》

민경남은 함께 김매기를 하고있는 그에게 물었다.

《초기발육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작황이란 말은 때이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건 이삭이 팬 다음에 할 소립니다. 김 한대라도 놓치면 쪽정이가 생길수 있기때문입니다.》

거침없고 당돌한 대답이었다.

《그렇지! 벌써 작황을 운운하는건 일러. 현대 요즘도 윤심기사를 만나보군 하나?》

《예, 저녁마다 찾아갑니다. 아는것이 많고 좋은 동무입니다.》

윤심이란 리농업과학기술식보급실의 농산기사이다. 소박하고 상냥하고 깨끗하게 생긴 처녀이다. 민경남자신도 모를게 있으면 더러 그를 찾아가군 한다. 막히는데 없이 박식하고 어려운 기술문제도 알기 쉽게 통속적으로 설명할줄 안다.

《그으래?...》

민경남은 말꼬리를 끌며 머리를 끄덕이었다. 벌을 주름잡아 달리는 김매는기계들의 동음이 가까이에서, 멀리에서 어우러지며 경쾌하게 들려온다.

《반장동지, 갑자기 그건 왜 묻습니까?》

김영식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의아한 기색이다.

《나도 좋아서 그래.》

《예예?!...》

《거 있지 않나? 꽃다발이 인연이 됐다는 노래 말이야, 허허.》

《차차, 반장동지두, 남은 생각지도 않는데...》

갑자기 김영식의 얼굴이 홍당무우색으로 붉어졌다.

《왜, 영식동무가 어째서?... 내 한번 말을 꺼내볼가?》

《그만두십시오. 난 농장대학을 졸업하기 전에는 장가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지 말라구. 좋은 처녀가 있을 땐 제격 쟁취할줄도 알아야 해. 땅크병기질은 똘다 뭘하겠나? 허허...》

논판에 폭소가 터졌다. 반원들은 힘든줄 몰랐다.

《반장동지, 좀 쉬십시오, 년세도 있는데.》

《아니야. 반장동지가 없으면 일할 재미가 없어.》

《그럼 논두렁에 그냥 서계시라고 하자꾸나.》

젊은이들이 절로 찡고까불었다. 반원들은 땅처럼 거짓을 모르고 진실한 작업반장을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했다.

《고답네, 나도 작업반원이야!》

민경남은 다시 말꼬리를 이었다.

《기술원동무, 뭘하나? 이럴 때 기술학습을 해야지. 꼭 격식을 차려야 맛이겠나?》

《허, 학습이요? 나도 박사가 되는게 아니야?》
누군가 우스개소리를 꺼냈다가 민경남의 정색한 표정에 금시 자라목이 된다.

《박사가 되면 좋지 나쁠건 뭐가? 이 땅을 다루자면 누구나 박사가 될 공리를 하라구.》

목소리는 통명스러웠지만 거기에는 민경남의 진심이 깔려있었다. 그는 과학기술을 중시했다. 주체농법을 관철하자고 해도 그래,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하려고 해도 반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했다. 열성 하나만 가지고 일하던 때는 지나갔다. 농업생산의 예비는 과학기술에 있는것이 아닌가.

작업반기술원이 벼생육기에 따르는 덧비료시비량과 합리적인 논물온도, 살초제사용방법을 다시한번 설명한 뒤 민경남이 덧붙였다.

《자료에 의하면 농업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이 1프로만 높아져도 농업생산성이 20프로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앞으로 이 땅을 가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루는 이 땅이 과연 어떤 땅입니까?》

민경남은 생각할수록 가슴이 뜨거워났다.

오신다는 소문도 없이 농장을 찾으시여 민주선전실 앞마당에 수수한 명석을 펴놓고 농민들과 허물없이 마주앉아 농사일을 의논해주신 아버지수령님, 저수지에서 홀러드는 물에 염기가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논벼생육에 지장이 있을세라 그 물맛까지 보아주신 수령님의 사랑을 어이 잊을수 있으랴!

아버지수령님의 사회주의농촌건설구상을 이 땅우에 더 활짝 꽃피우시려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고찾으신 현지지도의 길은 또 얼마인가?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찾아오시여 농장살림을 의논해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다심하신 그 사랑은 또 무슨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실로 청산리는 백여차례에 걸치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영광의 땅,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이 창조된 력사의 땅이 아닌가!

민경남은 이 땅을 대를 이어 가꾸며 곳곳이 지켜가려고 마음다졌다.

아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있는 엿저녁일만 해도 그렇다. 일을 마친 그가 집에 들어가니 아래마을에서 살고있는 아들, 며느리, 사위까지 다 와있었다. 울망줄망한 손자, 손녀까지 한데 모여 오구작작 떠들었다. 내외간이 조용히 살던 집안이 법석 끓는다. 지금껏 체살림에 재미가 붙어서인지, 일이 바쁜탓인지 좀처럼 집에 발길을 하지 않던 자식들이다. 부엌의 가마에서는 물이 설설 끓고 뜬김이 서린 방안에 고소한 냄새가 풍겼다.

《허허, 이게 웬일이요?》

민경남은 입귀가 벌어진채 안해에게 물었다.

《웬일이라니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그는 안해의 지청구에 어안이 빙빙했다.

《무슨 날이게?...》

《예구, 당신 생일이 아니냐요.》

《허허, 그렇던가?》

그래서 자식들이 한구들 모인 모양이다. 방안에서 텔레비존을 보고있던 아들, 사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에서 동자질하던 딸과 며느리까지 방안에 들어와 인사를 했다.

《너희들 오래간만이로구나. 그래 말은 일들은 다 잘하고있느냐?》

아들, 사위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안해가 나무라운 소리를 한다.

《너희 아버지는 그저 일밖에 모르신단다. 손자 녀석이 매달리는데 좀 안아주시구려.》

《허허허...》

푸짐한 저녁상이 쟁겨졌다. 모두들 밥상에 빙 둘러앉았다.

《아버지, 생일을 축하합니다. 건강하여 작업반을 잘 이끌어주십시오.》

정철이가 아버지에게 술을 부었다.

《고맙다. 너도 작업반장일을 잘하거라.》

《예.》

이번에는 딸이 오금을 꺾으며 잔에 술을 부었다.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오냐. 상다리가 부러지겠구나.》

《그저 마음뿐이에요.》

《네가 참 뜻깊은 말을 하는구나. 밥상이 푸짐하고 못한건 농사군인 우리가 어떻게 맘먹고 일하는가에 달려있다.》

가정적인 화목속에 저녁식사가 끝나고 상을 물린 뒤였다.

《네가 오늘신문을 봤느냐?》

민경남이 불깃한 얼굴로 아들에게 물었다.

《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또다시 자강도의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신 소식이 실렸습니다.》

《알았으면 됐구나. 우리 원수님께서 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맡기고가신 우리 인민들을 지켜주시고 더 잘살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지금이 어느때냐? 김매기전투가 한창인 때에 우르르 밀려와서...》

《에그, 뻘수다. 어쩌다 찾아온 애들을 놓고... 그렇지 않아도 개들이 제 아버지 성미를 잘 알구 새벽으로 돌아서겠다고 이렇게 저녁에 찾아왔수다.》

《허, 그렇다면 좋은거구.》

민경남은 얼굴에 만족한 미소를 띠우며 연신 머리를 끄덕였다. 아무렴, 대끝에서 대가 나와야 정상이지....

오늘 아침 민경남은 네활개를 펴고 콧잠이 든 손

동 발

리 명 학

나에게 입쟁이 승인되어
급한 마음으로
쟁입구에 들어서니
제일먼저 반기는것은 동발
탄부들이 친구의 이름처럼 찾던
그 동발나무

무심히 볼수 없어
그대로 스칠수 없어
하나하나 살펴보니
꼭꼭이 서있는 동발나무

아직도 옛모습 잃지 않고
그 언제인가는
푸른 잎새 자랑하며
곧음을 자랑하며
산에산에 키높이 솟아있던 나무

그 기상 조금도 굽힘이 없어
어둠속에 말없이 서있는 너
네가 받쳐든 그 땅의 무게 얼마더냐
네 몸에 가지는 하나 없고

푸른 잎새 보이지 않아도
너의 장한 모습 어찌 가로수에 비기랴

꽃은 피어나야 아름답고
나무는 푸르려 설레야
숲을 이루건만
탄부들이 너를 먼저 찾음은
그때문이 아니여라

어깨에 걸머진 짐이
아무리 무겁다 해도 흥정을 모르고
오로지 마지막순간까지
부서질망정 굽힐줄 모르는
그래서 너는
탄부의 가장 믿음직한 벗

너처럼 살고싶어
네옆에 설자리 찾고싶구나
너처럼 변함없이
제 설자리 굳건히 지켜가며
조국을 받들어 말없는 동발이 되고싶구나!

자녀석들을 둘러본 후 집을 나섰다. 하루일과의 첫 순서를 어기지 않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 농업전선에는 자고로 쌀로써 땅을 받들고 나라를 받들어온 애국농민들의 자욱이 력사에 진하게 남아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애국농민들처럼, 천리마시대의 농업선구자들처럼 쌀로써 우리의 사회주의를 지켜냅시다. 청산리에서부터 풍요한 가을을 안아옵시다.》

민경남의 말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작업반원들은 더욱 결사게 김을 매나갔다.

그때로부터 보름이 지난 저녁무렵이었다.

민경남은 노을이 내려앉는 포전들을 돌아보고있었다. 숲을 이루며 용을 쓰던 벼포기들이 허리를 치게 우긋이 자라올랐다. 매듭이 통통하게 부푼겉보니 조짐이 좋다.

《허허, 이삭이 켈 때가 됐군!》

그는 이삭이 켤 때는 포전을 경애하는 원수님께 보여드리고싶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득 청산벌을 찾아주시는지 어이 알랴!

《땅과 무슨 말을 하고있습니까?》

농장기사가 웃으며 곁으로 다가왔다.

《이것 보시오, 이삭이 꽤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나도 봤습니다. 날이 저무는데 작업반장동무는 왜 포전을 뜨지 않습니까?》

《예, 두루두루... 그런데 기사장동무는 왜 아직 벌을 뜨지 않고있습니까?》

《예, 그러저러... 내가 반장동무의 마음을 알아맞혀볼가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득 청산리를 찾아주시면 인사드릴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거겠지요.》

《허허, 조선속담에 제 속 짚어 남의 소리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사장동무도 결국... 허허.》

《허허...》

두사람은 즐겁게 웃었다. 마음은 언제나 한뼘으로 흐르기마련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청산리에 모시고싶어하는 절절한 그리움이 이 땅에 벼바다 설레이는 풍요한 가을을 불러오는것 아닌가!

하나둘 나비등이 켜졌다. 보폭에서 흘러드는 물소리가 별로 유정하다.

하늘에는 별이 돋기 시작했다. 훈풍이 옷자락에 매달린다. 좋은 저녁, 좋은 밤이다.

혁신적안목과 작품의 형상세계

—장편소설 《세월에 새기라》를 두고—

리창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에서 조직한 전국문학축전에서 축전상을 받은 장편소설 《세월에 새기라》(리명 작)는 높은 사상예술적감화력과 독특한 형상세계로 하여 수많은 독자들속에서 널리 읽히고있으며 그 성과의 비결에 대하여 적지 않게 론의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대담하게 착상하고 형상하여야 한다. 공연히 이것저것 재면서 눈치놀음을 하여서는 도식적인 틀에서 벗어날수 없다.》

작품은 우리 나라의 어느 한 화학공장에서 벌린 지난 세기 1970년대 70일전투과정에 과학자, 기술자들이 로동계급과 힘을 합쳐 쓸모없이 날려보내던 폐물을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소재로 하고있다. 소설은 우리 시대 참된 주체형의 인간은 그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의 공명이나 보신과 같은 사심을 버리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스스로 자기의 모든것을 다하며 지어는 생명까지도 바칠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것을 높은 사상예술적성적으로 보여주고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되는것은 주인공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의 성격발전과정이 진실하고 현재에서 과거생활을 밀착시켜 이야기를 벌린 특색있는 구성조직, 이채로운 언어형상 등이다.

이것은 작가가 혁신적안목으로 성격과 생활을 탐구하고 그에 맞는 예술적기교에 깊은 관심을 돌렸음을 실증하여주고있다.

1

작품은 우리 당의 인덕정치, 광복정치가 사람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키워 참된 주체형의 인간으로 떠받들어올렸는가를 뜨겁게 형상하고있다.

소설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주인공을 몇몇치 못한 가정출신의 기술자로 설정한것이다.

중심주인공 김리진, 그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나라앞에 매우 엄중한 죄를 지은 사람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 김영도는 연유창경비원이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될 때 그는 연유창군처에 쫓

어진 시한탄을 함께 끌어내자고 다급히 부르는 경비원 전준갑의 목소리를 듣고서도 당장 해산할 안해에 대한 생각으로 시간을 지체한다. 순간의 그 후과는 참으로 컸다.

시한탄의 폭발로 전준갑은 희생되고 연유창은 불탔으며 후퇴의 길에 오른 어느 한 기계공장의 화물차에는 연유를 줄수 없게 된다.

또한 공장설비들을 실은 소달구지가 적들의 폭격을 받아 재가루가 된다.

영도는 죄의식으로 하여 그 고장을 떠나 방황하다가 적의 폭격에 죽고만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이러한 사람의 아들을 아무런 차별없이 대학공부까지 시켜주었으며 공장공업연구소 연구사로 사업하게 한다.

높은 과학기술의 소유자로 된 김리진, 그는 공장에서 내보내는 폐물을 리용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에 접하여 그것을 관철할 기술혁신안을 내놓는다.

아직 세계의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폐물을 잡아 생산에 리용할 방도를 내놓지 못하고 그림의 떡처럼 여기고있지만 그는 얼마든지 단번에 폐물을 잡을수 있으며 그것을 요긴하게 생산에 써먹을수 있다고 확신한다.

거듭되는 실패와 좌절속에서 김리진은 70일전투 기술혁신돌격대에 망라된다. 그후 그는 국가과학원 열공학연구소 전주경과 합심하여 70일전투기간에 폐물을 100프로 잡는데 성공한다.

그의 성격에서 주도적인 특질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심장으로 접수하고 무조건 관철해내기 위하여 심혼을 깡그리 바치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다.

두차례의 시험실패로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준것으로 하여 그는 법기판의 추궁을 받을번 하였으나 관대히 용서받고 기술혁신돌격대에 망라되어 기어이 과학과 기술의 높은 목표를 점령해내고야만다.

그의 가슴에 차넘치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참으로 뜨겁고도 열렬한것이였다. 그는 나라앞에 지은 남편의 죄로 하여 남몰래 애태우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노라고, 그러한 자신을 사람들앞에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마

침내 목숨을 내대야 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그 위험한 일에 발벗고 나서는 영웅적소행을 발휘한다.

그의 성격의 주도적특질은 또한 더없이 맑고 깨끗한 량심이다.

그는 자기들이 보수한 3호로의 바깥곡관에서 휘발유가 새서 폭발직전에 이른 때 연유비말로 하여 숨쉬기도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 그것을 틀어막는 작업을 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온 공장이 그가 발휘한 영웅적소행을 두고 높이 평가한다.

그의 소행이 상급기관에 통보되어 수훈내신서를 가지러 중앙에서 일군이 내려온다.

그런데 그는 이 수훈을 마다한다.

자기보신의 울타리에서 생활하던 자신을 심각히 누우치고 수훈을 마다하는 그의 깨끗한 량심!

그것은 자신을 바쳐 당과 조국의 품에 삶의 뿌리를 내리려는 신념과 깨끗한 량심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작품에서는 내면독백으로 그의 심리세계를 이렇게 쓰고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생명을 위협하는 곳을 향해 주저없이 걸음을 걸고있다. 나를 증명하고싶어서가 아니라 나를 바치고싶어 가는 길이다.

준엄한 날 조국은 나의 출생을 기다려주었다.

나는 이 땅이 낳은 아들이다. 그 아들이 자기를 낳은 어머니조국을 위해, 먹여주고 키워주고 보살펴주고 빛내여주는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의 품을 위해 인생을 통채로 바치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진실로 나를 바쳐 당과 조국의 품에 삶의 뿌리를 내린 〈내〉가 되는 길이 진실로 나를 찾고 사랑을 찾은 길이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고싶어서가 아니라 바치고싶어 가는 길, 그 길에서 참된 삶을 꽃피우려는 그의 심장의 목소리는 얼마나 독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는것인가.

여기에 주체형의 인간의 참된 삶의 목표가 있고 우리 시대 영웅의 진실한 면모가 있다.

소설의 특성은 다음으로 원유가공공장에서 나오는 페불을 생산에 받아들이기 위한 중심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주요인물들의 성격을 리상화하지 않고 진실하게 그린데 있다.

여기서 주요인물들의 사색과 지향, 그들의 인생관을 철저히 혁명적수령관에 기초하여 그린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생동한 개성을 가진 인간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매 인물의 리상과 지향, 기쁨과 슬픔, 희망과 고민의 세계, 기질상특성들을 잘 파고들어 그린것이다.

이 소설에 나오는 주요인물들은 우리가 늘 만나는 그런 낮익고 친근한 사람들이다.

우점도 있고 부족점도 있으며 처음 알게 되어 강한 인상을 받게 되는 당일군, 과학자, 노동자들이다.

작품에서는 이들의 성격을 리상화하지 않고 그 모든 인물들이 사업과 생활을 통하여 부족점을 고치고 서로 돕고 이끄는 파정에 수렴, 당, 대중의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였다. 여기에 이 작품의 성격창조의 혁신적면모가 있고 독자들에게 매 인물들이 당일군으로서, 과학자로서, 노동계급으로서의 매력있는 형상으로 안겨오게 한 비결이 있다.

정류직장 분초급당비서인 강대철은 점잔을 빼며 틀을 차리는 인간이 아니라 왕성한 패기와 정열에 넘쳐 뛰고 또 뛰는 인간이며 생활도 검박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신 페블리용에 대한 말씀을 전달받고 그것을 단번에 100프로 리용할데 대한 김리진의 기술혁신안을 적극 지지하며 두차례에 걸치는 실패를 둘러싸고 페블리용을 조금씩 하면서 점차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심화시키자는 기사장 전준혁과 열공학연구사인 그의 조카 전주경의안을 소극적이라고 반대한다. 이것은 그가 확고한 과학적인 리해에 앞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관철에서 어떤 자세와 립장을 가져야 하는가를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소설에서는 분초급당비서 강대철을 작품의 사상적대, 정책적대를 세우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형상하면서 주인공 김리진의 사업과 생활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참된 당일군으로 형상하고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성격상 과격하여 때로는 노동자들속에 오해를 줄수 있는 부족점도 가지고있다.

그것은 자기의 결함을 공장책임비서 한정묵에게 솔직히 비판하는 장면을 통해 알수 있다.

이 소설에서는 당일군을 형상함에 있어서 성격을 격식화하지 않은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공감을 준다.

당일군이라고 하여 다 완성된 인간으로 그린다면 성격형상이 틀에 박힌 인간으로, 개성이 없는 인간으로 느껴질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그의 성격은 참으로 시사적이다.

그가 조국해방전쟁시기 화선에서 부상병들을 후송하다가 불구자로 된 영예군인처녀와 결혼하기 위해 자기의 의지를 시험하는 장면, 또 친자식으로 키운 영웅전사의 아들과 조카인 전주경을 결혼시키자고 기사장 전준혁이 제기할 때 아무리 훌륭한 대상자라 해도 남의 행복에 그들은 주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에 찬성해나서지 않는 그 웅심깊은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작품은 또한 개성이 있는 인간으로 그린 기사장 전주혁과 그의 조카인 열공학연구소 연구사이며 주인공의 애인인 전주경을 사업과 생활, 과학기술적탐구에 있어서 열정적이고 실력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관철하려는 높은 책임감과 일단 자기들이 주장하는 기술혁신안이 시대의 요구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하였을 때에는 서슴없이 앞선 기술혁신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적극 도와나서는 사람들로 이채롭게 형상하였다.

지금까지 과학자, 기술자를 형상한 큰 형식의 작품들에서는 대체로 《자기》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연구사업에서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인물들을 부정인물로 설정한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할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사장 전주혁과 전주경의 형상은 자기가 해놓은 일들이 시대의 요구에 뒤떨어진 노력의 산물이였음을 깨닫고 앞선 사람을 도와나서는 행동의 농도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총체적으로는 긍정인물계열에 속하는 형상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작가가 과학자, 기술자형상에서 혁신적안목으로 새롭게 그려낸 성격들이라고 할수 있다.

전주혁은 70일전투목표에 폐불을 잡아 리용할 안을 설계하면서 김리진이 제기한 안과 전주경이 제기한 안(폐불의 함수소를 조금씩 리용하는 안)을 놓고 둘 다 내밀도록 한다.

그는 폐불리용에 관한 두 안을 실현하는 과정에 자기가 당장 수행할수 있다고 보는 국부도입안이 먼저 성사되자 그 성과를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조카에게 박사학위논문문을 쓸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조카 전주경마저 김리진의 기술혁신안을 지지해나서자 기사장 전주혁은 자기의 결심을 포기하고 김리진이 착상한 함수소에 의한 암모니아생산공정을 꾸리는데 앞장선다.

하지만 청춘남녀간의 애정문제에서는 일정한 부족점을 안고있다. 그는 혈통을 절대시하는 인물로서 자기의 조카 전주경과 김리진의 혼인문제를 끝까지 반대한다. 김리진이 아무리 훌륭한 과학기술적안을 내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로바깥곡관이 터졌을 때 그속으로 뛰어들어 공장이 폭파당할 위험을 막아나선 영웅적행동을 하였다 해도 나라앞에 죄를 지은 사람의 아들이라면서 조카와의 혼인이란 생각할수도 없다고 한다.

주요인물인 과학자 전주경은 어떠한가. 그는 과학연구사업에 성실하고 사랑에서는 결코 높은 요구를 제기하는 녀성이 아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열공학분야에서 첨단을 돌파할 목표를 내세우고 낮에 밤을 이어 탐구를 거듭하던 끝에 폐불에 들어있는 저질수소순도를 거의 100프로나 올릴수 있는 수소정제용촉매체까지 개발하여

폐불전량을 리용할수 있게 한다.

한편 삼촌 전주혁이 가정주위환경이 좋은 대상자를 소개하려고 하자 《난 결코 사랑에 높은 요구를 제기한건 아니예요. 난 어릴적부터 잘 알고 성격도 취미도 속마음까지도 다 아는 그런 사람, 일생 작업복을 벗지 않아도 좋으니 무한히 성실하고 소박하고 함께 연구사업도 하고 날 리해해주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고싶었어요.》 하면서 리진을 그런 대상이라고 숨김없이 말한다.

그는 자신의 명예를 내걸고 랑심을 속이지 않는 청렴결백한 녀성이다.

주경은 자기가 연구개발한 방법이 폐불전량을 리용할수 있는 리진의 기술혁신안에 비하여 뒤떨어졌음을 간파하게 되자 단호하게 학위논문집필을 포기하며 리진을 도와나서는 길을 택한다.

소설에서는 매개 인물의 주도적인 성격뿐아니라서로 다른 생김새며 기질특성 등을 깊이 파고들어 개성적인 성격을 창조하는데 모를 박음으로써 로동계급을 비롯한 다양한 인물의 인상적인 모습들을 그려내고있다.

키가 눈에 띄게 작지만 높은 기능을 소유한 박오복, 그는 키 큰 제품검수공처녀와 혼담이 오갈 때 그 집 마당에 들어가 발끝으로 키를 돈구며 발레무용수처럼 행동하여 웃음을 자아냈으며 늘 톱담으로 사람들을 웃기면서 높은 기술로동은 도맡아 수행하는 모범로동자이다.

여러가지 좋은 일을 하여 집단의 사랑을 받고있는 김방울, 일은 잘하나 시기심많은 최승표, 마른 날, 굶은 날 따로없이 공장종업원들을 위해 뛰고 또 뛰는 공장정양소 소장 서윤정...

작품에서 부정인물이라고 짚어 말할수 있는 인물로는 오직 기술과 부원 서종섭뿐이다.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나 뚜렷한 생활목표가 없이 남의 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환상으로 하여 자신의 행동이 당정책적요구에 맞는지 안 맞는지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기사장의 입만 쳐다보며 앵무새처럼 놀아대는 주대없는 서종섭.

그는 형세가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자 주저없이 한 일군을 신소까지 하는 사람이다.

그러던 그는 탐기초공사장에 나갔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태풍에 의해 넘어지는 강철보로 하여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된 순간 자기가 신소한 분초급당비서 강대철의 구원을 받게 된다. 이로 하여 강대철은 병원에 실려가고 서종섭은 누이 서윤정으로부터 《너야말로 이 시대의 오물로 썩고있는줄을 알아야 한다.》는 호된 비판을 받는다.

소설에서 눈에 띄이게 개성적으로 형상된 인물의 하나로는 김리진의 어머니 유선림이다.

조국해방전쟁시기 남편이 지은 죄로 한뼉 가슴아

픈 죄책으로 전주경의 아버지 전준갑의 사망날을 잊지 않고 꼭꼭 꽃다발을 만들어 묘소에 놓는 유선림, 제 낮은 내지 말고 남의 밀거름이 되어 아버지의 죄를 씻으라고 리진을 교양하는 유선림, 그의 생활신조는 참으로 량심을 귀중히 여기는 이 나라 녀인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담은것으로 하여 공감이가 간다.

이렇듯 작품에서는 주인공 김리진을 둘러싼 여러 주요인물들의 개성적인 성격형상으로 하여 높은 사상예술성을 담보하고있다.

이러한 비결의 하나는 한마디로 말하여 현실에서 살고 숨쉬는 다양한 인물들을 생활속에서 진실하게 형상한데 있다.

2

장편소설 《세월에 새기라》의 력사적면모는 구성을 립체미가 있게 조직하고 비교적 높은 형상기교로 이야기를 다양한 장면과 세부의 결합으로 재미있게 펼친데서 찾아볼수 있다.

일반장편소설의 구성은 거의 모든 장면에서 주인공을 내세우고 크고작은 인물선(지선), 사건선을 직접 연결시키는것을 창작실천상요구로 제기하고있다.

그렇다고 하여 주요인물들의 과거생활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들 호상간의 이야기며 그 시기의 생활에서 맞닿게 되는 생활세부들과 일화들까지 다 주인공과 직접 연결지을수는 없다. 따라서 이 창작실천상 요구는 현재생활을 두고 제기하는것이다.

레컨대 주인공 김리진의 아버지와 어머니생활, 아버지 김영도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며 함께 연유창경비를 서던 전준갑의 최후, 주요인물인 강대철의 정치부중대장의 영웅적최후와 같은 사건들은 지선파만 연결되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작품은 70일전투기간에 있는 일들을 중심에 놓고 있으므로 시간성은 매우 짧다.

그러나 주인공 김리진과 애인 전주경의 지나온 어린시절과 학창시절의 추억담, 어머니 유선림의 과거사며 분초급당비서 강대철의 전투담과 정치부중대장에 대한 추억담, 공장장양소 소장 서운정의 처녀시절과 같은 각이한 사건과 생활들이 인입되어 종적으로는 시간성이 길다고 할수 있다.

인간관계의 횡적인 폭도 그닥 넓지 않으며 한개 직장을 벗어난 주요인물로서는 몇명밖에 안된다.

작품의 구성상특성은 무엇보다도 시간성은 짧으나 이야기줄거리를 조직함에 있어서 현재의 생활을 통하여 제시된 인간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현재에서 과거로,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말하자면 과거의 생활을 내면독백이나 심리과

정의 움직임을 통하여 보여주는 수법들이 특색있게 활용된것이다.

이러한 구성형식은 최근 우리 작가들이 널리 활용하는 구성조직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혁신적인것은 외면적시간을 짧게 하면서 내면적시간을 통하여 확대된 과거생활의 이야기를 현재생활에 밀착시켜 동시에 파악하게끔 엮는것이다. 말하자면 현재의 인물선에 과거의 인물선의 이야기를 바줄꼬듯이 타래를 엮고있다.

작품의 한 부분인 제27장의 이야기만 국한시켜 살펴보자.

1절에서는 강대철이 20년전 도병원에 입원하여 조국해방전쟁시기 환자들을 후송하다가 부상당한 영예군인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 이때 담당한호원을 통하여 전달되는 서운정의 편지와 보짐, (서운정은 작업도중 부상당하였는데 강대철은 진심으로 그를 도와준다.) 그것을 가져온 서운정의 동생 서중섭이의 오해에 대한 회상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것은 다시 강대철의 현재생활로 이야기가 바뀌여진다. 그다음 강대철을 찾아온 전주경이 폐불을 100프로 잡기 위한 기술혁신안의 우월성을 진심으로 느끼고 과학원에서 권고한 박사론문을 포기하는 사건으로 그리고 강대철이 들려주는 김리진의 부모들의 잔치날에 있는 현재와 과거생활이 밀착되어 이야기가 확대된다.

2절에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유선림이 군수렬차를 타고가면서 아들 김리진을 낳던 이야기와 강대철이 영웅적으로 희생된 정치부중대장에 대한 이야기를 상기하는 장면으로부터 리진이 주경이와 만나 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은 스스로 사랑을 포기한다고 말하는 장면으로 생활의 흐름이 바뀌여진다.

이처럼 작품에서는 한개 절에서조차 장면장면이 과거에서 현재로 이야기가 바뀌여지는데다가 과거역시 시간성에 있어서 각이하다.

이것은 일관된 사건으로 꾸며진 이야기줄거리가 아니라 구성의 내적축을 이루는 형상세계의 봉우리를 따라 기본이야기를 펼쳐가며 과거의 이야기를 자주 교차시키고 밀착시켜 작품의 총체적인 사상주제적과제를 해결하고있는 작가의 독특한 형상기교를 잘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형상세계의 봉우리들은 개개가 다 과거생활과 밀착되어 하나의 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이어져 거대한 산줄기를 이룬것이나 다름없다.

작품의 구성상특성은 다음으로 소설의 기본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주인공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관철하기 위한 새 기술혁신안을 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두차례에 걸치는 시험과정에서 로가 폭파되는 사건, 70일전

투목표에 제시된 중요과제를 안은 주인공 김리진의 안과 전주경의 안의 대치, 김리진의 안이 성사되어 새로운 공정을 단시일내에 꾸리는 전투, 그 과정에서의 바깥판이 터져 그것을 막기 위한 주인공의 희생적인 투쟁, 새로 꾸린 공정의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남몰래 질소불어내기를 하기 위한 시험, 이 모든것은 작품의 중심사건이라고 할수 있다. 여기서 주인공 김리진은 사건을 해결하고 작품의 기본문제를 해명하는 주동적인 역할을 하며 그에 따라 주요인물들이 움직이고 주인공과 주요인물들이 자기의 부족점을 이겨내는 과정으로 이야기가 승화되고있다.

작품은 생동하고 특색이 있는 이채로운 생활세부들과 장면들, 애정담을 엮어가며 이야기가 깊이있고 재미있게, 심각하게 펼쳐지기도 하고 서로 엉켜있는 인간관계가 풀려나간다.

레컨대 작품의 첫 부분에서부터 나오는 사연많은 은백양나무세부, 김리진의 옷걸에서 떨어진 단추세부, 학생들이 공장의 상징으로 폐불을 그린 그림세부, 김리진과 그를 오해하는 최승표의 씨름세부, 유선림이 동화를 아들에게 들려주는 세부와 김리진과 전주경, 박오복과 제품검수공, 최승표와 김방울, 강대철과 영예군인처녀의 애정선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생활세부들과 장면들은 주인공을 비롯한 주요공정인물들의 인간적인 참모습을 그려내는데 적극 기여하고있으며 소설의 갈피갈피에 설정되어 작품의 사상에예술적품격을 더욱 높이고있다.

여기서 특징적인것은 생활세부들과 과거회상에서 인상깊은 장면들을 자주 반복하여 그 내용을 심화시키거나 이야기를 전개하다가 굴절시켜 문제를 암시하고 급전시켜 해명하며 때로는 심각한 사연들은 감추기도 하고 점점 더 그 내용을 조금씩 더 알

려주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조리있게 엮어나가는것이다. (유선림이 기차안에서 해산할 때 호송군관이 뛰여다니며 보살펴주는 장면, 강대철의 정치부중대장의 영웅적최후장면 등)

이렇게 엄밀히 타산된 사건, 세부와 일화 등은 이야기의 전과정을 예술적향취가 있게 하고있다.

또한 작품에서는 상상과 련상, 환상(꿈장면), 대조, 대비의 형상수법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과거 회상의 내용을 현실에 결부시켜 방불히 떠올려 구성을 이채롭게 하고있다.

소설의 구성에서 특징적인것은 매개 인물들의 후일담을 삭제하고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것이다.

지금까지 현실주체의 장편소설에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성공, 후일담 등의 과정을 거쳐 성공이 담보되던 영광의 상상봉으로 떠올리는 장면묘사로 소설을 끝맺곤 하였다.

이에 비하면 성공의 환희로 들끓는 장면묘사로 작품을 끝맺는것은 소설창작에서 도식과 류형을 없애고 혁신적안목으로 새로운 구성형식을 탐구한 작가의 대담한 착상을 평가하지 않을수 없다.

소설은 자연묘사도 그 특징적인것만 선택하여 집약시켜주었고 그대신 심리추구에 의한 심리묘사를 깊이있게 주었다. 또한 언어형상의 측면에서도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말할수 있다.

고유어의 능란한 활용과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구성... 그 우점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그러나 이 짧은 글에서 그 모든것을 다 언급할수는 없다.

소설은 작가의 혁신적안목으로 새로운 성격, 새로운 구성을 탐구한것으로 하여 선군시대 주체문학의 화원을 빛나게 장식하는데 이바지하고있는 한떨기의 아름다운 꽃으로서 독특한 뉘를 가진 성과작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승리자의 눈물

김 성 희

나는 본다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
경기장에 오르는 공화국기 우러러
기쁨의 눈물짓는 모습

맞다드는 선수를 모두 이긴
신념과 의지 힘의 강자전만
어찌하여 시상대우에선
눈물많은 어린애가 되는것인가

천만마디 말을 대신하는 그 눈물
그것은 조국에 대한 그리움
경애하는 원수님께 드리는
승리의 보고

오, 불에도 타지 않고 마르지 않는
승리자의 눈물은
가슴속에 가득차넘치는
애국과 충정의 진주보석!

마식령의 병사들

박혜란

나는 지금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의 높은 산정에 서 있다.

바람, 눈, 비와 우박이 엇갈아쏟아져 일명 사포지대라 부른다는 여기 마식령의 대화봉은 하루에 사계절을 다 불러오는 곳이다. 아침부터 내리던 진눈까비가 어느새 우박으로 변하더니 우박이 몇자 하늬바람이 또 시작된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질에 물배낭을 지고 혼합물이김장으로 달려오는 애 어린 병사의 군복자락이 기폭처럼 날린다.

마식령의 천연수림은 노호하는 못짐승들의 울부짖음인양 우-우- 거센 소리를 지르는데 붙어치는 바람질속에서도 스키주로출발선의 휴식각을 세우는 군인건설자들의 삽질소리는 멈추어질 줄 모른다.

10리아래의 골짜기에서 물배낭을 지고오르는 처녀병사들의 얼굴에서는 구슬땀이 흘러내린다. 그런가 하면 식당으로 오가는 30분의 시간도 아까와 비물에 밥을 말아먹으며 작업장을 뜨지 않는 병사들의 락천적이고 호합진 웃음소리가 바람소리와 함께 어울린다.

여기 대화봉마루에서 령밀을 내려다보면 보름전에 와보았던 호텔의 내외부와 그 주변의 모습은 또 얼마나 많이도 달라졌는가.

내결에서 건설장의 모습을 부감하던 할머니가 혼사소리로 중얼거린다.

《〈마식령속도〉가 뭔가 했더니 바로 저런 일썹씨야.》

한달동안에만도 세차페의 원호물자를 싣고 이곳에 왔다는 평천구역 해운1동의 박순옥할머니는 나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삭도정류소를 놓느라 벼랑우에 기초를 파고있는 처녀군대들을 찾아왔을 때는 열흘전이였지. 군대처녀들한테 당과류들을 꺼내놓는데 내 손녀포태의 병사가 생글거리며 말하는게 아니겠나. 〈할머니, 우리한테 파자봉지보다 마대가 생긴것이 더 기쁩니다. 이런 마대가 많아야 더 많은 모래와 자갈을 나룰수 있거든요.〉

작업장을 둘러보니 처녀군대들이 모래마대를 둘러메고 마치 서로 경주나 하듯이 산을 뚫아오르고 있었수다.

난 그때 대학에 다니는 손녀애를 생각했소. 아

침마다 곱게 단장한 차림새로 책가방을 메고 거리로 나서군 하는 그 애가 모래배낭을 지고 달리는 처녀들의 모습을 보았다라면 무슨 생각을 할가 하고 말ियो.

난 그들과 약속했소. 다음번엔 마대를 많이 가져오겠다고 말ियो. 그래서 오늘 손녀애와 함께 마대를 싣고왔는데 그들은 자기 말은 공사를 벌써 끝내고 며칠전에 다른 작업장으로 옮겨갔다는것이 아니겠소. …》

할머니는 진심으로 서운해했다. 그러나 할머니의 다음말은 나의 가슴을 적서주었다.

《…이게 〈마식령속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소.》

나의 머리속에는 언뜻 현장지휘부에서 만났던 숙보원처녀의 말이 떠올랐다.

《…정말이지 난 울고싶었어요. 호텔내부공사가 마감단계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현장지휘부에 보고되자 난 숙보관의 특보란앞에 달려갔어요. 빨간색감을 듬뿍 묻혀 큼직하게 제목을 써놓고 숙보내용을 막 써내려가는데 주필동지가 나를 찾는것이였어요. 이틀전에 착수한 스키주로잔디입히기가 전부 끝났으니 빨리 특보란에 실으라는것입니다.

나는 다시 파란색감을 붓에 묻혀 다른 제목을 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시후 주필동지가 또 나에게로 달려오더니 대뜸 소리치는것이 아니겠어요.

《숙보원동무, 뭘 꾸물거리고있소? 건설장에서는 분이 아니라 초를 다투며 기적이 일어나고있는데 동문 그 불길을 보지 못하는게 아니요? 심장에 불이 달리지 않은 다음에야…》

그러면서 내 손에 방금 들어온 소식이 적힌 종이를 쥐여주는데 보름이 걸려야 할 삭도정류소의 기초물충진을 닷새만에 끝냈다는 기적같은 소식이였습니다. 방금 써나가던 숙보를 또 지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불쑥 눈물이 솟구쳐어요. 이 건설장에서 제구실을 못하는 전투원은 나 혼자뿐인것만 같았거든요. 난 주필동지앞에서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리고말았답니다. 꾸지람을 받아서가 아니였어요. 번개같은 일썹씨로 일을 다그치는 군인건설자들의 일썹씨에 내 손이 따라서지 못하는것이 부끄러웠고 그들의 가슴속에 고쳐치는 충정심에 가슴이 젖어들

어서 말입니다.》

격전장을 방불케 하는 이 건설장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가슴은 끓어올랐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1분1초도 드팀없이 결사관철할 일념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정대로 바위를 쪼아 스키장의 출발선에 멋들어진 각을 세우고 산을 허물어 눈포용저수지를 파고있는 병사들...

이 《마식령속도》창조자들의 눈에서 불꽃이 튀고있었다. 아니, 불길이 타번지고있었다.

이 《마식령속도》창조자들의 일손에 불타는 적개심과 분노의 나라가 돋쳤다.

오늘 아침 건설장의 출력높은 방송차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성명이 올려나온 그 시각부터 건설장을 활활 태우며 더욱 세차게 타번지는 저 불길.

나라의 절반땅을 외세에 내맡겨버린 민족반역자의 후예인 박근혜피괴무리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증오가 불길로 타서 이 산정에 굽이치고있는 것이다.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감히 헐뜯고 우리의 체제에 대해 허튼 망발을 쳤치면서 하늘에 대고 짓어대는 개무리처럼 놀아대는 괴뢰패당에 대한 규탄으로 마식령은 불의 전장으로 화해버린듯싶다.

해주가 고향이라는 애 어린 병사는 마이크를 쥐듯 삽자루를 틀어쥐고 나에게 울분을 토한다.

《강성국가의 앞날을 건설해가는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고 나쁜짓만 해대는 박근혜일당이야말로 푸른 숲을 쏘는 송충이 한가지입니다. 송충이는 한 마리도 남김없이 죽어버리고 불태워야 합니다.

우리 병사들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에 휩싸였던 북남관계를 대결상태로 몰아넣은 괴뢰패당에게 복수의 날창을 박는 심정으로 건설을 다그쳐 대화봉마루에 기어이 승리의 공화국기를 휘날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식령의 병사들이 놈들에게 보내는 통고장입니다.》

불길과 불길이 부딪치는 전장을 방불케 하는 이 건설장에서 병사들은 민족의 반역무리들에게 철추를 안길 억센 신념을 버리며 대화봉의 벼랑바위를 깎아내면서 세계를 경탄시킬 문명국의 탑을 일떠세우고있다.

건설장에 차넘치는 이 거창한 힘을 보느라니 중학교시절 힘의 작용과 가속도의 호상관계를 배우던 물리수업시간이 떠오른다.

힘의 작용에 의해 속도가 변한다는 운동의 제2법칙을 인류에게 새 세기의 현실로 증명해보이며 마식령에 문명국의 상징을 펼쳐가는 군인건설자들.

과연 저 힘을 가속시키는 작용점은 무엇이던가. 나는 애 어린 병사의 눈빛에서 그 대답을 찾는다, 온 민족의 념원인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원수들에게 무자비한 죽음을 안길 복수의 마음이 불길 이 타번지는 이 건설장에 천배만배의 힘을 더해주는것이라고.

바람에 나뭇기는 붉은기도 병사들의 복수심으로 더욱 세차게 필력이는것은 아닌지. 그리고 수수천년 잠들었던 천연의 수림도 괴뢰역적패당의 죄행에 치를 떨며 광풍을 터치는것은 아닌지...

비물에 젖어 피빛인양 진한 빛갈을 내뿜는 붉은 단풍은 통일의 열망을 안은 이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이런듯 산발마다에 피여있다.

봄이면 연분홍진달래가 남에서 북으로 올라오며 꽃수를 놓고 가을이면 단풍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며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는 내 나라 금수산. 이제 북과 남의 형제가 여기 마식령스키장으로 손 잡고 달려와 삭도도 함께 타면서 한민족된 긍지와 통일의 기쁨도 마음껏 터칠 사계절의 풍경을 눈앞에 그리니 빨간 령장을 단 아까의 그 병사가 하던 말이 귀에 쟁쟁히 들려온다.

《우리가 이 스키주로들을 튼튼히 닦아 새 세기 사회주의문명국가의 앞날을 하루빨리 당겨오는것이 박근혜피괴패당의 정수리를 후려치는것이라고 생각하면 30리터들이물배낭을 두개씩이나 등에 저도 무겁지 않습니다.》

병사의 얼굴표정은 육박전에 나선 모양으로 근엄하다.

《해가 솟는다!》 하고 웨치는 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진눈까비가 내리고 우박이 쏟아지고 하늬바람이 노한 소리를 지르던 대화봉의 하늘가로 태양이 얼굴을 내밀고있었다.

검은구름을 끝끝내 몰아내고 우주의 한복판에 솟아오른 태양은 찬란한 해살을 대지에 아낌없이 뿌려주고있었다.

해별이 비에 젖고 땀에 젖은 병사들의 군복에서 하얀 김을 문문 피워올렸다.

산정의 벼랑바위에 첫 정대를 박던 3월의 그날로부터 아침해돋이를 세번밖에 보지 못했다는 이곳에서 비와 우박을 이겨내고 광풍을 몰아낸 병사들은 태양빛에 복수의 의지를 더욱 끓이며 억세게 일손을 잡는다.

강성번영할 래일의 조국을 건설해가는 마식령병사들의 모습, 내 가슴속에 새겨지는 그들의 모습은 승리자들의 모습이였다.

—마식령의 대화봉마루에서

2013. 10. —

2013년을 보내며

이 나라 강산을 들었다놓은 력사에 류례없는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의 흐름을 탔는가 이 땅에 흐르는 세월도 어느덧 살같이 흘러 이해의 마감을 맞이하고있습니다.

주체102(2013)년!

잇을래야 잇을수 없는 승리와 영광의 해, 창조와 변혁의 해가 저물어갑니다.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의 력사적인 첫 신년사를 뜨거운 심장들마다에 간직하고 최후승리를 향한 대고조진군의 걸음을 내짚던 새해의 첫날로부터 한해가 흘렀습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5돐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에서 격동적인 시대와 숨결을 같이하며 천만군민을 투쟁과 위훈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없이 창작전투를 벌려온 작가들과 함께 《조선문학》편집부는 또 한해의 년륜을 조선문단사에 뚜렷이 아로새겼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습니다.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사상과 로선,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 보건, 문학예술, 체육, 도덕을 비롯한 모든 문화분야를 선진적인 문명강국의 높이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지나온 이 한해에 《조선문학》잡지에 실린 작품 한편한편을 추억속에 다시금 번져보느라니 새로운 시대의 인간전형을 생동하고 진실하게 형상한 단편소설들과 독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준 훌륭한 시들 그리고 언제나 선군시대의 문학작품창작에서 선도적역할을 수행한 우수한 평론들을 편집하던 나날들을 우리는 잊을수가 없습니다.

올해에도 《조선문학》잡지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을 충정으로 받들어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수령형상문학작품들이 훌륭히 많이 창작되었습니다.

수령형상문학작품창조는 우리 주체문학의 영원한 생명선이며 변함없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영원한 주제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의 신념과 끝없는 그리움을 안고 창작의 날과 달, 2013년을 누벼온 우리 작가들은 올해에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과 고매한 풍모를 감명깊게 형상한 시 《만민의 태양찬가》(문동식), 《미래가 보이는 곳》(김덕선), 《절세의 애국자》(류명호), 《장군님처럼 조국을 사랑하자》(김석주), 단편소설 《맑은 시내 흐르는 곳》(강철), 《해빛삼천리》(허문길), 《사랑의 샘》(최종하)을 훌륭히 창작하여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사무치는 그리움이 파도치게 하였습니다.

올해 수령형상문학작품창조에서 특기할 사변은 우리 《조선문학》잡지에 처음으로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의 위인상을 감명깊게 반영한 단편형상소설들과 시들이 실리며 인민들의 가슴가슴을 뜨겁게 격동시킨것입니다.

단편소설 《감사》(윤경찬), 《12월의 그이》(황용남), 《우리의 계승》(윤정길)과 함께 시 《당중앙은 위성발사를 승인한다》(조광철), 《백두령장따라 열병대오 앞으로!》(오동규), 《영광을 받으시라》(한원희), 가사 《**김정원**동지 우러러 인민은 따르네》(리계주) 등에 형상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풍모와 인덕, 뜨거운 사랑, 원수님과 천만군민사이에 흐르는 정은 세상을 놀래우고 인민의 마음을 매혹과 흠모의 절정에 닿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들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끝까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리상과 념원을 쫓아 피우는 그 길에 언제나 영원한 동지로, 전우로 서 있을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소설가, 시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약동하는 이 땅, 창조와 변혁의 전투장들마다에 로동계급과 농민들, 청년들과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천만군민과 함께 숨쉬고 창조하며 그들의 형상을 특색있는 성격과 구성, 개성적인 문체와 언어묘사로 소설문학에 진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칠줄 모르는 창작의 열정을 바쳐온 결과 많은 현실물주체의 작품들이 창작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라적방향으로 정해주신

농업전선의 들끓는 현실을 반영하여 단편소설 《이 땅을 사랑하라》(오광천), 《시대가 주는 이름》(박동칠), 《달밤》(리용운), 《고향의 백양나무》(리순호), 실화문학 《그리움에 사는 사람들》(엄성영)이 훌륭히 창작됨으로써 선군시대 농업근로자들의 후더운 숨결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또한 인민경제 선행부문인 석탄전선에 달려나간 작가들은 갱막장에서 탄부들과 함께 일하며 단편소설 《샘물은 땅속에서 솟는다》(안명국), 《나는 탄부의 안해이다》(김성희), 《나의 아버지》(홍남수), 《수술》(리경명)을 진실감있고 생동하게 창작하여 독자대중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한편의 담담한 서정시와도 같은 《당기발과 우리 가정》(강혜옥), 《별은 가깝다!》(리경명), 《마식령마루에서》(조인영), 《별》(리명호) 등 특색있는 수필들도 《조선문학》잡지의 지면을 아담하게 장식하였습니다.

올해에 우리 시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부르신 새해 첫 진군길부터 올해전투를 마감짓는 12월까지 조국땅 방방곡곡 불타는 전구들마다에 맨 선참으로 달려나가 투쟁의 노래, 창조의 노래를 수많은 창작하였습니다.

시 《전승기념관이 일떠선다》(김석평), 《승리의 길이어》(박정애), 《별세상에서 내가 산다》(리정녀), 《우리는 세포등판에서 다시 만났다》(리경체), 시묵음 《마식령바람》(심복실), 《봄들판의 새벽정서》(김선화), 시초 《나는 강선의 용해공이다》(리명학), 《어머니는 당원이다》(럼형미)...

마식령스키장건설장, 세포등판개간전투장,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중요건설장들과 탄광과 농촌을 비롯한 이 나라, 이 땅의 각이한 투쟁전구들에서 창작된 시들과 시초, 시묵음, 벽시묵음, 단시초, 그 많은 시작품들의 수를 이루 다 꼽을수가 없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평론가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체적문제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주체문학발전에 기여하며 작가들의 창작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선도적인 역할과 사명을 잊지 않고 믿음직하게 자기 전호, 자기 좌지를 지켜서있었습니다.

《붉은기에 어려있는 절세위인의 성스러운 한생에 대한 찬가》(김용부), 《선군태양은 영원하다》(김순림), 《존엄이 있어 운명도 지켜진다》(김학), 《전승의 축포속에 어려오는 <예쁜이>들의 형상》(김려숙), 《시대정신을 구현한 독창적인 문학세계를 창조하자》(박춘택) 등 많은 평론들이 작가들의 창작을 떠밀어주고 우리 문단의 키잡이역할을 훌륭히 하였습니다.

특히 시대의 명작인 노래 《조국찬가》에 대한 평론 《빛나라 아침의 나라 인민공화국이여!》(리근세)는 국보적인 가치를 가지는 가요가 담고있는 사상정서적의의와 시대를 떠미는 커다란 감화력과 추동력을 예리한 정책적안목과 풍부한 정서적리해, 능란한 필체로 훌륭히 창작하였습니다.

정말 우리 작가들의 한해의 피라는 창작적열정과 노력이 《조선문학》잡지의 한호, 한호의 편집에 기여되었다고 보면서 우리 편집부는 충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작가동지들!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우리는 붉은기 높이 휘날리며 신심드높이 가고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현실체험의 배낭을 벗어놓을수 없으며 신발끈도 풀수가 없습니다.

한해를 마감지며 우리 편집부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시인들과 소설가들이 주제에 편중하지 말고 혁명전통주제와 계급교양주제작품창작에도 낮을 들렸으면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얼굴들을 가진 작품들을 창작해 주십시오. 구태의연한 라컬식생활반영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무방할 주제물들, 웨침식의 생경한 시들, 개성이 없는 인물형상들, 특이한 묘사 한건 찾아볼수 없는 작품들을 볼 때마다 우리 편집원들은 가슴이 아픕니다.

작가동지들!

돌이켜볼수록 올해야말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아래 사변이 많고 전설이 많고 기적도 많이 창조된 특기할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2014년은 어떤 황홀한 꿈과 리상,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주겠는지...

우리는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진두에서 우리 혁명과 천만군민을 이끄시는 우리 조국의 앞날은 더없이 밝고 휘황찬란할것입니다.

력사앞에, 시대앞에 지닌 우리 작가들의 사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는 현지도의 발자취따라 천만군민이 세기를 놀래우는 변혁과 기적을 창조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들마다에서 시대정신이 맥박치고 산 인간전형들의 모습이 비껴있는 훌륭한 명작창작으로 다가오는 새해 역시 의의있게 장식하여야 할것입니다.

제야의 종소리 들으며 새해 2014년을 가슴벅찬 흥분과 회열속에 맞이하는 이 시각 우리 《조선문학》편집부는 약속합니다.

훌륭한 작품들과 함께 다시 만납시다.

새해를 축하합니다.

나의 경고

엄 정 호

촌개 우리안에서 짓는다는 말
바로 너를 두고 생겨난 말이구나
장미꽃밭의 독버섯이란 말도
바로 너를 두고 지어진 말이구나
파쑈독재자 박근혜!

입만 열면 쏟아져나오는것이란
《반공》의 독기품은 시퍼런 독뱀
《반핵》의 독기품기는 시누런 구렁이
《신뢰프로세스》와 《대화》와 《변화》의
독설과 악취품기는 대결너두리

사꾸라꽃 수놓은 치마바람은
피비린내 품기는 민주세력탄압의 광풍
열두폭도 좁은 그 치마속엔
자유와 민주의 도살을 일삼는
피비린내 품기는 도끼와 쇠고랑

바람에 너풀거리는 웃고름은
피가 마를새 없는 교수대의 바줄
통일세력탄압에 일삼는 팔은
자주통일 평화번영 통일의 차단봉
너의 걸음은 지옥으로 가는 길

곰팡내나는 청와대 독수공방에서
오바마가 안겨준 미국산 애완용개를 안고
밤이면 꾸는 《북의 변화》의 꿈은
품에 안긴 개조차도 꾸지 않는 허황한 개꿈
네가 바라는 《핵포기》는 허공에 닭알쌓기

뗏목을 부리느라 들고다니는 가방은
《국제공조》구걸외교의 가방
네가 배운 말 내뱉는 말이란
《반공》 《개혁, 개방》 《간첩》 《종북》
네가 추는 춤가락은 동족대결의 광대춤

경고한다 파쑈광신자 박근혜!
동족을 등지고 미쳐날뛰며
날마다 벌리는 군사연습소동광기는
입에 칼을 물고 날뛰는 무당쟁이 춤가락
유신독재자 애비를 찾아가는 길이거니

후회는 언제나 늦는 법
네가 갈길은 오직 죽음의 천길나락
우리의 무자비한 불소나기 불마당질에
부나비신세 면치 못하리라는것을
나는 조선공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조선문학 주체102(2013)년 제12호 (무계 제794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2(2013)년 12월 1일

발 행 주체102(2013)년 12월 5일

7-36781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3

D P R Korea

ISSN 1727-9437